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문학

강호영 외

1. 나를 깨우는, 문학

01 문학의 본질과 미적 기능

작품 1 첫사랑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012~013쪽

01 ② 02 첫사랑 03 ⑤ 04 ①

01 이 시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이 내려 쌓이고, 눈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피어나는 자연 현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첫사랑의 시련과 이를 통한 성숙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의 어조는 경탄적이고 예찬적이다. 담담한 어조로 대상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의문문의 형식이 나타나지만, 이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이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수미상관은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같거나 비슷한 구조를 의미하는데, 이 시에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시에서 어미는 '않았으랴', '보았겠지', '보아라', '터뜨린다'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운율은 주로 음성 상징어 반복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 형성된다.

02 **서술형** 이 시는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 눈꽃을 피우는 과정을 통해 첫사랑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알 수 있듯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이 끊임없이 내려앉으려 하지만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은 첫사랑에 다가가기 위한 시련과 노력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침내 나뭇가지에 눈꽃이 핀 모습은 그러한 도전 끝에 이룬 첫사랑의 황홀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의 빈칸에는 '첫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3 ㉞에서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역경을 딛고 피운 '눈꽃'을 은유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눈꽃'을 '황홀'에 빗대어 암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① ㉞의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는 눈을 사람처럼 도전하는 주체로 의인화한 것으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㉝의 '싸그락'은 '사그락'의 시적 허용이다. '사그락사그락'은 사각사각의 본말로, 눈이 내리거나 눈 따위를 가볍게 밟을 때 잇따라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③ ㉞의 '난분분 난분분'에서 '난분분'은 '난분분하다'의 어근으로, 눈이 나뭇가지에 흩날리며 어지러운 모습을 나타낸다. 이 구절에서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㉞의 '햇숨 같은 마음'은 직유법을 활용하여 순수한 눈의 마음을 '햇숨'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되짚어보기 작품에 사용된 비유법

은유법

- 원관념인 '눈꽃'을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에 비유하여 표현함.
- 원관념인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비유하여 표현함.

직유법

-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순수한 노력을 '햇숨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여 폭신하고 따스한 눈의 이미지를 형상화함.

04 ㉞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아름답다'와 '상처'라는 서로 모순된 시어가 결합된 표현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정신적 성숙의 바탕이 되므로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019쪽

01 ④ 02 ⑤ 03 • 함축적 의미: 눈꽃이자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이다. / • 표현상 특징: 은유법을 사용하여 '눈꽃'을 '황홀'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04 ⑤ 05 ②

01 이 시의 화자는 눈이 내려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연물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교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영탄적 어조로 눈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눈의 노력과 순수한 헌신에 감탄하며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과 같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눈의 지속적인 도전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③ 이 시는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눈꽃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첫사랑의 아픔을 '덴 자리', 즉 눈꽃이 진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화자는 눈꽃이 피고 사라진 자리에 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아픔을 겪고 성숙에 이르는 사랑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한다.

02 이 시의 4연에서 나뭇가지에 봄꽃이 피는 장면은 떠올릴 수 있지만, 봄꽃이 진 후 나뭇가지가 푸른 잎으로 무성해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시구나 구절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연의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눈'을 통해 겨울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② 2연의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서 나뭇가지 주위로 눈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③ 3연의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에서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이 바람에 날아가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④ 4연의 '봄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를 통해 겨울의 시련을 이겨 낸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03 서술형 《'황홀'은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 '미끄러지길 수백 번'의 시련을 거치고,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헌신적인 노력 끝에 얻은 결과물인 '눈꽃'을 빚낸 표현이다. 따라서 이 시어는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은유법을 사용하여 눈꽃을 '황홀'이라는 추상적 감정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취의 기쁨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이 시는 눈의 끈질긴 도전과 인내를 통해 마침내 피워 낸 눈꽃을 묘사함으로써, 과거의 노력으로 성취한 현재 상황을 긍정하고 있다.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와 같은 표현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이룬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보기>의 시조에서 화자는 봄이 왔으니 매화가 필 것이라 기대했지만, 때 아닌 '춘설(봄눈)'이 흩날려 꽃이 필지 말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재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싸그락 싸그락', '춤추었겠지' 등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시어를 사용하는 반면, <보기>는 '필동말동'하는 상황을 관망하므로 상대적으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하지만, 화자가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③ <보기>는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지만, 이 시는 시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성숙으로 나아가므로 현재에 대한 불만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이 시에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정서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05 ㉠의 '싸그락 싸그락'은 눈이 내리거나 밟힐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음성 상징어(의성어)이다. 이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눈이 나뭇가지에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는 공감각적 표현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 '얼마나 ~으랴'와 같은 설의적 표현으로 눈의 끈질긴 도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과 같이 유사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 '햇숨 같은 마음'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눈의 순수하고 풋풋한 마음을 '햇숨'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 '아름다운 상처'는 역설법이 쓰인 표현이다. 이를 통해 첫사랑의 아픔이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배경지식+ 시의 표현 기법

직유	비슷한 성질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표현 예 보름달 같은 마음
역설	겉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나 깨달음을 담고 있는 표현 예 멀리 있어 더 가까운 우리 사이
반어	표현하려는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여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표현 예 (지각한 친구에게) "참 빨리도 온다."

02 문학의 인식적·윤리적 기능

작품 1 빙그레의 영역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022~025 쪽

- 01 ③ 02 ④ 03 ⑤ 04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 05 ⑤ 06 친구에게 줄 라디오를 고르며 친구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과거 친구가 공들여 선물했던 라디오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07 ④ 08 ⑤

01 이 글은 작가 개인의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담담하게 서술하는 경우필이다. 이 수필은 특별한 줄거리나 인물 간의 갈등 구조 없이,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교훈을 전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빙그레의 영역'과 같이 작가만의 개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선물과 그에 얹힌 추억의 소중함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② 작가는 선물에 대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생각을 담담하고 진솔한 어조로 서술하며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④ 과거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물건으로 인식하고 사라지는 선물을 더 좋아했지만, 현재는 선물을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과거와 현재의 인식을 대비하며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⑤ 꽃, 초콜릿, 연필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예로 들어 작가가 선물에 대해 과거 가졌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배경지식+ 수필의 종류

수필은 내용과 글의 분위기에 따라 보통 경우필(가벼운 수필)과 중수필(무거운 수필)로 나뉜다. 두 갈래의 특징을 비교하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수필	중수필
- 작가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 소소한 생각, 자연이나 사물에 대한 감상 등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 작가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며, 개성적인 목소리를 낸다. - 개인적인 정서나 감흥, 깨달음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사회,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리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 사회적 존재로서의 작가가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다. -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평이나 정보 전달, 설득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02 이 글은 선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주지만, 선물을 받는 '빈도'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언급하지 않는다. 작가는 선물의 종류(사라지는 것/남는 것), 행위의 주체(주는 것/받는 것), 의미(물건/사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이들에게 백 프로 공감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② (가)에서 과거 '나'는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야 주고받는 마음이 즐거움에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았다고 했다.

③, ⑤ (다)에서 '나'는 선물의 가치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건, 시간, 사람, 말, 표정'과 같은 그것을 주고받는 순간의 총체적 경험에 있다고 말하며, 그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 도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03 (다)에서 '나'는 선물이 '되는 것'을 사건, 시간, 사람, 말, 표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이라고 설명하며, 이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은 그 무엇이 되어 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이는 선물의 가치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고받는 순간에 함께하는 여러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의미에 있음을 나타낸다.

04 **서술형** 《이 글에서 '나'는 선물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이 건네지는 순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때 비로소 선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요소로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의 다섯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05 작가가 자신의 '빙그레의 영역'에 놓인 선물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선물들을 볼 때마다 '선물을 건네면서 해 준 한마디'와 '그 표정'이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 기억들이 작가를 '빙그레 웃'게 하므로, 선물들의 공통점은 준 사람의 말과 표정이 떠오르며 미소를 짓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재활용 쇼핑백으로 만든 향아리, 돌맹이, 도토리 등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다.

② '나'가 받은 모든 선물이 '나'가 필요로 했던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베이징에서 사 온 마오쩌둥 케이스와 몽골에서 사 온 게르 미니어 처를 제외하면 외국 기념품이 아니다.

④ 돌맹이나 게르 미니어 처 등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실용적인 물건이 아니다.

06 **서술형** 《'나'는 친구에게 줄 라디오를 고르면서 주파수가 잘 잡힐지, 디자인이 어울릴지 등 친구의 환경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상한다. 이러한 경험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신에게 라디오를 선물했던 친구의 정성과 배려를 떠올린다.

07 이 글의 제목인 '빙그레의 영역'은 작가가 선물들을 보며 그것을 준 사람과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혼자만의 공간이자 시간이다. 이 글에서 작가는 '혼자 있는 내 방에서 빙그레 혼자서 웃고 있을 일'이라고 표현하며 이 영역의 성격을 드러낸다. 따라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선물들이 '내 방 창가 선반에 쏘르륵 놓여'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나의 방 창가 선반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킨다.

② 선물들을 보며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다'고 하였으므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적 의미를 지닌다.

③ '사소한 선물이었던 사물들의 소곤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가의 방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⑤ 선물들의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옆의 사물에게 소개해 주듯 말을 건넨다'고 하였으므로, 선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제목의 의미

빙그레의 영역	공간적 의미	• 선물들이 놓여 있는 작가의 방 창가 선반 • 선물들의 소곤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가의 방
	시간적 의미	• 선물들을 쳐다보며 선물을 받았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는 시간 • 선물들을 청소하며 선물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

08 이 글의 작가는 선물의 의미를 주거나 받는 물건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선물들이 놓여 있는 공간을 쳐다보면 빙그레 웃음이 나는 특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선물'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되는' 과정과 선물을 주고받은 사람 간의 관계에 있다는 삶의 의미를 독자로 하여금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독자는 이를 통해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작가는 선물이 주거나 받는 물건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작가는 선물을 준 사람의 말과 표정이 기억 속에서 떠오르면서 선물이 된다고 했지만 친한 사람들이 준 선물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③ 작가는 선물에 담긴 기억과 추억이 가치 있으며, 그것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는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아야만 웃음이 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은 선물을 통해 그것에 담긴 사연과 추억을 행복하게 떠올리는 것에 있다.

작품 2 쉽게 씌어진 시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030~031쪽

01 ⑤ **02** ① **03**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04** ⑤

01 순환 구조는 시상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시는 1연의 내용이 8연에서 변형되어 반복되지만, 시상이 처음으로 회귀하는 순환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시의 흐름이 무기력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기 성찰을 거쳐, 마지막에는 '최

초의 '악수'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를 쉽게 쓰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백적 어조가 두드러지며, 이를 통해 화자의 고뇌와 다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는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밤비', '어둠'과 희망적 미래를 나타내는 '등불', '아침'과 같은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이 시에서 '밤비', '어둠'은 부정적 현실을, '등불', '아침'은 희망, 극복 의지, 긍정적 미래를 상징하는 시어로 서로 대립적 관계를 가진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에서 암울한 시대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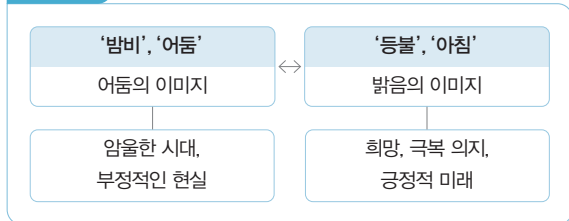
오답 풀이 ② '침전'(무기력)과 '담내'(부모의 노동)는 대립 관계가 아니다.

③ '동무'와 '교수'는 나열일 뿐 대립 관계가 아니다.

④ '밤비'와 '창밖'은 대립 관계가 아니며, '창밖'은 긍정적 미래를 의미하지 않는다.

⑤ '육첩방'(공간적 배경)과 '학비 봉투'(부모의 사랑)는 대립 관계가 아니다.

다짐어보기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



03 서술형 《[A]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치열한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04 ① '최초의 악수'는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내면적 자아가 '눈물과 위안으로' 손을 잡는 행위이다. 이는 두 자아 사이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시구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조국을 떠나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현실을 슬프게 받아들이지만 '최초의 악수'에서 이와 같은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② '악수'는 갈등의 표현이 아니라, 내적 갈등의 '해소'와 '화해'를 의미한다.

③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라는 희망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다짐을 보여 주는 행위이다.

④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행위이다.

- 01 ⑤ 02 ⑤ 03 선물을 통해 선물에 담긴 사연과 추억을 행복하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04 ④
05 ③ 06 ⑤ 07 ③ 08 ①

01 작가는 이 글에서 선물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고, '빙그레의 영역'이라는 개성적인 표현을 통해 선물들이 놓여 있는 공간의 특별함을 전달하고 있다. 사회적 모순이나 부조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글을 읽음으로써 얻는 효과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독자는 이 글을 읽고 자신에게도 '빙그레의 영역'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02 (가)에서 과거에 작가는 선물에 얹힌 추억을 부담스러워했음을 보여 준다. 반면 (다)에서는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등을 언급하며,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작가가 중시한 것은 선물의 '사라지는 속성'이지 선물 그 자체가 아니다. (다)에서도 선물이 단순히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 시간, 사람, 말, 표정과 같은 요소들과 어우러져 선물답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에서 작가는 선물에 얹힌 추억이 쌓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에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기를 좋아했다고 했다. 실용적 가치를 중시했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작가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③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피하려 한 것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다)에서는 선물이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④ (다)는 선물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지,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비교하여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03 서술형 《(라)에서 작가는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이 '선물을 건네면서 해 준 한마디'와 '그 표정'에 있다고 말한다. 즉, 선물의 본질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건네는 순간의 말과 표정처럼 주는 사람과 관련된 기억이 물건에 더해져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는 것이다.

04 (마)의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의 제목인 '빙그레의 영역'은 선물들을 보며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 공간이자 시간이다. 따라서 '빙그레의 영역'은 과거의 소중한 기억을 적극적으로 떠올리고 현재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므로 과거의 잘못을 잊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내 방 창가 선반에 쏘르륵 놓여' 있다는 표현을 통해 구체적이며 물리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② '청소를 하며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옆의 사물에게 소개해 주듯 말을 건넨다'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고야 만다. ~ 혼자서 웃고 있을 일은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그들은 알고 있을까. ~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다는 걸.'이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05 화자의 내면적 갈등은 점차 심화되다가 후반부에서 ‘최초의 악수’와 같은 시어를 통해 화해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화자는 무력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자아 성찰을 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확인하고 시를 마무리한다. 따라서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심화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부끄러운 일이다’와 같은 구절에서 드러나듯,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게 고백하는 어조로 자기 성찰의 과정을 보여준다.
 ② 8연은 1연의 시구를 변형하여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강조한다.
 ④ 화자는 자신의 상태를 ‘침전하는 것일까?’라고 표현하며,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무기력함과 절망적인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⑤ ‘밤, 어둠(부정적 현실)’과 ‘등불, 아침(극복 의지, 희망)처럼 대립적인 심상을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한다.

06 이 시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시인은 ‘인생은 살기 어렵다네 /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며 시대적 아픔과 고통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고자 한다. 이 시를 감상한 독자는 이와 같은 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07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행위는 암울한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화자의 안일한 일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삶과 일제 강점이라는 조국의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를 조국에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육첩방’은 일본식 작은 방으로, 이를 ‘남의 나라’로 표현함으로써 일제 강점의 상황에서 일본에 머물고 있는 화자의 비애와 민족의식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②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학비 봉투’는 화자에게 안락한 유학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동무들의 고통과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④ <보기>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는 국민들에게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의 ‘어둠’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아침’은 ‘어둠’이 끝난 뒤에 오는 시간이므로,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조국의 ‘광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시행한 폭압적인 정책이다. 학교에서 우리말과 글의 교육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으며,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창씨개명)했다. 또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수많은 청년을 전쟁터(징병)나 공장(징용)으로 강제 동원했다.

08 ‘최초의 악수’에서 손을 내미는 주체인 ㉠은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최

후의 나(내면적 자아)’이다. 손을 내미는 대상인 ㉡은 현실 속에서 무력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던 ‘현실적 자아’이다. 따라서 ‘눈물과 위안으로’ 이루어지는 이 악수는, 의지적인 자아가 무기력한 자아를 위로하며 화해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② 내면적 자아인 ㉠이 현실적 자아인 ㉡에게 손을 내민다.
 ③, ④ ‘악수’는 비판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행위이다.
 ⑤ 이 시의 내용상 내면적 자아인 ㉠은 현실적 자아인 ㉡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본문 042~045쪽

- 01 ② 02 ④ 03 ⑤ 04 ①
 05 은유(비유)와 역설법을 사용하여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정신적 성숙)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06 ③ 07 ③ 08 ⑤ 09 일반적이지 않은 작가의 취향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한다. 10 ③ 11 ② 12 ④
 13 ⑤ 14 ②

01 이 시는 특정 독자나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말을 전내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자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서술하는 독백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 오답풀이 ① 이 시의 1연인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는 구절에서 설악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눈꽃을 피우려는 눈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이 시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서 발견한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④ 이 시에서는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유법), ‘햇숨 같은 마음’(직유법) 등 다양한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는 ‘싸그락 싸그락’(청각적 상상), ‘난분분 난분분’(시각적 상상)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2 이 시는 ‘눈이 내리는 겨울’에서 ‘꽃이 피는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이 흐름 안에서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첫사랑을 향한 도전으로, 눈이 나뭇가지에 쌓인 모습을 첫사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눈이 녹은 자리에 봄의 꽃이 피는 모습을 첫사랑이 끝난 후에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그려 내고 있다.

03 ‘데다’는 본래 ‘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이 상하다’는 뜻이지만, ‘몹시 놀라거나 심한 괴로움을 겪어 진저리가 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 시에서는 눈꽃이 피었다가 녹아 없어진 자리를 ‘덴 자리’라고 표현하여, 첫사랑이 끝난 뒤에 남은 아픔과 상

처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이 자리는 이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봄꽃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아픔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 04** <보기>는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문학은 문학적 표현 수단을 통해 창조적인 언어로 대상을 형상화하기에 형상화한 내용에 정서나 체험이 심미적으로 담기고, 감각적 이미지나 리듬감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미적 가치를 실현한다. 2연의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는 음성상징어를 반복하여 눈이 눈꽃을 피우려 노력하는 과정을 청각적·시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따라서 <보기>의 미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가장 적절한 감상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④ 눈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에서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는 감상은 문학의 인식적·윤리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미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③ 이 시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색채 이미지를 점층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눈꽃의 모습에서 영원한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미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되짚어보기 문학의 기능

	주요 내용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적 기능	운율, 심상, 구조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해 작품의 아름다움을 구현함.	작품의 형식적 아름다움에서 미적 쾌감과 감동을 느낌.
인식적 기능	삶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아내어 현실의 모습이나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함.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삶의 진실을 성찰할 기회를 얻음.
윤리적 기능	바람직한 삶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함.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성찰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됨.

- 05 서술형** ㉠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서로 모순되는 시어를 결합하여 '첫사랑의 아픔 이후 도달한 정신적 성숙'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은유(비유)법과 역설법이 사용되었음을 썼다.	☐
㉠의 함축적 의미로 '첫사랑의 아픔 이후 도달한 정신적 성숙'이라는 핵심 의미가 담기도록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6** 이 글은 선물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현대 수필이다. 수필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성찰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로, 독자는 글쓴이가 제시한 소재나 경험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며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나'는 과거에 선물의 실용성을 기준으로 선물을 판단하지 않았다. 과거의 기준은 '사라지는 것'인가 아닌가, 즉 추억의 부담이 없는가에 있었다. 현재 '나'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말과 표정, 그리고 그 순간의 의미를 중시하고 있으며, 디자인이나 색감 같은 미적인 측면을 중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물의 가치 판단 기준이 '실용성'에서 '미적인 측면'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과거에는 사연이 담긴 선물을 부담스럽게 여겼지만, 현재는 그 사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웃음을 짓는 등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② 과거에는 주고받는 '물건'으로 생각했지만, 현재는 선물이 되는 '사건, 시간, 사람, 말, 표정'의 결합, 즉 특별한 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④ 과거에는 받는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친구에게 줄 라디오를 고르며 주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며 선물을 주는 것의 의미도 깨달았다.

⑤ 과거에는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나타나듯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선물과 관련된 사람, 기억, 관계의 의미도 깨달았다.

- 08** 이 글에서 '나'는 선물들을 보며 '빙그레 웃고야 만다'고 말한다. '빙그레' 웃는 모습은 슬픔이나 아쉬움이 섞인 '애똥한 그리움'보다는,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에서 비롯되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거의 '나'에 대한 애똥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가 선물들의 소곤거림을 배경 음악처럼 여기며 글을 쓸 때 '대답 같은 것', '즐거움 받아쓰기 같다'고 하였으므로, 빙그레의 영역이 창작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나'가 '내 방 창가 선반에 쏘르륵 놓여 있지 않았다면' 웃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선반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이 글에서 '빙그레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나'는 선반에 놓인 선물들을 보며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9 서술형** 이 글은 ㉠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로 시작한다. 이처럼 자신의 일반적이지 않은 취향을 소개하며 글이 시작됨으로써 독자는 글에 대해 더욱 호기심을 갖고 읽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나타난 특징을 적절하게 밝혀 썼다.	☐
독자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문장으로 썼다.	☐

- 10** '나'는 친구에게 줄 라디오를 고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친구가 사는 환경에 대해 상상'한다. 작가는 이처럼 선물을 주는 입장이 되어 보는 경험을 통해 과거 자신에게 라디오를 선물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별려서 기어이' 선물을 준비했던 친구의 깊은 배려와 정성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

- 답풀이 ① 불안감을 느꼈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②, ④ 라디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친구와 연락하려고 한 것은 라디오를 다시 쳐다본 '이후'의 행동이지, 라디오를 쳐다본 이유는 아니다.
 ⑤ 자신의 라디오로 수신 상태를 점검한다는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 11 이 글과 ㉔는 모두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내면 성찰을 다루는 수필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독자의 각성 촉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글은 선물에 대한 개인적 깨달음을, ㉔는 자아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배경지식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갈래	한문 수필, 기(記)
성격	교훈적, 성찰적, 회고적
제재	'수오재'라는 당호
주제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특징	- 전통적인 한문 양식인 기(記)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경험과 사색, 자문자답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밝히고, 성찰의 과정을 보여 줌. -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함.

- 12 이 시에서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어둠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고, 이와 대조되는 긍정적 미래를 밝음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대비되는 시각적 이미지가 9연에서 병치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답풀이 ① 이 시에서는 '-버니다'와 같은 경어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1~2연에서 화자는 일본에서 시를 쓰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며 시상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미래부터 시상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내적 갈등의 해소가 나타나는 부분은 '최초의 악수'인데, 이는 화자의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한 것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이 시는 부조리한 사회 비판보다는 제대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 13 이 시의 화자는 7연에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네 / 시(詩)가 이렇게 쉽게 썩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에는 삶의 보편적 고통 앞에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일본에서 시를 쓰며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다.

- 답풀이 ① 화자는 시인을 '슬픈 천명'으로 인식하고, '시가 이렇게 쉽게 썩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식민지 시대의 고통 속에서도 시를 쓰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 줄 시를 적어 볼까'라는 표현에서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를 창작을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화자는 부모님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으며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안일한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화자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치열한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무기력한 지식인의 삶을 사는 자신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지만, '늙은 교수의 강의' 자체에 불만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화자는 '홀로 침전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지만, 결국 '시대처럼 올라침'을 기다리며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되짚어보기 작품에 드러난 시대 상황과 화자의 태도

작품에 드러난 시대 상황	
이 작품이 창작된 1942년은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이 심화되는 등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였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음.	
↓	
화자의 태도가 담긴 시구	'인생은 살기 어렵다네 / 시가 이렇게 쉽게 썩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화자의 태도	조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김.

- 14 <보기>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 즉 문학이 독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모색하도록 돕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②는 '육첩방'을 통해 이질감과 외로움 같은 정서적 경험을 체험했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성찰하거나 윤리적 태도를 모색하는 <보기>의 기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답풀이 ① 책임감이라는 도덕적 가치로 연결되므로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부합한다.
 ③ 자기 성찰과 도덕적 성숙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므로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부합한다.
 ④ '양심'과 '진실성'은 바람직한 삶의 가치로,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잘 보여 준다.
 ⑤ 자아 성찰과 내적 통합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므로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부합한다.

2. 다양한 빛깔로 만나는, 문학

01 서정 갈래의 이해

작품 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052~053 쪽

01 ② 02 ① 03 그 복숭아나무 그늘

01 이 시는 외형물을 따르지 않고, 화자의 섬세한 감정의 흐름과 사색의 깊이에 따라 호흡이 조절되는 내재율을 보인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비니다’와 같은 종결 어미의 반복, ‘눈부셔 눈부셔’와 같은 시어의 연속적 배치 및 ‘흰 꽃과 분홍 꽃’과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2연의 마지막 행인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서 묵적어와 서술어의 순서를 바꾼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비니다’라는 경어체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고백하는 듯한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⑤ 이 시는 자연물인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복숭아나무(타자)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02 ‘흰 꽃과 분홍 꽃’은 화자가 처음에 인식한 대상의 모습을 의미한다. 반면, ‘수천의 빛깔’은 화자가 나중에 인식한 대상의 모습을 의미한다. 화자는 대상의 겉모습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대상의 참모습을 발견하며 대상을 깊이 이해한다.

오답 풀이 ② ㉠과 ㉡의 대상인 복숭아나무가 변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

③ 화자는 ㉠에 대해 거리를 두었고, ㉡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④ ㉠과 ㉡은 모두 현재 관찰하는 복숭아나무의 모습이며,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이라는 의미와는 무관하다.

⑤ 화자는 ㉠을 볼 때보다 ㉡을 발견한 후에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03 서술형 이 시에서 화자는 처음에 복숭아나무를 멀리서만 바라보며 거리를 두었으나, 점차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교감하기에 이른다.

배경지식+ 의인법과 주제 형상화

이 시는 ‘복숭아나무’라는 자연물을 마치 감정과 내면을 가진 인격체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한다. 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고, ‘외로웠을 것’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그 예이다. 이처럼 자연물을 의인화함으로써 작가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를 독자가 구체적이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가 나무의 ‘그늘’에 들어가는 행위가 단순히 휴식을 넘어 ‘교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배경에는 의인법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2 흰 바람벽이 있어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060~063 쪽

01 ⑤ 02 좁다란 방, 희미한 십오 축 전등,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사쓰 03 ② 04 ② 05 ① 06 ⑤ 07 ①

01 ‘흰 바람벽’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나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처럼 기능하므로, 화자가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고 고결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으나 이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적 관문으로 보기 어렵다.

도전여보기 ‘흰 바람벽’의 기능과 의미

스크린의 역할	화자의 현재 상황, 과거의 기억, 내면의 생각을 비추는 스크린의 역할을 함.
성찰의 매개체	화자는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됨.
정서 심화와 전환	전반부에는 쓸쓸함과 그리움을 심화하지만, 후반부에는 깨달음을 통해 자기 위로와 극복 의지를 다지는 공간으로 의미가 전환됨.

02 서술형 화자의 가난하고 쓸쓸한 처지는 이 시의 1~5행에서 구체적인 사물들을 통해 드러난다. ‘좁다란 방’, 어두운 방을 겨우 밝히는 ‘희미한 십오 축 전등’, 때가 묻고 해진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사쓰’는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이다.

03 화자가 떠올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아 대긋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고,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있다. 이는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홀로 있는 화자의 처지와는 상반된다.

04 ‘시퍼렇듯하니 추운’에는 ‘춥다’라는 촉각적 심상을 ‘시퍼렇다’는 시각적 심상으로 바꾸어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감각의 전이를 통해 어머니가 처한 고달픈 상황을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배경지식+ 공감각적 심상과 복합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과 복합적 심상은 모두 여러 감각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감각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창조한다. 예를 들어 ‘시린 소리’는 청각을 촉각으로, ‘향기로운 노래’는 청각을 후각으로 전이시킨 표현이다. 복합적 심상은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전이 없이 병렬적으로 결합하여 대상을 입체적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소리’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제시하여 장면을 풍부하게 표현한 것이다.

05 17행의 ‘그런데’라는 접속 부사는 이 시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그런데’의 앞에서 화자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쓸쓸한 심정을 드러내지만, ‘그런데’를 기점으로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태도로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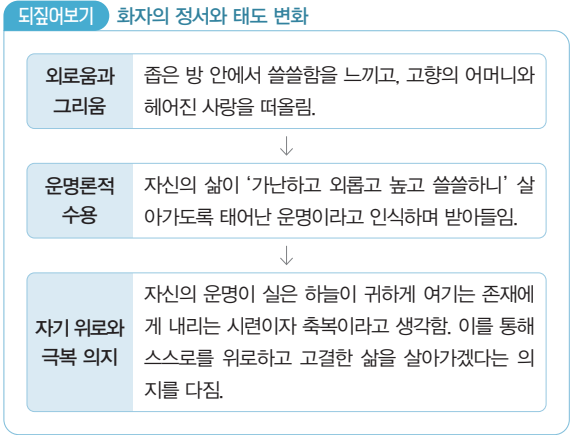
06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외롭고 고달픈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것을 수행 과정으로 여기며 금욕과 절제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답풀이 ① ‘나를 위로하는 듯이’라는 시구 등을 통해 화자가 힘든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함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에서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대상들을 떠올리는 것은 위안을 얻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

④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하늘에서 내린 것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세 시인은 모두 물질적 풍요보다는 고독, 자연, 사랑과 같은 가치를 작품 세계에 드러낸 인물들이다. 화자는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고독하지만 고결한 삶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069~071 쪽

- 01 ⑤ 02 ⑤ 03 ‘복숭아나무 그늘’과 ‘저녁’은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복숭아나무와 교감하게 되는 공간과 시간이다. 04 ③ 05 ② 06 흰 바람벽 07 ⑤ 08 화자는 ‘그런데’를 기점으로 그 리움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결한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09 ④ 10 ① 11 ⑤

01 (가)는 ‘복숭아나무’를 통해 타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인식의 문제를 형상화한다. (나)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외로움이라는 보편적 삶의 원리를 노래한다. 즉 두 시는 모두 자연물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나 철학적 깨달음과 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두 시는 모두 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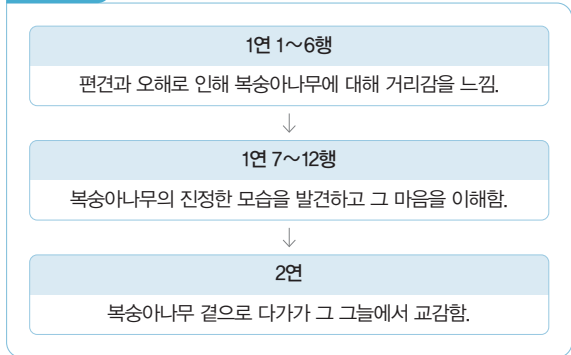
② 3음보 율격의 민요적 가락을 형성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③ (가)는 경어체의 독백적 어조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고, (나)는 평서형의 독백적 어조로 자연 현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가)에는 ‘흰 꽃’, ‘분홍 꽃’ 등에서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특정 색채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의 화자는 처음에 ‘흰 꽃과 분홍꽃’을 피운 복숭아나무의 겉모습만 보고 편견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며 거부감을 보인다. 이후 화자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발견하며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그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대상과 교감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되짚어보기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



03 **서술형** < ‘복숭아나무 그늘’은 화자와 복숭아나무가 교감하는 공간이고, ‘저녁’은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시간이다. 두 시어 모두 화자의 인식 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개로 기능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 및 교감과 관련된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㉔은 복숭아나무의 내면을 화자가 추측한 것으로, ‘그 나무’는 복숭아나무를 가리킨다.

05 <보기 2>는 이조년의 시조로,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자연 경관의 묘사와 자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다.

되짚어보기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갈래	평시조	제재	배꽃, 은하수
성격	애상적, 감각적	주제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
특징	- 흰색의 색채 이미지(이화, 월백, 은하)를 사용하여 고독한 봄밤의 분위기를 조성함. - 봄밤의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화자의 심정을 나중에 드러내는 선경후정의 구성 방식을 보임.		

06 **서술형** < 이 시에서 ‘흰 바람벽’은 스크린처럼 화자의 생각이나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하며,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삶의 궤적을 재현하는 시적 장치이자 성찰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07 '시퍼러둥둥하니 추운'은 '춥다'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시퍼러둥둥하다'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으로,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는 묘사와 함께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다.

08 **서술형** 이 시의 화자는 초반부에는 가난한 현실과 그리움에 대한 상념에 머물렀지만, 17행의 '그런데'를 기점으로 자신의 고독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결한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평가 기준	확인()
'그런데'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시적 상황을 모두 적절하게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09 [A]에서 화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하며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더 나아가 [B]에서는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여 운명을 긍정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10 ㉔는 소박하고 순수한 존재들이고, ㉕는 고독한 삶 속에서도 고결하게 시를 써 온 시인들이다. 이들은 모두 화자처럼 외롭고 쓸쓸하지만 고결한 정신을 지키며 살도록 하늘이 정한 존재들로 제시된다. 따라서 화자는 이들과 자신을 운명적으로 동일시하며, 자신의 고독한 삶을 긍정하고 위로받는다.

오답 풀이 ㉔ 성찰의 매개체인 '흰 바람벽'에 나타난 '글자들'이 각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㉔와 ㉕는 그 내용의 일부이다.

㉓ 화자의 고독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여 위안을 주고 상실감을 극복하게 하는 존재이다.

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는 대상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이다.

㉕ 세속적 욕망이 아닌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11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는 표현은, 화자가 좁은 방에서 궁핍하고 외롭게 지내며 느끼는 고독과 쓸쓸함을 잠시나마 달래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며, 이를 민족적 양심과 일제 협력 사이의 내적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㉑ 백석은 고향을 떠나 만주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상황이었으므로,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사또'는 일제 강점기 이주민의 고단한 삶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㉒ '이 좁다란 방'은 화자가 고립되어 지내는 공간이다. 여기에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는 정서적 표현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는 타자인 만주에서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고립감과 쓸쓸함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㉓ '희미한 심오 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는 공간의 어두운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만주에서의 고단한 삶과 더불어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㉔ 화자가 흰 바람벽을 통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은, 고향을 떠나 만주에서 홀로 지내는 화자가 고향에 남겨 둔 소중한 그리운 존재들을 회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2 서사 갈래의 이해

작품 1 이생규장전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074~081 쪽

01 ㉔	02 ㉔	03 재자가인	04 ㉔	05 환신
06 ㉔	07 ㉔	08 이 서생이 담장 너머로 최 여인을 엿본 후 만나 인연을 맺은 것, 이 서생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례를 올린 것, 최 여인이 환신하여 이 서생과 재회한 것을 의미한다.	09 ㉔	10 ㉔
			11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12 ㉔
				13 ㉔

01 이 글은 주인공인 이 서생과 최 여인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며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두 사람은 이 서생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했다가 이후 혼례로 맺어지지만,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다시 이별하게 되는 등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㉔). 또한 이 서생의 가족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흩어지고 최 여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점에서 홍건적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인물의 운명과 서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㉔).

오답 풀이 나. 이 글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여 전달한다.

ㄷ.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02 (가)의 후반부와 중략 부분 줄거리의 초반 내용에서, 담장 너머로 최 여인을 보고 반한 이 서생이 그녀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송도의 국학에는 이 서생만이 다니고 있었으며, 최 여인도 다니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지 않다.

㉓, ㉔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딸의 병이 이 서생 때문임을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혼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최 여인의 간곡한 청에 따라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㉕ 최 여인은 이 서생이 지방으로 떠났던 소식을 듣고 난 후 병이 날 뿐,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최 여인은 홍건적의 난 때 정조를 지키기 위해 도적을 꾸짖다 도적의 손에 죽게 된다.

03 **서술형** (가)에서 이 서생은 얼굴이 말쑥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최 여인은 맵시가 아리답고 자수와 시부에 능한 인물로 소개된다. 이는 재자가인(才子佳人)형 인물 형상화 방식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한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04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산(家産)에 미치자 최 여인은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 두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이튿날에는 이 서생과 매장한 곳에 함께 가서 금은과 재물을 찾아온다. 이로 보아 이 서생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이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최 여인은 이 서생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최 여인의 상황을 안쓰러워하는 이 서생의 표정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인연을 맺어 행복하게 지냈던 때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함께 지낸 몇 년의 생활을 영상을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③ 최 여인의 이야기에서 정조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서생에 대한 최 여인의 굳은 절개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는 비장한(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 씩씩하고 장한) 느낌을 주는 배경 음악이 어울린다.

⑤ 최 여인은 양가의 딸로서,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라 왔고 시서와 예법을 배워 규중의 법도를 익힌 인물이다. 따라서 최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는 양가 규수로서의 말투와 예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서술형 《홍건적의 난으로 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 서생과 재결합하는 사건은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영혼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점에서 전기성(傳奇性)이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며, 작품 전체에 신비한 분위기를 부여한다.

06 ㉠은 이 서생이 현재의 처지와 대비되는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부분이다. 여기서 ‘한바탕 꿈만 같다’는 인식은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같이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표현한 것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의 상황이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충돌’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은 폐허가 된 공간을 묘사하여, 전쟁으로 인한 이 서생의 참담한 심정을 환기하고 있다.

③ ㉢은 이 서생이 최 여인이 죽었음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의심)보다 지극한 감정(사랑과 반가움)을 우선시하여 재회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이들의 재회가 결국 비극적 결말(이별)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④ ㉤은 최 여인이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정절을 지켜 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⑤ ㉥에서 ‘삼세(三世)의 깊은 인연’은 불교의 윤회 사상에 기반한 것으로 전생과 현생, 내생에 걸쳐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인연을 의미한다. 이는 두 사람의 사랑이 운명적임을 강조하며 재회의 필연성을 드러낸다.

07 (라)에 제시된 노래는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 여인이 이별을 앞두고 부른 것이다. 이는 이 서생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며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부분이므로 사건 전개 속도를 높여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서술형 이 글에서 이 서생과 최 여인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 첫 번째 가약은 이 서생이 담장 너머로 최 여인을 엿본 후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것이고, 두 번째 가약은 이 서생 아버지의 반대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혼례를 올린 것이며, 세 번째 가약은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하여 이 서생과 남은 인연을 맺은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세 번의 가약 내용을 모두 밝혀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09 최 여인의 노래에서 ‘원앙’은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처지를 대변하는 소재이다. 원앙은 도적 떼로 인한 싸움터에서 몰죽음을 당하고 짝을 잃었다고 하여 두 사람의 비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반면 ‘무산 선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존재로, 최 여인의 처지와 대비된다. 최 여인은 자신이 무산 선녀처럼 사랑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 서생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무산 선녀가 되기를 포기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10 이 글은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죽음 이후에도 재회했다가 다시 영원히 이별하는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된다. 이는 두 사람의 운명적 사랑과 이별의 슬픔,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주인공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도덕적 결함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를 보여 주며 도덕적 교훈을 전달한다’는 내용은 이 글의 결말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11 서술형 이 글의 결말 부분에서는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며 이야기 밖의 이야기를 덧붙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2 ‘풍비박산(風飛雹散)’은 바람에 날리고 우박이 흩어지듯 사방으로 흩어짐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로,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집단이 흩어지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②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음을 이르는 말.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초나라 항우가 서원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데서 유래한다.

⑤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저승의 법)은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할 수 없다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질서로, 두 사람의 비극적 이별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는 최 여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운명적 제약이다. 따라서 ‘저승의 법’을 스스로 선택한 윤리적 규범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최 여인의 환신은 저승의 법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재회의 형태이다. 이는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허용된 재회이다.

② 저승의 법은 죽은 자가 산 자의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재회가 곧 이별로 이어지는 비극적 결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 ③ 저승의 법은 생사의 경계를 나누는 초월적 규범으로, 인간계와 저승계의 질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두 세계의 고유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저승의 법은 죽은 자가 산 자의 세계에 머무를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두 사람의 이별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제약이다.

작품 2) 도도한 생활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086~093쪽

01 ⑤	02 ③	03 ③	04 쌀 포대만 한 줄음			
05 ③	06 ④	07 ③	08 미역	09 ④		
10 ④	11 ㉔: 방 안에 갇힌 나방, ㉕: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12 ③	13 ⑤	14 ③

01 이 글은 '반지하 셋방'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언니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청년 세대가 마주한 열악한 현실과 정서적 고립감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2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는 엄마의 부탁으로 피아노를 가져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나'가 엄마를 설득하여 피아노를 가져왔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3 피아노는 교양 있는 중산층의 이미지로 부각되던 물건으로 엄마와 '나'로 하여금 도도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보루이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엄마는 여유가 생기자 '나'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며, 집안이 망한 상황에서도 피아노를 팔지 않고 '나'가 서울의 반지하 셋방으로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데 이는 피아노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 주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피아노는 가세가 기운 원인이 아니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엄마는 여유가 생겨 피아노를 사 주었고, 집안이 망한 것은 아빠의 빚보증 때문이다. 피아노는 집안이 망한 이후에도 지키려는 대상이다.

② 피아노는 공평한 현실을 드러내는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교양 있는 중산층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엄마가 집안이 망한 상황에서도 피아노를 팔지 않고 '나'가 서울로 가져가기를 바란 것은 경제적 몰락 속에서도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피아노는 가족 간 소통을 단절시키지 않는다. '나'가 엄마의 바람에 따라 피아노를 반지하 셋방에 가져갔다는 점을 통해 볼 때 피아노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매개체라 할 수 있다.

⑤ 피아노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팔 수도 있었지만 엄마는 팔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 실용성보다 정신적·상징적 가치를 중시했음을 보여 준다.

04 서술형 《(가)에서 '나'의 언니가 새벽마다 학원에 가는 모습을 '어깨에 쌀 포대만 한 줄음을 이고 학원에 갔고'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언니의 처지를 형상화한 표현이다.

05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나'가 자신의 시각에서 경험한 사건과 내면의 생각, 감정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 작가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생각을 아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

④ 여러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나'의 시점에서만 서술되고 있다.

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인과 관계 없이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 글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06 '나'는 현재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가전제품에만 둘러싸여 지내지만, 이러한 고립된 삶을 자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따라서 '나'가 인간관계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고립을 자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타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단순 반복 노동에 갇힌 자신의 처지에 답답함을 느낀다. '손가락만 진화한 타자수가 되는 꿈'은 기계처럼 키보드만 두드리는 도구로 전락한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다.

② '나'는 '도 다음엔 레가 오는 것처럼 여름이 끝난 후 반드시 가을이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 한해 서 창백해져 있었다.'라고 하여 기대했던 변화가 생각보다 더디게 찾아온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8월에는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지.'와 같이 미래에 대한 소소한 계획을 세우며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있다.

⑤ '나'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07 (나)의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일주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고'라는 구절에서 '나'가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 등록금의 부담이 있는 청년 세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8 서술형 《(다)에서 '나'는 습하고 열악한 반지하 셋방의 환경을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운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한다. 이는 반지하 셋방의 눅눅한 공기를 '미역'에 비유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09 집주인은 세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집주인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집주인이 가족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모습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0 '나'가 '의외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인데, 언니가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반지하 셋방에서 빚물이 새는 상황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반지하는 구조적으로 습기와 누수에 취약한 주거 형태이며, 언니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더 이상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 11 **서술형**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라고 표현하며 피아노 소리를 감각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마에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모습을 '검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로 표현하여 현실의 비통함을 감각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4어절의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썼다.	☐
㉯에 들어갈 6어절의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썼다.	☐

- 12 '나'는 반지하 셋방에 새는 물을 퍼내는 와중에 돈이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얼마 뒤 언니의 예전 애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 현관 앞에 눕는다.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던 '나'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연달아 겹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연속된 위기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 오답풀이**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옛날에 새옹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인이 낙심하였는데, 그 후에 달아났던 말이 준마를 한 필 끌고 와서 그 덕분에 훌륭한 말을 얻게 되었으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므로 노인이 다시 낙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아들이 전쟁에 끌려 나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 서 유래한다.
 ④ 전화위복(轉禍爲福):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이다.
 ⑤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거나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다.

- 13 ㉮은 빗물이 방 안에 들어와 피아노가 물에 잠겨 가는 상황에서 '나'가 느끼는 절망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 오답풀이** ① ㉮은 언니가 돌아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피아노가 물에 잠겨 가는 순간 '나'가 느낀 절망감을 환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② ㉮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보다는 피아노(자존심의 보루)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③ ㉮은 집주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피아노가 물에 잠겨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직전 상황에서 촉발된 '나'의 내면적 절망감을 드러낸 표현이다.
 ④ ㉮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가 물에 잠겨 가는 현재 상황에서 '나'가 느끼는 절망감을 환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 14 제목 '도도한 생활'은 경제적 몰락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나'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반지하 셋방에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피아노를 치는 '나'의 모습은 이 제목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행위는 남루한 현실을 버티려는 것이자 자존감을 지켜 내려는 행위이다.

- 01 ④ 02 ③ 03 ② 04 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요소는 등장인물들의 지극한 사랑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05 ① 06 ④ 07 ③ 08 ⑤ 09 피아노는 중산층의 여유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나'와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 주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10 ⑤ 11 ④

- 01 이 글은 이 서생과 최 여인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며 서사가 전개된다. 두 사람은 이 서생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했다가 혼인을 하게 되고 이후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이별했다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다시 재회한다. 그리고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별을 맞이한다. 이처럼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것은 둘이 어려움을 이겨 내며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했는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 오답풀이** ①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간 뒤 이 서생도 세상을 떠나는 닫힌 결말 구조이다.
 ② 이 글은 환신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을 다루지만, 꿈과 현실의 교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인물의 내면까지 모두 보여 주고 있으며 주인공의 관점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⑤ 이 글의 배경은 가상의 공간이 아닌, '송도'라는 현실적 공간이다.

- 02 (마)에서 이 서생은 최 여인의 부탁대로 최 여인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 오답풀이** ① (마)에 나타난 최 여인의 말에 따르면 이 서생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두문불출(杜門不出)'은 집에서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가지 아니하거나 사회의 일을 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다)에서 이 서생은 최 여인의 환신과 함께 살게 된 후 친척과 손님의 길흉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두문불출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서생은 이미 죽은 최 여인보다 오래 살 운명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이 서생은 '얼굴은 말쑥하며 재주가 뛰어났'고 최 여인은 '몹시가 아리답고 자수에 능하며 시부(詩賦)에도 뛰어났'다고 하였으므로, 두 인물 모두 재자가인형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라)에 나타난 최 여인의 말에 따르면, 최 여인은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어서 환신으로 나타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3 (나)에는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 서생과 재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두 인물의 재회는 꿈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나)의 소재목으로는 '최 여인의 환신과 이 서생의 재회'와 같은 내용이 적절하다.

- 04 **서술형** 《이 글에 나타나는 '환신'이라는 전기적 요소는 죽음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초현실적으로 극복하게 함으로써, 남녀 간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평가 기준	확인☑
글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를 적절하게 썼다.	☐
주제와 관련지어 전기적 요소의 역할을 적절하게 썼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 05 ㉠은 황건적의 난 이후 황폐한 공간의 쓸쓸함을 나타낼 뿐, 이 서생의 현실 극복 의지와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② ㉡은 최 여인의 환신이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최 여인을 향한 이 서생의 지극한 사랑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것, 혼례를 올린 것, 최 여인의 환신과 이승에서 다시 만난 것을 말한다.

⑤ ㉤은 최 여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후 이 서생도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으로 비극적 결말을 보여 준다. 이러한 비극적 결말은 최 여인을 향한 이 서생의 애절한 사랑을 강조해 준다.

- 06 <보기>의 노래는 이별을 앞둔 최 여인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도적 떼', '흩어진 해골' 등을 통해 과거에 겪은 비극을 요약하고,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소식조차 막히리라' 등을 통해 영원한 이별을 암시하며 비극적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갈등을 해결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여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설명은 노래의 기능 및 내용과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와 같은 구절에서 이별을 앞둔 최 여인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② '도적 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 몰죽음 당하니'라는 구절은 '황건적의 난'으로 겪은 비극적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③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라는 구절은 앞으로 닥칠 영원한 이별을 암시하며 독자에게 깊은 정서적 여운을 준다.

⑤ 서사적 사건의 전개 속에 서정적인 노래를 삽입하여 분위기를 환기하고,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효과를 얻는다.

- 07 (다)에서 주인집 사람들이 '나'를 찾아간 것은 '나'가 피아노를 쳐서 소음을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주인집 사람들이 '나'의 피아노 연주 실력에 호기심을 보인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집안이 어려워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나'가 대학에 합격한 후,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하 셋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언니가 편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나'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08 '반지하 셋방'은 '나'가 언니와 함께 고된 생활을 이어 가는 공간이다. 곰팡이가 잘 피는 습한 환경의 반지하 셋방은 '나'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이야기에 현실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발판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 09 서술형 <피아노>는 중산층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집안의 안정과 성공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 만두 가게를 하는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며, 집안이 망한 상황에서도 피아노를 팔지 않고 '나'가 서울의 반지하 셋방으로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반지하 셋방에서 사는 '나' 또한 곰팡이가 핀 방 안에서 피아노가 상할까 걱정하고, 폭우가 내리던 날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빗물을 피내도 소용이 없는 무거운 현실에서 집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피아노를 친다. 이는 현실의 남루한 삶을 버티려는 행위로, 이를 통해 볼 때 피아노는 '나'와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 주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피아노'가 '나'와 엄마에게 주는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 10 ㉠은 어둡고 열악한 현실('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 속에서 피아노를 치는 인물의 행동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도하다'의 거만함과 피아노의 낮은 음 '도'가 반복되는 상황을 결합하여 현실의 비애 속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인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오답풀이 ① ㉠: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길 원하는 '나'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② ㉡: 반복적 노동에 갇힌 자신의 상황에 대한 '나'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③ ㉢: 집주인의 방문에 놀라 피아노 뚜껑을 덮는 장면으로, 이는 집주인과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식한 행위이다.

④ ㉣: 피아노가 잠겨 가는 것을 보며 '나'가 느끼는 절망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 11 <보기>는 작품이 창작된 200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작품 속 '나'는 반지하 셋방에 살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는데, 이는 등록금 마련이라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현실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가전제품뿐'이라는 표현은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고 했으므로,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② '첫 월급을 탔을 때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다.'는 것은 경제적 불안이 아니라, 함께 돈을 쓸 사람이 없는 고립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없어서 당황한 것이므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단절의 문제이다.

③ 피아노가 빗물에 잠기는 것은 등록금이나 학문적 열정과 무관하다. 피아노는 중산층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물건이며, 이것이 물에 잠기는 장면은 경제적 몰락 속에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절망적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⑤ '나'가 휴대 전화로 피아노 연주를 대신한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피아노를 연주하지 못하게 하는 집주인으로 인해 휴대 전화 음으로라도 연주를 하는 모습이다. 이는 사회 문제를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03 극, 교술 갈래의 이해

작품 1 리바운드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106~117쪽

- 01 ② 02 ① 03 ⑤ 04 (사실상) 중앙고는
4명이 뛰라고 봐야 됩니다. 05 ③ 06 ⑤ 07 ③
08 재윤이 팀의 승리를 위해 3점 슛을 성공해야 한다. 09 ⑤
10 내를 써라 11 ④ 12 ② 13 ④ 14 ③
15 ④ 16 ③ 17 ⑤ 18 가짜 실패 19 ①
20 ⑤ 21 ⑤ 22 ⑤ 23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인물들의 의지와 희망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24 ②

01 이 글은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는 시간 및 공간의 설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장면 전환이 가능하다. 시간 및 공간의 설정에 제약이 큰 것은 희곡의 특징이다.

오답풀이 ①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이 글에서는 'C.U.(클로즈업)', 'low angle(로우 앵글)'과 같은 촬영에 필요한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이 글에서는 지시문과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상황을 제시하고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이 글에서는 '두 명의 수비수가 붙는다', '시합이 풀리지 않는다'와 같이 등장인물의 행동과 상황을 현재 시제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되짚어보기 이 글의 갈래적 특성

- 대사, 해설, 지시문으로 구성됨.
-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함.
- 장면(scene) 번호로 시간과 공간을 표시함.
-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므로 기술적인 특성을 지님.

02 이 글의 '앞부분 줄거리'에서 정진욱이 예선에서 부상을 당하여 부산 중앙고가 5명의 선수만으로 시합을 치르게 되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정진욱의 부상 부위가 어디인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앞부분 줄거리'에서 부산 중앙고 농구부가 과거에는 고교 농구 명문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해체 위기에 있다고 한 것을 통해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다.

③ 중계 1의 "안양고 벤치가 허재윤 선수의 슛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간파했어요"를 통해 허재윤에게 수비수가 붙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④ '앞부분 줄거리'에서 학교는 전통을 고려해 형식적인 수준에서 농구부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통해 학교가 부산 중앙고 농구부를 유지하는 목적을 알 수 있다.

⑤ '앞부분 줄거리'에서 부산 중앙고 농구부는 6명의 선수로 대회에 출전했고, 이 중 정진욱이 예선에서 부상을 당하여 5명의 선수만으로 시합을 치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교체 선수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03 이 글에서 학교가 농구부의 대회 출전을 반대한다거나, 강양현이 비밀리에 대회에 출전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③ '앞부분 줄거리'에서 부산 중앙고의 농구부 출신 졸업생으로 공의 근무 요원인 강양현을 코치로 발탁하였다고 했다.

②, ④ '앞부분 줄거리'에서 대회 첫 경기에서 몰수 패에 6개월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선수들이 농구부를 떠났지만, 이후 자기 잘못을 깨달은 강양현이 선수들을 다시 규합했다고 하였다.

04 서술형 < 안양고는 부산 중앙고의 재윤이 슛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윤에게만 수비를 붙이지 않는데, 이를 두고 중계 1은 안양고의 전략을 파악하고 사실상 부산 중앙고는 4명이 뛰라고 봐야 한다고 중계하고 있다.

05 재윤은 지난 8년간 출전과 득점 기록이 전무한 선수로, 팀 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나)에서는 재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강 코치의 모습이 나타날 뿐, 재윤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강 코치가 '기적을 만들라는 재윤이도 제 몫을 해 줘야 한다'며 3점 슛을 성공시키라고 말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②, ④ (나)에서 강 코치는 '매일 밤, 누가 혼자 슛 연습을 하는지' 알고 있다며 재윤의 노력을 인정하고, '누구한테나 처음이라는 게 있다'며 재윤을 격려한다. 이후 재윤이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드러난 후 (다)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므로, (나)는 재윤이 용기를 얻고 3점 슛을 하게 된 배경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이번 대회가 니 통산 득점 시작일이다."라고 확신에 찬 말로 격려하는 강 코치의 모습과,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는 재윤의 반응은 재윤의 첫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06 강 코치가 '분명히 저쪽에선 재윤이를 아예 버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윤의 객관적 기록 때문이다. (나)에서 강 코치는 "이번 대회 전까지 8년간 출전 기록 뺄, 득점 기록 뺄"이라고 말하며, 상대 팀이 재윤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그를 경계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강 코치는 "매일 밤, 누가 혼자 슛 연습을 하는지" 안다며 재윤의 충분한 연습량을 인정하고 있다.

② 강 코치는 "누가 농구를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 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안다고 말하며 재윤의 진심을 인정하고 있다.

③ 강 코치는 재윤의 농구 실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록상 성과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④ 강 코치는 상대 팀이 재윤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재윤이한테 두 번 기회가 온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07 ㉠에서는 재윤의 손끝을 떠난 공이 느린 속도로 공중을 가르고, 그 공을 따라가는 선수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공의 궤적에 집중되는 순간을 표현하여 재윤의 생애 첫 득점 장면을 극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느린 화면으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압축적 제시나 속도감 있는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④ 재윤의 심리보다는 공의 움직임과 주변 인물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그려 내고 있다.

⑤ 느린 속도의 장면 연출로 현재 진행 중인 슛의 결과를 기대하게 하여 공이 들어가기까지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클로즈업(C.U.)의 효과

S# 90	강 코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재운을 클로즈업하여 용기를 얻은 재운의 심리를 드러냄.
S# 91	공의 궤적을 따라가는 느린 동작의 영상과 함께 선수들의 얼굴을 크게 보여 주어 재운의 생애 첫 득점을 극적으로 그려 냄.

- 08 서술형 《“제 몫을 해 줘야 한다.”는 재운이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강 코치가 재운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3점 찬스 두 번’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재운의 3점 슛이 성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9 ㉠(4강전)에서는 ‘부산 중앙고 74 : 40 안양고’라는 스코어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지만, ㉡(결승전)에서는 ‘치고받는 중앙고와 용산고의 접전이 느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팽팽한 경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라)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허재운이 터지기 시작하니깐 안양고 흔들리고 있어요.”라는 중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마)에서 ‘용산고의 반칙으로 자유투를 얻어 내는 기범’이라는 지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규혁이 “내 발목, 벌써 났었다.”라고 말하며 발목 부상을 언급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써 보자.”라고 말하며 경기를 계속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4강전과 결승전에서 부산 중앙고는 교체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 10 서술형 《(마)에서 규혁은 기범에게 “니하고 내, 수비 한 명씩만 붙었다. 내가 좌우로 휘저어 버리다가 중앙으로 전력 질주할 거다.”라며 자신이 수비를 끌어내 기범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후, “내를 써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11 역전승이라면 한때 뒤처졌다가 뒤집은 것인데, ㉠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부산 중앙고 멈추지 않는 돌풍’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산 중앙고가 연승을 거두며 올라왔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우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다’라는 표현을 통해 안양고가 우승 후보였으며, 부산 중앙고가 큰 점수 차로 이겼음을 알 수 있다.

⑤ ‘기적의 결승행’, ‘기적의 부산 중앙고’라는 표현을 통해 부산 중앙고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승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기자가 ‘기적의 결승행’이라고 기사를 작성한 이유

부산 중앙고의 상황	• 교체 선수 없이 5명만으로 경기를 진행함. •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음.
------------	---

↓
큰 점수 차로 우승 후보 팀(안양고)을 이김.

- 12 “용산고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고교 농구의 최강자 아닙니까?”는 수사 의문문으로,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확신을 강조하고 동의를 유도하는 표현이다. 중계진은 용산고가 최강자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 형식을 빌린 것이다.

- 13 (바) 마지막 부분의 전광판 스코어 ‘부산 중앙고 33 : 49 용산고’를 보면, 부산 중앙고는 여전히 16점 차로 뒤처져 있으므로 규혁의 앨리웁 슛이 부산 중앙고가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슛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지금 용산의 철벽 수비에 부산 중앙은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라는 중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전광판에 표시된 ‘부산 중앙고 33 : 49 용산고’라는 스코어를 통해 부산 중앙고가 용산고에 16점 차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쳤음을 알 수 있다.

③ 규혁이 착지하며 통증을 느끼고 인상을 찌푸리는 상황에서도 꺾고 다시 달려 나가는 것을 통해 발목 부상의 심화라는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지금까지 외곽 슛에 집중하던 배규혁이 저런 스피드로 휘저어 준다면”이라고 한 중계 내용을 통해 기범과 규혁의 플레이가 기존 공격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플레이임을 알 수 있다.

- 14 부산 중앙고와 용산고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시문에 ‘지금까지 본 중 가장 폭발적 스피드, 당황하는 용산고 수비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용산고 선수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여유롭게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연기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규혁의 앨리웁 슛 상황을 나타내는 지시문에 ‘차마 보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는 규혁 어머니’라고 묘사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는 연기 지시이다.

② 규혁의 앨리웁 슛 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시문에 ‘착지하며 통증이 오는지 인상을 찌푸리는 규혁’이라고 묘사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는 연기 지시이다.

④ 규혁의 덩크 슛 후의 상황을 나타낸 지시문에 ‘일순 정적에 빠지는 체육관 내부. 정적 속에 ~ ‘와!’ 하고 거짓말처럼 일제히 터져 나오는 함성’이라고 묘사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는 연기 지시이다.

⑤ 기범의 패스 상황을 나타내는 지시문에 ‘기범, 여전히 갈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는 연기 지시이다.

- 15 ㉠(덩크 슛)은 규혁의 투지를 보여 주며 경기의 극적 순간을 연출하지만, 부산 중앙고의 우승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덩크 슛 직후 전광판에 나타난 ‘부산 중앙고 33 : 49 용산고’라는 스코어를 보면 여전히 16점 차로 뒤처져 있어, 우승 예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덩크 슛’ 장면의 기능

덩크 슛	농구를 대표하는 슈팅 기술로, 공을 들고 뛰어서 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꽂는 형태의 슛
------	---

↓

- 발목 부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용산고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규혁의 모습을 보여 줌.
- 긴장감과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의 분위기를 고조함.

- 16 ‘이펙트(E.)’는 화면에 삽입된 음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서는 강 코치와 부상당한 진욱의 모습에 득점 소리와 박수 소리를 삽입하여 심리적 긴장감과 양 팀의 치열한 접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S# 99’에 사용된 주요 시나리오 용어와 그 효과

인서트(Ins.)	• 규혁의 발목 부상을 걱정하는 규혁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줌. • 관중석의 생동감 있는 반응을 드러냄.
로 앵글(low angle)	규혁의 엘리움 슈트를 박진감 있게 보여 줌.
이펙트(E.)	접전이 이어지는 경기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

- 17 (사)에서 강 코치는 ‘리바운드’와 ‘가짜 실패’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며,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재기할 수 있다는 인생의 깨달음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강 코치는 선수들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 놓으며 격려하고 있다.

② 객관적 분석보다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③ 복잡한 전술 설명이 아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④ 전문 용어로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쉬운 비유를 통해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 18 서술형 < 강 코치는 선수 시절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를 ‘가짜 실패’라고 말하며 그 실패 덕분에 현재 결승전에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실패이지만 결과적으로 재도전의 발판이 된 강 코치의 경험을 ‘가짜 실패’라고 표현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가짜 실패’의 의미

- “잘못하면 우짜지? 찔리면 우짜지? 그래서 실패를 했다. 근데 그건…… 진짜 실패가 아니더라.”
- “결국 지금, 전국 대회 결승전, 선수 대기실에 느그랑 같이 있을 수 있던 건 그 가짜 실패 덕분이었다.”



‘가짜 실패’

표면적으로는 실패이나 결과적으로 재도전의 발판이 된 강 코치의 경험

- 19 ㉠은 강 코치가 리바운드와 가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선수들이 패배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다시 의욕을 되찾게 된 심리 변화를 나타낸다.

- 20 ㉡을 통해 강 코치는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리바운드와 가짜 실패와 관련된 핵심 메시지로, 패배나 실패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잡으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격려이다.

- 21 이 글에 등장하는 농구공이나 림과 같은 소재는 각 인물과 관련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인물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강 코치와 선수들이 사용하는 부산 지역 방언을 통해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고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② 이 글은 고교 농구 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시나리오이다.

③ 이 글은 열악한 선수 구성, 중심인물 간의 갈등 등 내적·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이야기 구조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이 글은 클로즈업(C.U.), 로 앵글(low angle) 등 다양한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경기 장면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22 이 글의 핵심 주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이다.

- 23 서술형 < ㉠은 화면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밝히는 조명으로, 16점 차로 뒤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평가 기준	확인 ☒
최선을 다하려는 인물들의 의지, 희망적 분위기와 같은 내용이 드러나도록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24 ㉡는 농구를 통해 배운 정신력과 의지를 인생 전반에 적용하라는 메시지로, 농구 경기를 후순위로 두라는 뜻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 ‘손을 포개는’ 행동은 부산 중양고 농구부가 하나가 되어 함께 도전하겠다는 결속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③ ㉢: 아이들이 외치는 ‘리바운드’라는 구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④ ㉣: 코트 안의 빛과 하이키 조명 기법을 통해 강 코치와 선수들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⑤ ㉤: 교체 선수가 없어 세 명만으로 경기를 치른 후반전에서 전반전보다 점수 차가 더 적었다는 것은 부산 중양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결승전을 치렀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작품 2 뒤지가 진적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124~127쪽

- 01 ③ 02 ④ 03 ㉠ 진귀한 책, ㉡ 귀중한 읽을 거리 04 ⑤ 05 ⑤ 06 ④ 07 ⑤
08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본능이므로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다.

- 01 이 글은 교술 갈래에 속하는 수필로, 작가가 직접 경험한 감옥 생활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다.

배경지식 ✦ 교술 갈래

- 일상생활의 체험이나 관찰에서 얻은 느낌이나 깨달음을 기술하여 작가의 생각을 알리는 문학 갈래임.
- 수필, 전기, 일기, 기행문, 독서 감상문, 회고록 등과 같이 사실적 기록을 기반으로 한 문학 작품을 포함함.

02 (나)에서 음식물 차입을 할 때 신문지로 싸개지를 삼은 것도 대부분 태워 버린다고 하여 음식물 차입은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이 드러나지만, 가족들의 면회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전쟁 중의 일본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으므로’라는 표현을 통해 일제 강점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두 평쯤이나 될까 말까 한 좁은 감방 안에서 7, 8명의 식구가, 때로는 십여 명이 넘는 인구가’ 함께 생활한다고 하였다.

③ ‘우리 동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구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신문지를 ‘읽을거리가 없어지도록 잘게 썰어서’ 주고, ‘뒤를 보기 전에’ 읽는 것도 감시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받고 있다.

03 서술형 《이 글에서 ‘뒤지’는 작가와 감방 동료들에게는 ‘귀중한 읽을거리’였기 때문에 진귀한 책을 뜻하는 ‘진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04 ‘경찰서나 형무소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깥세상의 소식을 아는 것을 지극히 꺼리고 있어서’를 통해 죄수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문지를 잘게 썰어서 내용을 읽을 수 없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죄수들 간의 갈등 예방과는 관련이 없고, 정보 차단이 목적이다.

② 뒤지로 사용하기 적당한 크기라면 굳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잘게 썰 필요가 없다.

③ 과도한 요구를 막기 위해서라면 ‘한 장이나 두 장밖에는 더 주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④ 신문지 절약이 목적이라면 잘게 썰지 않고 그대로 나누어 주면 된다.

05 (다)의 ‘그러하여 경찰서에는~풍부한 듯하여’에 추측형 진술이 드러나지만, 이는 ‘경무회보’가 뒤지로 제공된 이유에 대해 추측한 것이다. (마)에도 ‘이로써 미루어 보면~본능의 소치인 듯하였다.’에 추측형 진술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인간의 의욕에 대한 깨달음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추측형 진술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일제 강점기 때 감옥살이를 하며 뒤지로 쓰던 신문 조각마저도 소중한 읽을거리로 여겼던 사건을 과거형으로 서술하였다.

② 이 글은 작가가 감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읽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의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음을 보여 준다.

③ 뒤지 사용이라는 구체적 상황부터 감옥에서의 일상적 행동까지 세세한 부분을 담담한 어조로 묘사하였다.

④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여, 비참한 현실을 객관적이면서도 유쾌하게 표현하였다.

배경지식 ✦ 수필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

수필은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갈래이다. 수필에서 개성이란 작가의 고유한 색깔을 말하는데, 이러한 작가의 개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작가의 주관이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주제와 분위기를 갖게 되며, 작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작가의 경험 자체가 개성이 되기도 한다. 또한 문장의 길이, 어휘 선택, 문체 등을 통해 작가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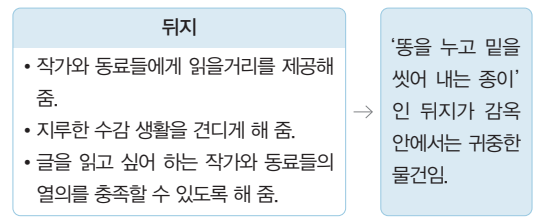
06 이 글의 작가와 동지들이 얻을 수 있는 ‘뒤지’는 보통 ‘경무회보’로, 경찰 행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참고 사항을 재료를 하여 편집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뒤지’를 통해 우리말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③ (라)의 ‘이러한 글발이 있는 종잇조각이라도 얻어 읽는 경우에는, 한결 지루한 시간이 십사리 지나는 것만 같았다.’를 통해 ‘뒤지’가 지루한 수감 생활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는 읽을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신문지 같은 것은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얻어야만 볼 수 있는 노릇’이라고 한 것을 통해, 외부 정보가 차단된 감옥에서 ‘뒤지’가 바깥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의 ‘그러나 이렇게 들어 주는 뒤지만으로는 진정 갈급질이 나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다량으로 뒤지를 입수하기에 청소꾼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를 통해 ‘뒤지’를 읽는 것이 글을 읽고 싶어 하는 작가와 동지들의 열의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뒤집어보기 ‘뒤지’의 역할



07 ㉞는 읽기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경험임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8 서술형 《(마)에서 작가는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 깨끗이 청산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역시 인간인가 싶었다. 이런 것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인 듯하였다.’라고 하며, 읽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외적 압박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의욕’, ‘본능의 소치’ 등 (마)의 핵심 단어를 활용하여 썼다.	☐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외적 압박으로도 꺾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1 ④ 02 ④ 03 ⑤ 04 ① 05 실
 패했을 때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06 ③ 07 ⑤
 08 ④ 09 ③

0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창작된 시나리오이다. 이 글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배경지식+ 내레이션(N 또는 Nar.: narration)

시나리오에서 화면 밖에서 들리는 음성 설명을 뜻한다. 보통 등장인물이 직접 말하지 않고, 해설자 또는 특정 인물의 목소리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이야기의 흐름을 돕거나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02 강 코치는 ‘누가 농구를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 하는지’, ‘매일 밤, 누가 혼자 슛 연습을 하는지’ 안다며 재운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고, “이번 대회가 니 통산 득점 시작일이다.”라고 격려하며 재운의 실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허재운 생애 통산 첫 득점은……. ~ 3점 습니다.”라는 중계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② “이번 대회 전까지 8년간 출전 기록 땡. 득점 기록 땡.”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강 코치가 ‘매일 밤, 누가 혼자 슛 연습을 하는지’ 안다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강 코치가 “선수 생활 실패하고 모교에 코치로 와서 제대로 이기는 방법도 모르면서 그들을 내몰았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03 ㉞은 한 장면이 화면에서 지워지듯이 사라지게 하는 전환 기법으로, 강 코치와 선수들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는 있지만, 회상 장면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㉞은 공의 궤적을 따라가는 느린 동작의 영상과 함께 선수들의 얼굴을 크게 보여 주어 재운의 생애 첫 득점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② ㉞은 중계진을 비추는 화면 사이에 심판이 3점 슛을 표시하는 화면을 끼워 넣음으로써 재운의 3점 슛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

③ ㉞은 패배감이 가득한 실내에서 강 코치 쪽의 조명을 밝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 코치의 말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④ ㉞은 경기장으로 나가는 강 코치와 선수들에게 밝은 조명을 비추며 선수들이 의지를 되찾고 경기장으로 향하는 희망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4 ㉠은 강 코치가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재운도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하며 재운에게 기대와 책임감을 전달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가볍고 편안한 어조보다는 진지하면서도 격려하는 어조로 말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은 강 코치의 말을 듣고 재운이 용기를 얻은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므로 적절한 요청이다.

③ ㉡은 기대하지 않았던 재운의 득점 상황에서 중계자가 하는 말이므로 적절한 요청이다.

④ ㉢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강 코치가 바라보며 말하는 장면이므로 적절한 요청이다.

⑤ ㉣은 강 코치의 말을 들은 아이들의 반응을 드러내는 장면이므로 적절한 요청이다.

05 서술형 이 글은 농구에서 실패한 슛이 다시 기회가 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실패 후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기회’, ‘재도전’, ‘희망’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도록 썼다.	☐
농구 용어에 빗댄 이 작품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6 <보기>의 희곡에서 이 글보다 인물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는 재운, 클로즈업(C.U.).’으로 재운의 표정 변화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지만, 희곡에서는 ‘(용기를 얻은 목소리로)’라는 간단한 지시문으로만 처리하여 표정의 세밀한 묘사가 축소되었다.

오답풀이 ①, ② <보기>도 이 글과 마찬가지로 강 코치와 재운의 대사, 그리고 인물들의 행동 지시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S# 90’, ‘S# 91’ 등과 같이 시·공간의 전환을 장면 번호로 나타내지만 희곡에서는 ‘암전’과 ‘조명’을 이용한 무대 장치로 처리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농구공이 골대에 들어가는 장면을 실제 무대에서 구현하기 어려워 무대 배경의 영상으로 보완하고 있다.

07 수필은 작가의 경험과 성찰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이를 독자와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글이다. 따라서 독자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수필을 쓰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제시된 글에서도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인간의 본능에 대해 성찰하고 있을 뿐, 독자에게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08 (라)의 ‘이렇게 들여 주는 뒤통만으로는 진정 갈급질이 나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는 뒤통이 작가의 지적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지만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뒤통이 작가의 지적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라)에서 작가는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별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 깨끗이 청산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역시 인간인가 싶었다. 이런 것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인 듯하였다.’라고 했다. 이는 작가가 감옥이라는 억압적 상황에서도 글을 읽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의욕은 외부의 제재로 쉽게 꺾을 수 없는 본능적인 것임을 깨달았음을 보여 준다.

04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작품 1 가 산이 날 에워싸고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138~139 쪽

01 ③ 02 ② 03 들쭉레, 쑥대밭 04 ④

01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산'에 의해 '씨나 뿌리며', '밭이나 갈며' 사는 삶을 권유받고 있다. 이는 속세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이 명령하는 대로 '들쭉레처럼', '쑥대밭처럼' 살아가려는 태도는 자연의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과 하나가 되려는(동화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02 이 시에는 상반된 성격을 지닌 소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에는 '들쭉레', '쑥대밭', '그믐달' 등과 같이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가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각 연에 '~고 ~라 한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며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③ '살아라 한다'라는 명령형 표현의 간접 인용 형태가 쓰여 의인화된 '산'이 화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④ 1연에서는 자연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소박하게 사는 삶, 2연에서는 자연에서 일상을 보내는 삶, 3연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달관적인 삶으로 자연에서의 삶이 점점 고양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⑤ 자연물인 '산'을 의인화하고,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03 서술형 이 시에서 소박한 자연을 뜻하는 시어이자,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삶을 상징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는 '들쭉레'와 '쑥대밭'이다. 3연의 '그믐달'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상징하며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자연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은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을 나타내며, 선계의 경지에 다다른 삶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⑤ '사위어지는 목숨'과 연결되어 생명이 언젠가 소멸한다는 유한성을 나타낸다.

②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③ '그믐달'은 달의 변화 과정 중 하나로, 자연의 순환하는 섭리를 내포한다.

배경지식+ 「산이 날 에워싸고」의 창작 배경

「산이 날 에워싸고」는 민족의 역사적 암흑기였던 1940년대에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제시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일제의 식민 지배 탓에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가 흔들리던 시대, 시인은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자연을 상상하며 정신적 피난처를 찾는다. 산이 화자를 감싸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다.

작품 1 나 저 산이 날더러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140~141 쪽

01 ③ 02 올라 한다 03 ②

01 이 시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데서 절망을 느끼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02 서술형 「올라 한다」는 '올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민중의 비애를 구체화한 표현이다. 이 구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통이 화자에게 이어지는 비극을 명령의 형태로 형상화하며, 삶의 대물림되는 고통을 강조한다.

03 ㉠은 화자가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재인식하는 것이므로, 평화로운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1~2행의 '산이 날더러는 /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와 호응을 이루며 시의 주제(비극적 운명)를 강조한다.

③ ㉠에서 산이 하는 명령은 화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냉혹하고 비참한 운명을 강조한다.

④ 화자의 삶이 결국 흙을 파먹다 죽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내용은 현실에 대한 극도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⑤ ㉠은 '흙 파먹다 죽은 아버지'의 삶과 동일한 비극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주제를 부각한다.

작품 2 하지 지나 백로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148~153 쪽

01 ③ 02 호랭이 새끼, 집 나온 강아지 03 ②
04 ③ 05 ④ 06 제대로 된 사위 07 ①
08 ② 09 ⑤ 10 ③

01 막넛사위가 살아온 내력(소학교까지 다니다가~오게 되었다는 데)은 '나'의 서술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될 뿐, 인물들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데릴사위', '천렵' 등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당시 농촌의 생활상과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② 이 글은 서술자를 '나'로 하여 '나' 자신의 경험과 감정('조금 켕기는 것', '속이 더부룩해졌던 것이다')을 드러내며 사건을 이끌어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쓰였다.

④ 이 글은 괄호 안에 서술자 '나'의 화상이나 부가적인 판단이 보충되고 있다.

⑤ '여저저저 장인이~작년 가을을 회상한다', '데릴사위가 들어온 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서술형 장인은 처음에는 막넛사위를 순하고 만만한 '집 나온 강아지'에 비유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막넛사위에게 속아 넘어간 뒤, 장인은 그를 사납고 위험한 존재인 '호랭이 새끼'에 비유한다. 이 두 가지 비유적 표현은 장인의 막넛사위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03 이 글은 「봄·봄」의 뒷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한 것이므로, 원작의 사건이 끝난 이후의 시간대를 다루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원작의 갈등 구조(데릴사위와 장인의 실랑이)와 핵심 소재를 계승하여 막내딸의 짝인 데릴사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다루고 있다.

③ 이 글은 원작의 특징인 구어체 표현과 해학적인 어조를 계승하여 인물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에서 새로운 인물인 막내딸의 등장은 '장인-나'의 갈등에서 '장인-막내딸'의 갈등으로 이야기의 초점을 옮기는 계기로 작용한다.

⑤ 원작에서는 장인이 '나'에게 성례를 미루며 우위에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장인님아, ~눈물을 떨구고 방바닥을 쳐 대면서 하소연을 한 것'처럼 장인의 처지가 바뀌었다.

04 이 글에서 장인이 명시적으로 '나'와 막내딸을 비교한 일을 후회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나'는 장인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켤기고, 막내딸에게 속은 장인을 보며 문맹을 타는 등 우직하고 순진한 내면을 보여 주므로 의문스러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속을 알 수 없는' 것은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점순이가'와 같은 '나'의 서술을 통해 점순이의 특징으로 제시된다.

06 서술형 《'제대로 된 사위'는 순진한 데릴사위들을 속여 부려 먹던 '장인'이, 이번에는 데릴사위인 '막내딸'에게 속게 된 역전된 상황을 드러내는 반어적 표현이다.

07 (바)에서 장인의 하소연을 들은 점순이는 '나'와 장인의 등을 떠밀며 "누가 그걸 보고 읽으래요, 없애면 되지!"라고 말한다. 이는 재산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계약서를 없애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은 '계약서를 없애 버리자'가 적절하다. 점순이는 이어서 "아버지 땅마지기, 엉뚱한 놈 손아귀에 다 들어가는 꼴 보고만 있을 거예요?"라고 한다. 이는 장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증거를 제거하여 장인의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은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적절하다.

08 '나'는 초라해지고 맥이 빠진 장인의 모습을 보며 '또 잔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우울감이나 승리감이 아닌 연민과 동정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① '잔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래도 성례시켜 주고 등도 두들겨 준 우리 장인님인데……'를 통해 장인에게 고마움과 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육 년 동안 그렇게 팔시를 하고, 또 막내 데릴사위 얻었다고 으스스대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를 통해 '나'가 과거의 팔시와 장인이 으스스대던 행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우리 장인님인데'라는 표현은 비록 자신을 팔시했던 과거가 있지만, 이제는 장인에게 가족으로서 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09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인 「봄·봄」에서 '지계막대기'는 장인과 '나'가 다투는 상황에서 장인이 '나'를 후려친 소재이므로 장인과 '나' 사

이의 갈등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협력을 제안하는 '나'에게 장인이 "지계막대기는 사위가 들 텐가?"라고 되묻는 것은, 더 이상 장인이 '나'를 위협하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갈등' 구도가 해소되고, 이제는 막내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와 협력하는 사이가 되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볼 수 있다.

10 (사)에서 '나'는 '이제 하지도 지나 낮에는 뜨거웠으나, 밤공기는 그러므로 아직 시원했다'고 한다. '하지 지나'는 여름의 절정이 지난 후를 의미하며, '나'와 장인의 갈등이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긴장이 더욱 고조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본문 160~163쪽

- 01 ① 02 ⑤ 03 ② 04 '(산이) ~라 한
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인화된 산의 명령을 전달하
는 형태로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05 ⑤ 06 ③
07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쑥굴형에 나자빠진 어미
처럼 올라 한다 08 ① 09 ② 10 ③
11 ③ 12 ④ 13 ④ 14 지계막대기는 원
작 '봄·봄'에서는 장인과 '나'의 갈등 관계를 보여 주는 도구였으
나, 이 글에서는 장인과 '나'의 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변했음을
보여 주는 화해의 도구로 기능한다.

01 (가)와 (나)는 모두 '산'이라는 자연을 소재로 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자연에서 사는 소박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에서는 고달픈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가)에서는 '들짚레처럼', '쑥대밭처럼', '그믐달처럼'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소박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도 '쑥국새마냥', '흙 파먹다 죽은 아비(처럼)', '쑥굴형에 나자빠진 어미처럼'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대물림되는 가난과 고단한 삶을 형상화한 것으로,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가)는 조사 '(이)나'('씨나', '밭이나'), 어미 '-라'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는 조사 '이나'('흙이나', '삼이나'), 어미 '-라'를 반복하고 있다.

② (가)는 '산이 날 에워싸고 /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가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도 유사한 명령형 구절이 나오고 있다. (나)는 '산이 날 더러는 /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가 처음에, '산이 날더러 /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가 끝에 나와 수미상관(유사) 구조를 이룬다.

③ (가)는 '산이 날 에워싸고~살아라 한다', (나)는 '산이 날더러는~죽으라 한다'와 같이 두 시 모두 '산'을 의인화하여 산이 화자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가)는 ‘뜰쫄레’, ‘쭈대발’과 같은 시어로 소박한 삶을, (나)는 ‘흙’, ‘쭈굴형’, ‘쭈कु새’와 같은 시어로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드러내고 있다.

- 03** (가)의 ‘산’은 순수한 자연의 세계 또는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을 의미한다. (가)에서 화자는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 하므로 (가)의 산은 화자와 동화된 존재로 볼 수 있다. (나)의 ‘산’은 화자와 멀리 떨어져서 화자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존재이므로 화자와 거리를 두는 냉소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산은 개척의 대상이라기보다 운명을 강요하는 억압적 존재이다.

③ (가)의 산은 순응의 대상이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의미는 약하다. (나)의 산도 현실의 고통을 강요하는 공간이지 초월적 세계가 아니다.

④ (나)의 산은 고통이 지속되는 세속적 공간이 아니라 운명을 강요하는 억압적 존재이다.

⑤ (나)의 산은 화자에게 고통과 비애를 강요하고 절망을 심화시키는 존재로 현실 극복 의지를 일깨우지 않는다.

- 04** **서술형** 《‘산이 ~라 한다’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처지나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같은 주제 의식을 강조하여 드러낸다.

평가 기준	확인☑
‘산이 ~라 한다’는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내용을 썼다.	☐
운율을 형성한다는 내용을 썼다.	☐
주제 의식을 강조하여 드러낸다는 내용을 썼다.	☐

- 05** ㉠에 나타나는 삶의 유한함에 대한 달관적 순응은 고통을 적극적으로 초월하려는 의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은 비참한 운명에 대한 체념의 정서를 담고 있어, 이 역시 고통을 초월하려는 능동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06**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 (가)에서 화자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씨나 뿌리며’, ‘밭이나 갈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② ‘그름달처럼 사위어지는 묵숨’, ‘그름달처럼 살아가 한다’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다.

④ ‘뜰쫄레처럼’, ‘쭈대발처럼’과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다.

⑤ ‘어느 짙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흙담 안쪽에 호박 심고’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다.

- 07** **서술형** 《(나)에서 처절하고 가난한 삶이 대물림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민중의 처절함과 비애가 울음으로 구체화된 부분은 ‘흙파먹다 죽은 아버지 / 굶주림에 지쳐 / 쭈굴형에 나자빠진 / 어미처럼 올라 한다’이다. 여기에 화자의 아버지는 힘들게 노동을 하다 죽고, 화자의 어머니는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처해 있다는 점이 나타나며, 이들과 ‘올라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난하고 처절한 삶이 대물림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08**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서 ‘쭈굴형’은 세상의 고난과 시련, ‘쭈’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는 힘든 현실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민중의 현실을 나타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 09** (나)는 (가)의 ‘산이 ~라 한다’는 형식(문장 구조)을 차용했으나, 주제 의식은 삶에 대한 순응에서 비애와 절망으로 상반되게 바뀌어 재구성했다. 따라서 모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가)와 달리 고통받는 민중의 비애라는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제를 바꾸어 재구성했다. 이는 작가의 새로운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③ (나)는 (가)의 ‘산이 ~라 한다’라는 형식(문장 구조)은 차용했으나, (가)의 서정적인 어조와 달리 비탄과 절망의 어조를 취한다.

④ (나)는 ‘산’, ‘흙’과 같은 소재를 활용했으나, (가)와 달리 가난과 고통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부각한다.

⑤ 〈보기〉의 정의에 따라, (나)는 (가)의 형식을 가져와 새로운 주제를 담아 낸 재구성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 10** 이 글의 서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 양상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배경지식+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독자는 주인공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접하고 그의 내면과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주인공이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되며, 다른 인물의 속마음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기 어렵다.

- 11** 장인이 ‘나’를 사위로 맞은 것은 점순이의 조언에 따라 ‘나’가 성례를 미뤄 온 장인을 협박함으로써 마지못해 성례를 시켜 준 것이다. 따라서 장인을 ‘이해심이 많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에서는 장인의 과거의 원망스러운 모습과 현재의 초라한 모습이 대비된다. 이를 통해 ‘나’가 장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는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13** 이 작품의 주요 갈등은 장인과 막넛사위 사이의 계약서 문제에서 비롯된다. ‘나’는 장인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막넛사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핵심 갈등을 ‘나’와 막넛사위의 대립으로 설정한다는 구상은 적절하지 않다.

- 14** **서술형** 《원작에 사용된 소재인 ‘지계막대기’는 이 글에서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의 상징’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작품의 주제인 데릴사위와 장인의 새로운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평가 기준	확인☑
지계막대기가 원작에서 갈등을 드러내는 도구의 의미를 지닌다는 내용을 썼다.	☐
지계막대기가 이 글에서 화해의 의미를 지닌다는 내용을 썼다.	☐

05 문학과 매체

작품 1 식빵을 기다리는 동안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166~167쪽

- 01 ③ 02 ④ 03 고단한 삶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자신과 타인을 위로하고자 함.

01 네모는 일반적 형태로 개성과 거리가 멀며, 시에서 화자는 네모난 형태에서 안정감을 꿈꾸면서도 '찢고 싶'다며 일탈을 함께 꿈꾸고 있다.

02 이 영상 시는 행 간격을 조정하여 원작 시의 연 구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행을 동일한 간격으로 제시하여 원작 시의 율격을 재구성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서술형 《화자는 식빵의 갈색 껍질에서 연상한 낙타를 뜨거운 사막에서 짐을 나르며 고단한 삶을 견디는 존재로 본다. 이는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과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하며, 화자는 이들에게 "수고했어."라며 위로를 전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고단한(힘겨운) 삶을 견디는 존재라는 '낙타'의 상징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썼다.	☐
'위로'나 '격려'라는 말을 사용하여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썼다.	☐

작품 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172~176쪽

- 01 ③ 02 ② 03 공습 상황의 위급함을 드러낸다.
04 ③ 05 ① 06 '나'의 가족이 피란 대열에서 뒤처진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07 한강 다리까지 가야 하는 불가능한 목표에서 현저동에 머무는 현실적 대안으로 바뀌면서 심리적 부담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08 ⑤

01 만화는 사건 전개, 감정 변화 등에 따라 그림의 구도를 다르게 배치한다. 따라서 사건 전개에 관계없이 그림 구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배경지식+ 만화의 매체적 특성

만화는 이야기를 여러 장면으로 그린 그림으로, 칸을 기본 단위로 하여 상황을 그림이나 줄글로, 등장인물의 대사나 심리를 말풍선으로 주로 나타낸다. 만화는 이처럼 그림과 글이 결합해 의미를 만드는 매체로, 칸이 연속적으로 배열되면서 독자는 칸과 칸 사이의 공백을 상상으로 메우면서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또한 말풍선, 서체와 같은 시각적 기호가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독특한 장치로 쓰인다는 점도 만화의 주된 특징이다.

02 (가)에서 줄글을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3 서술형 《(가)에서는 낮게 떠서 공습을 알리고 피란을 독려하는 헬리콥터의 모습을 확대하여 역동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 공습 상황의 위급함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공습 상황의 위급함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나)에서는 1:4 후퇴로 인해 피란길에 오른 피란민들의 처지를 줄글로 표현하여 상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ㄱ). 또 피란가는 장면을 별도의 칸으로 구분하지 않고 양쪽에 걸쳐 크게 그림으로써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ㄷ).

오답풀이 ㄴ.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여 피란 상황의 참혹함을 표현하였다.

ㄷ. 대규모의 피란민이 발생한 상황을 원경으로 그려 보여 주고 있으며, 개별 인물의 표정을 세밀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

05 엄마는 처음에는 피란을 가려 했으나, '나'가 체력적 한계에 이르자 피란을 포기하고 현저동에 머물자고 제안한다. 엄마가 처음부터 현저동에 머물 계획을 세웠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엄마는 날이 저물어 오는 상황에서 "피란도 팔자가 있어 야 가지"라며 피란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③ '엄마는 무자비하게 다그쳤고, 나는 쌓이고 쌓인 분노가 당장 폭발할 것 같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죽어도…… 못 가."라는 '나'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저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저기 머물렀다가~우리 동네로 돌아가자꾸나."라는 엄마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6 서술형 《(다)에서 '끼익'은 피란 짐이 가득 담겨 무거운 손수레가 움직이는 소리를, '후아(후)', '하아(하)'는 수레를 끌며 힘에 부쳐 내뿜는 '나'의 숨소리와 입김을 내어 부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피란 대열에서 뒤처진 '나'의 가족의 상황과 피란길의 고됨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의 가족이 피란 대열에서 뒤처진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배경지식+ 의성어와 의태어

의성어(擬聲語)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태어(擬態語)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을 뜻한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장면을 더욱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고, 독자가 장면을 마치 직접 보고 듣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장면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움직임이나 상황을 강조해 주어 감상 경험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07 서술형 《'나'는 한강 다리까지 가야 한다는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 한계를 느낀다. 그러나 엄마가 현저동에 머물자고 제안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생겼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해소되어 오히려 힘이 솟게 되었다.

08 ㉠은 마치 작가가 전지적 시점에서 인물들을 굽어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나'의 가족이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장면과 빈 동네의 풍경을 원경으로 보여 주어 '나'의 가족의 상황을 조망하고, 피란 가려던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보여 준다.

소단원 평가

본문 182~184 쪽

- 01 ④ 02 ① 03 고단한 삶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 04 ① 05 ④ 06 ⑤ 07 ④
08 ⑤ 09 사람들이 떠나 텅 빈 동네의 모습을 보여 주고, 피란 가려던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나타낸다.

01 (라)에서 화자는 '꾸준히 한 장씩 식빵만 먹으면 / 사람이 될 수 있대.'라며 일상에서의 꾸준한 실천을 기대하고, '뜯길 때가 더 마음 편한 거래.'라며 삶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경쟁이나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순응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부풀 수 있대.', '일어설 수도 있대.'에서 성장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일광욕을 하고 싶어.'에서 화자가 여유로운 시간을 상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의 '네모를 유지해 가며', '찢고 싶고'에서 화자가 안정과 일탈을 동시에 꿈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의 '낙타보다 식빵보다 / 내가 먼저 무너져 걱정이긴 하지만'에서 화자가 낙담한 자신의 불안을 고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이 영상 시는 시상의 흐름에 따라 장면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민지). 또한 선명한 색감의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현아).

오답 풀이 시현: 이 영상 시는 시의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여 독자가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진: 이 영상 시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모양의 서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상과 정서를 부드럽게 시각화하고 있으며 하나의 서체만 사용하고 있다.

03 서술형 《㉠(낙타)은 '햇볕에 부푼 낙타 등'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뜨거운 환경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화자는 이러한 낙타에게서 고단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자신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동질감을 느낀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고단한(힘겨운) 삶을 견디는 존재임을 드러내어 썼다.	☐

04 '어떻게 될지 몰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내지만, 바로 이어지는 '부풀 수 있대.', '일어설 수도 있대.'를 통해 성장과 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무력감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속이 팍 찬'은 내면의 충실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위기마다 일어설 수도 있대.'는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회복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일광욕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유롭고 평온한 삶의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꾸준히 한 장씩 식빵만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대.'는 꾸준한 실천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5 〈보기〉를 참고할 때 '식빵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저 식빵이 구워지기를 생각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사소한 순간을 통해 다양한 사유를 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06 (다), (라)의 내용을 통해 '나'의 엄마는 피란을 가는 것이 무리라 판단하고 현저동으로 몸을 숨겼다가 사람들이 돌아올 무렵 피란을 갔다 온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나'는 가까운 피란처로 정한 동네가 다시 현저동이라는 것에 당황한 기색을 비추지만 곧이어 팔다리에 새로운 힘이 솟았다고 하였으므로, '나'가 현저동을 피란처로 정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볼 수 없다.

② (라)에서 '나'는 피란을 포기하고 다시 현저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 허탈함을 느꼈지만, 이내 안도하며 의욕을 느낀다. 이로 보아 '나'가 피란을 포기한 것에 대해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라)에서 엄마의 "저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저기 머물렀다가"라는 말을 통해 볼 때 엄마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저동으로 몸을 숨기자고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마)의 내용으로 보아 '나'의 가족은 층층다리를 통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으며, 그 까닭은 층층다리를 올라갈 수 없는 손수레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07 (가)는 피란민 대열을 행여나 하고 관망했던 사람들마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피란을 가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인물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08 (라)에서 '가까운 피란지로 정한~현저동이라니.....'라는 '나'의 심리가 생각 말풍선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는 상황에 대한 단편적 반응일 뿐이다. '나'의 심리 변화는 이어지는 줄글('마음이 가라앉으면서~힘이 솟았다')에 직접 서술되고 있다.

09 서술형 《(마)는 '나'의 가족이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과 텅 빈 동네의 모습을 원경으로 그려, '나'의 가족이 피란을 가려던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텅 빈 동네의 모습을 언급하여 썼다.	☐
피란을 가려던 사건의 마무리(단락, 종결 등)와 관련하여 썼다.	☐

01 ③ 02 (가)와 <보기>는 동일한 시어 및 시구의 반복, 특정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가)에서는 ‘멀리로’, ‘눈부서’, <보기>에서는 ‘산에’, ‘꽃이 피네’와 같은 시어나 시구가 반복되며, (가)에서는 종결 어미 ‘-니다’, <보기>에서는 종결 어미 ‘-네’가 반복되고 있다. 03 ② 04 ⑤

05 ④ 06 ④ 07 (가)에는 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 서생과 만나는 부분에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는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등장인물의 감동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08 ⑤ 09 ③ 10 ② 11 ② 12 ③ 13 ① 14 ① 15 ④ 16 ⑤ 17 ⑤

18 • 형식적 측면: (나)는 (가)의 ‘~라 한다’라는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하는 형식을 차용하되,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라는 직설적 표현으로 바꾸었다. • 내용적 측면: (가)에서 화자가 소망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것과 달리 (나)에서는 화자가 처한 비참한 삶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19 ② 20 공습 안내 방송을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 안에 표현하여 상황의 위급함과 긴급함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21 ⑤

01 (나)에서는 화자의 어머니가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와 배추를 씻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추운 날에 고생하는 어머니의 처지를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에서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는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등에서 (나)는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등에서, 고백적 어조가 나타난다.

② (가)에서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서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가난하고 외롭고 ~ 만드신 것이다 /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 그러하듯이’에서 문장 구조를 바꾸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④ (가)는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달을 무렵’, ‘저녁이 오는 소리를’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다. (나)는 ‘흰 바람벽’이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어머니’ → ‘사랑하는 사람’ → ‘글자들(자기 성찰)’로 내면 의식이 확장되며 시상이 전개된다.

⑤ (가)는 대상(복숭아나무)과의 관계 형성 과정을 통해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교감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며, (나)는 화자 자신의 내면 탐구를 통해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삶에 대한 위로와 극복 의지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2 서술형 < (가)에서는 ‘멀리로 멀리로’, ‘눈부서 눈부서’와 같이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니다’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산에 / 산에’, ‘꽃이 피네’와 같이 동일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고, ‘-네’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어나 시구가 반복된다는 점을 썼다.	☐
종결 어미가 반복된다는 점을 썼다.	☐
(가)와 <보기>의 표현을 근거로 들어 썼다.	☐

배경지식 ✦ 운율 형성 방식

일정한 음보의 반복	시를 끊어 읽는 단위인 ‘음보’의 수를 일정하게 반복함.
일정한 음운의 반복	특정한 음운을 반복함.
동일한 구절의 반복	동일한 시행이나 연을 반복함.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구절이나 행을 이루는 특정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

03 (나)에서 ‘흰 바람벽’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나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처럼 기능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즉 ‘흰 바람벽’은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고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되짚어보기 「흰 바람벽이 있어」의 화자의 내면 변화

흰 바람벽에 비치는 대상	화자의 내면
쓸쓸한 것들 • 전등의 지치운 불빛 • 무명 샤쯔의 어두운 그림자	외로움, 쓸쓸함
그리운 대상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그리움
첫 번째 글자들 나는 세상에서~가득 찬다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수용
두 번째 글자들 하늘이 이 세상을~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기 위로와 극복 의지

04 시에서 어머니는 무를 씻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일제의 탄압이나 강제적 이산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시와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나타나는 정서는 그리움과 애뜻함이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친일 문인들과 달리 일제에 협력하지 않은 작가의 행보는, 시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았던 예술가들(프랑스 잠,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 릴케)을 지향점으로 삼은 것과 맥락이 통한다.

② 일본어로 시를 쓰지 않고 만주에서 힘든 생활을 감수한 것은,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히 살도록 만들었다는 시의 내용과 연결된다.

③ 힘든 생활 속에서도 시를 쓴 것은,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에 나타나는 예술가적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어렵게 생계를 이어 갈 때’라는 상황이, ‘희미한 심오 축 전통’이나 ‘때론 다 닳은 무명 샤쯔’라는 시적 표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05 (나)에서 '나'는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 방울처럼 떠올랐다' 등 은유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가)와 (나)는 모두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 '소설'로,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거나 꾸며 낸 사건과 인물을 다루고, 일련의 사건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문학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③ (가)에서는 환신한 최 여인의 대사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가)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서사 갈래의 특징

- 일련의 사건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문학으로, 소설이 대표적임.
- 작가가 설정한 서술자를 통해 실제로 있을 법한 현실의 문제를 그려 냄.
- 소설 속 시공간에서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은 짜임새를 갖추어 독자에게 전달됨.

- 06 (나)에서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며, 집안이 망한 상황에서 피아노를 팔지 않고 '나'가 서울의 반지하 셋방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이로 보아 피아노는 엄마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피아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물질적 성공만을 쫓는 현상을 상징하거나 부정적 현실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피아노를 팔지 않으려 하는 것을 허위의식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7 **서술형** 전기(傳奇)란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뜻으로, (가)에는 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 서생과 만나는 부분에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전기적 요소는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며, 전기적 요소가 삶과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등장인물의 감동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남을 썼다.	☐
(가)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가 작품에서 하는 역할을 두 가지 이상 썼다.	☐

- 08 (나)에서 주인공은 반지하 셋방에 빗물이 차오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항거라도 하듯 집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피아노를 친다. 이로 보아 (나)의 제목인 '도도한 생활'은 남루한 현실을 버티게 해 주는 주인공의 마지막 자존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09 ㉔에는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㉔에서 최 여인은 이 서생과 헤어진

자신의 처지를 '작 앓은 세'에 빗대어 한스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㉔은 죽은 최 여인이 등장하는 사건을 전개하기 위한 배경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㉔에서는 대조적 표현('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을 활용하여, 인물이 정조는 지켰으나 목숨을 잃은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㉔에서는 '어깨에 쌀 포대만 한 줄음', '다리 사이에 그 포대를 끼고 한없이 깊은 잠을 잤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언니의 고단한 일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㉔은 피아노가 물에 잠겨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나'가 느끼는 절망감을 청각적·촉각적 심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 10 이 글은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는 신(scene)을 구성단위로 하여 시간과 공간을 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㉑). 또한 지시문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특징이 있다(㉒).

오답풀이 ㉒. 시나리오는 뚜렷한 서술자가 없이 지시문과 대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특징이 있다.

㉒. 시나리오는 희곡과 달리 해설이나 방백을 사용하지 않는다.

㉒.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대본으로,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등장인물의 수와 시공간적 배경에는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등장인물의 수와 시공간적 배경에 큰 제약이 따르는 갈래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다.

- 11 강 코치는 구체적인 전략이 아니라 '리바운드'에 빗대어 실패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며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결국 지금, 전국 대회 결승전"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S# 100의 '패배감과 좌절감이 가득한 실내'라는 지시문과 S# 102의 '모두들, 지쳤지만 결의에 차 있다.'라는 지시문을 통해 선수들의 심리가 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강 코치가 "그 가짜 실패 덕분에" 결승전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두 명의 선수가 퇴장당하고 세 선수만으로 진행한 후반전에 전반전보다 점수 차가 적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12 '리바운드'를 통해 실패해도 다시 잡아 내라는 메시지와 "농구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강 코치의 말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삶의 태도가 핵심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 농구에서 '리바운드'의 기능

농구에서 리바운드는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수비 리바운드는 상대 팀의 슛 실패 후 공을 확보함으로써 공격권을 되찾고, 빠른 역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는 우리 팀의 슛이 실패했을 때 다시 득점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며, 경기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 13 ㉔(로키)은 화면 속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크게 하는 조명 기법이다. 사건의 진행과 문맥을 고려할 때 ㉔을 통해

선수들 쪽은 어둡게 하여 선수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을 드러내고, 대조적으로 강 코치 쪽은 밝게 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가)의 화자는 ‘그름달처럼 살아가 한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숙명으로 인식하고 섭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등에서 가혹하고 비참한 삶의 강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절망을 드러내고 있다.

○답풀이 ② (가)의 화자는 씨 뿌리고 밭을 가는 등 농촌의 일상적인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만, 농사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의 화자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의 화자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한탄하고 그에 대한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의 화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15 (가)는 ‘처럼’, ‘-라’와 같이 특정 조사나 어미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 역시 ‘이나’, ‘-라’와 같이 특정 조사나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ㄱ). 또한 (가)와 (나) 모두 의인화된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ㄴ), (가)에는 ‘산이 날 에워싸고 ~ 살아가 한다’가, (나)에는 ‘산이 날더러는 ~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파먹다 죽으라 한다)’가 도입부와 종결부에 제시되어 유사한 구절로 대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ㄷ).

○답풀이 ㄴ. (가)와 (나) 모두 자연물과 관련된 소재가 등장하나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가)에만 해당한다.

❖읽어보기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 「산이 날 에워싸고」	(나) 「저 산이 날더러」
공통점	• 산이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 • 특정 조사나 어미가 반복됨. • 시의 도입부와 종결부가 유사한 구절로 대응됨.	
차이점	화자가 소망하는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그림.	화자가 처한 비참하고 서글픈 삶의 현실을 강조함.

- 16 (가)에서 산은 순수한 자연의 세계,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을 상징한다. (가)의 화자는 산을 동경하며 산(자연)에 동화되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 반면 (나)에서 산은 화자와 멀리 떨어져서, 냉소적 태도로 화자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존재이다.

○답풀이 ①, ③ (나)의 산은 도피처나 속세를 벗어난 초월적 세계가 아니며,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이다.

② (가)의 산도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노동의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의 산을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가)의 산이 화자에게 우호적인 존재이고, (나)의 산이 화자에게 냉소적인 존재이다.

- 17 ㉔(쑥국새)은 가난하고 고달픈 삶에 지친 화자의 비애를 심화하는 존재이다. 고통스러운 삶이 대물림되는 것의 의미가 드러나는 부분은 ‘흙 파먹다 죽은 아버 굶주림에 지쳐 ~ 올라 한다’이다.

- 18 서술형 (나)는 (가)의 ‘~라 한다’라는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하는 형식을 차용하되, ‘그름달처럼 살아가’라는 비유적 표현을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는 직설적 표현으로 바꾸어 자연 친화적 삶의 소망을 비참한 현실의 강요로 재구성했다.

평가 기준	확인
(나)가 (가)의 형식을 차용하였음을 썼다.	☐
㉔와 ㉕의 상반된 의미를 파악하여 썼다.	☐

- 19 만화는 이야기를 여러 장면으로 그린 그림으로, 칸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답풀이 ① ‘이른바 1:4 후퇴였다.’에서 서체를 달리하여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③ 헬리콥터 장면을 크게 배치하여 비중을 높이고 있다.

④ 다가오는 헬리콥터에 놀라는 피란민, 엄마와 ‘나’의 표정과 동작을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조를 활용하여 6·25 전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20 서술형 ㉔은 공습 안내 방송 내용을 담은 말풍선이다. ㉔은 날카롭고 빠주빠주 튀어나온 형태인데, 이러한 말풍선 모양을 사용한 것은 긴급하게 전달되는 공습 안내 방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함이다. 즉, 이러한 모양의 말풍선을 활용하여 상황의 위급함과 긴급함을 부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㉔의 말풍선이 공습 내용을 담고 있음을 썼다.	☐
상황의 위급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까닭을 썼다.	☐

- 21 만화는 칸, 그림, 말풍선이라는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내용을 시각화한다. 따라서 글로 쓰인 소설을 만화로 감상하면 시각화한 내용을 눈으로 보며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답풀이 ① 만화는 그림으로 구체화하므로 상상의 여지가 좁아진다.

② 소설을 만화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생략되기 때문에 소설의 생략된 내용까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소설은 내면 묘사가 풍부하지만, 만화는 표정과 행동 중심이라 인물의 심리를 상세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④ 만화도 작가의 해석과 연출이 개입되며, 소설보다 더 객관적으로 인물의 상황을 그린다고 보기 어렵다.

배경지식 ✦ 만화 매체로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

- 원작의 서사와 주제의 재해석 양상 파악하기
- 생략되거나 추가된 장면과 그 의도 분석하기
- 시각적 연출이 원작의 분위기를 살렸는지 살펴보기

- 01 ⑤ 02 ② 03 ③ 04 시적 대상과의 거리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05 ⑤
 06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사람 07 ②
 08 정서적 측면에서는 인물의 슬픔을 운율이 느껴지는 형식으로 절절하게 표현하여 비극적 정서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서사적 측면에서는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 /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기능을 한다.
 09 ② 10 ③ 11 ③ 12 ② 13 ④
 14 ⑤ 15 표면적으로는 실패이나 결과적으로 다시 도전하게 한 강 코치의 경험을 의미한다. 16 ③ 17 ②
 18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장인과 '나'가 화해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 하였다. 19 ⑤ 20 인쇄 매체에 비해 작품을 쉽고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지만 주제적으로 감상하는 데는 방해받을 수 있다. 21 ③

01 (가)와 (나)는 모두 서정 갈래에 속하는 현대 시이다. 서정 갈래는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압축적인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되짚어보기 서정 갈래의 특성

개념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압축적인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으로, 시가 대표적임.
특성	• 시어의 선택과 배열로 운율을 느끼게 함. • 심상과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와 깨달음을 드러냄.

02 (가)에서는 '눈부서', '멀리로', '- 버니다'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이 흰 바람벽', '그러하듯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내 사랑하는'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답풀이 ① (가)와 (나)에 모두 화자인 '나'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③ (가)에는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와 같은 의문문이 있으나 (나)에는 의문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주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나, (가)는 과거형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회상하듯 서술하고 있다.
 ⑤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은 (가)가 아닌 (나)에 대한 설명이다.

03 (가)는 꽃이 피는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봄-여름-가을-겨울'과 같은 계절의 순환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답풀이 ①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복숭아나무의 꽃잎이 흩날릴 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복숭아나무, 꽃 등의 자연물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인 어조로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2연의 마지막 행에서 어순을 바꾸어 목적어를 서술어 뒤에 배치하며 시를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04 서술형 < (가)에서 화자는 처음에는 물리적·심리적으로 시적 대상인 복숭아나무와 거리가 멀었지만, 이후 심리적으로는 가까워지며, 마지막에는 물리적·심리적으로 모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다. <보기>는 이와 같은 시적 대상과의 거리 변화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시적 대상과의 거리 변화를 언급하여 썼다.	☐
화자의 인식 변화를 언급하여 썼다.	☐

05 ⑥에 등장하는 시인인 '프랑시스 잠',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고독한 삶 속에서 고결하게 시를 써 온 시인들로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06 서술형 < (나)에서 화자는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흰 바람벽에 비치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은 화자가 그리움과 사랑의 정서를 담아 떠올리는 존재로,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심화한다.

평가 기준	확인☑
'어머니'라는 시어가 들어가도록 답을 썼다.	☐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구가 들어가도록 답을 썼다.	☐

07 (가)에는 서술자의 서술('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과 인물의 대화가 함께 나타난다. (나)에는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신문지나 ~', '만일 우리 동지들의 ~', '이로써 미루어 보면 ~' 등 서술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답풀이 ① (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는 작가 자신이 서술자가 되어 경험과 생각을 전달한다.
 ③ (가)는 소설, (나)는 수필로 두 작품 모두 산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적 성격을 지닌다.
 ④ (가)는 허구적 상상을 바탕으로 하고, (나)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⑤ (가)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 사건 전개를 통해 작가가 작품을 쓴 의도(지극한 사랑, 전란의 비극)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소설이며, (나)는 '이로써 미루어 보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에 나타나듯 작가의 생각과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수필이다.

08 서술형 < (가)에 삽입된 노래는 이 서생과 이별을 앞두고 최 여인이 부르는 노래이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최 여인이 전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비극과 이제 곧 이 서생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운율이 느껴지는 시가 형식으로 절절하게 표현한다. '도적 떼 밀려와서', '피투성이 그 유혼', '깨진 겨울 갈라지니' 등의 구절을 통해 최 여인의 한과 비통함이 드러나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게 만들어 작품의 비극적 정서를 고조시킨다.

다. 서사적 측면에서는 과거 전란 속 죽음부터 현재의 이별까지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두 사람이 곧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로부터 작별하면',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를 통해 암시한다. 또한 산문 서사 속에 운문을 삽입함으로써 서사 전개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극적 긴장감을 높인다.

평가 기준	확인 ☒
정서적 기능에서 '슬픔'과 '운율' 등의 의미를 담아 적절하게 썼다.	☐
서사적 기능에서 '압축', '암시', '단조로움 해소' 등의 의미를 담아 적절하게 썼다.	☐

- 09 (나)에서 청소꾼을 이용하여 '뒤지'를 다량으로 입수하는 것은 읽을 거리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글을 읽는 것에 대한 작가와 동료들의 갈망이 그만큼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외 부인과 연대하여 감옥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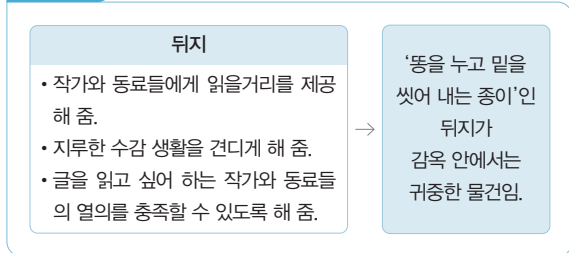
오답풀이 ① 작가는 감옥에서 글을 읽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경험을 통해, 글을 읽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의욕은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임을 깨닫는다.

③ 뒤지를 얻기 위해 애써야 했던 고달픈 옥중 경험을 '뒤 자주 보기', '헛뒤 보기' 등과 같은 해학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것에서 작가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④ 뒤를 자주 보거나 헛뒤를 보는 등 갖은 노력을 통해 뒤지를 구해 읽는 모습에서 글 읽기에 대한 갈망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뒤지조차 읽을 수 없도록 잘게 썰어 넣어 주었다는 내용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감옥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뒤지'의 역할



- 10 ㉔은 흥건적이 침입했을 때 가족을 돌보지 못한 이 서생의 자책감을 나타낸 표현이지, 부인에 대한 이 서생의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㉔: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에 더 머물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사랑이 지속될 수 없는 이유이다.

② ㉔: 자신과 함께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 준 부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④ ㉔: 감방 안에서 공급받은 뒤지가 도서관의 책처럼 귀중한 읽을거리라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감방 안에 뒤지 외에는 다른 읽을거리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㉔: 뒤지를 읽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한 것으로 보아 감옥 안에서 뒤지를 읽는 일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 11 (가)는 소설로,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통해 실제로 있을 법한 현실의 문제를 그려 낸다. (나)는 시나리오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갈등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의식을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가)와 (나) 모두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오답풀이 (가)에서는 인물의 내적 심리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보기>의 '이안'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는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 주기 때문에 <보기>의 '민주'의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되짚어보기 서사 갈래와 극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개념	사건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문학으로, 소설이 대표적임.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문학으로, 희곡과 시나리오가 대표적임.
특성	• 작가가 설정한 서술자를 통해 실제로 있을 법한 현실의 문제를 그려 냄. • 소설 속 시공간에서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이 짜임새를 갖추어 독자에게 전달됨.	• 희곡과 시나리오 모두 대사와 해설,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문자로 인간의 감정과 의식을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문학성을 지님. •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쓴다는 점에서 연극성을 지니며,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특성을 지님.

- 12 '우리의 여름'은 '언니의 영어 교재', '컴퓨터와 활자 디귤', '아버지의 전화'와 함께 나열되며 침수로 사라져 가는 것이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낸 현재의 시간이나 상실되어 가는 청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행복한 과거'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반지하'는 공간적 배경으로 화자가 처한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여 준다.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곰팡이가 피는 이 공간은 주거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를 환기하며, 작품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한다.

③ 언니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정산 실수로 밤을 새우는 모습은 청년 세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④ 침수라는 위급한 상황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다'며 담담하게 반응하는 언니의 모습은 열악한 현실에 무너지고 체념하게 된 청년 세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피아노'는 '나'의 자존감을 상징하는 소재로 침수 상황에서도 이를 연주하는 행위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3 '나'가 집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다. 본문에서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서술된 것처럼, 이는 격렬한 분노나 저항이라기보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조용한 의지의 표현이다. 빗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은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공간적 배경과 소재의 의미

반자하 셋방	• 곰팡이가 잘 피고 장마에 빗물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상징함. • ‘나’가 겪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냄.
피아노	• 중산층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집안의 안정과 성공을 의미함. • ‘나’의 자존감과 ‘엄마’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임.

14 ‘로키(low-key)’는 화면 속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크게 하는 조명 기법이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앉아 있는 곳은 어둡게 하여 선수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을 드러내고, 강 코치 쪽은 밝게 만들어 긍정적인 분위기의 강 코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5 **서술형** 《‘가짜 실패’는 강 코치가 선수 생활 실패 후 코치로 와서 겪은 시행착오를 의미한다. 강 코치는 “그건…… 진짜 실패가 아니더라.”라고 말하며 그 실패 덕분에 결승전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즉 ‘가짜 실패’는 겉으로는 실패로 보였지만 리바운드를 잡듯 재도전의 기회가 된 경험으로, 강 코치는 이를 통해 선수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표면적으로는 실패이나 결과적으로 재도전의 기회가 된 경험이라는 의미를 담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6 (나)는 장인의 사위이자 점순이의 남편인 ‘나’를 서술자로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17 이 글에서 장인은 계약서(지장을 찍은 종이)의 내용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이로 보아 장인을 사리 분별이 밝은 인물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하지도 지나’, ‘여름밤이 깊어 가고’ 등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③ ‘나’가 장인에게 팔지 않던 과거를 생각하면서도 ‘또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는 감정 변화가 드러난다.

④ “지게막대기는 사위가 들 텐가?”라는 장인의 질문과 함께 ‘여름밤이 깊어 가고 있었다.’로 끝나는 것을 통해 열린 결말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음이 나타난다.

⑤ 점순이가 “없으면 되지!”라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18 **서술형** 《보기》로 보아 원작에서는 ‘나’와 장인이 갈등하고 다툼이 잦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나’와 장인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며 두 사람이 화해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로 보아 작가는 두 사람의 화해와 연대를 보여 주고자 새롭게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도 연결된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와 장인의 관계를 바탕으로 썼다.	☐
‘화합’, ‘협력’, ‘연대’ 등과 같은 주제의 핵심 내용을 담아 썼다.	☐

19 이 영상 시에는 동글동글한 모양의 서체가 일정하게 쓰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서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상과 정서를 부드럽게 시각화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식빵을 기다리는 동안」에 드러나는 창의적 표현

그림	• 시상의 흐름에 따라 장면을 나누어 제시함. • 작품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그림을 제시하여 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움. • 선명한 색감의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드러냄.
문자	• 동글동글한 모양의 서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드럽게 시각화함. • 행 간격을 조정하여 원작 시의 연 구분을 드러냄.
음향	잔잔한 배경 음악과 함께 차분한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여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드러냄.

20 **서술형** 이 작품은 인쇄 매체에 활자로 수록된 시를 영상 매체로 옮겨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영상 시로 구현한 것이다. 이처럼 인쇄 매체가 아닌 영상 매체로 감상할 때는 쉽고 생생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만, 음악과 그림이 제공하는 정보 때문에 주제적 감상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21 ㉠은 권태감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꾸준한 실천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은 식빵이 부푸는 모습에서 떠올린 생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② ㉡은 식빵이 소비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하며, 안정감 속에서 일탈을 꿈꾸는 복합적 감정을 표출한다.

④ ㉢은 식빵이 뜯기는 모습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의 가치를 떠올린 부분이다.

⑤ ㉣은 부푼 식빵의 모습에서 낙타 등을 연상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배경지식+ 영상 시의 특징

영상 시는 다양한 시청각 요소를 활용하여 시의 감성을 표현하는 융합 예술이다. 영상 시는 추상적 이미지를 영상으로 구체화하며,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또한 영상 편집과 음향을 활용하여 시의 리듬과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3. 역사와 함께 흐르는, 문학

01 한국 문학의 성격

작품 1 가 공무도하가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208~209쪽

- 01 ① 02 ② 03 남편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노래를 의미한다. 04 ⑤

01 이 시가에서는 화자가 임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고, 임이 끝내 물에 빠져 죽은 후 화자가 한탄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당내공하(當奈公何(가신 임을 어이하랴))'라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임을 잃은 화자의 절망적이고 애절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이 시가는 구전되던 노래가 한자로 기록되어 문헌으로 정착되었다. ④ 이 시가는 총 4구로 이루어졌으며,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⑤ 이 시가에서 '물'은 사랑, 이별, 죽음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자연물로, 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되짚어보기 '공무도하가'의 전체 구성

기(1구)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함.	근심, 불안
승(2구)	임이 물을 건넌.	
전(3구)	임이 물에 빠져 죽음.	슬픔, 체념
결(4구)	임을 잃고 한탄함.	

02 이 시가에서 임이 건너려는 '물'은 임의 죽음, 임과의 이별을 초래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임이 현실에 타협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03 서술형 <'공'은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 '무'는 금지의 의미, '도하'는 물을 건넌다는 뜻이며, '가'는 노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가의 제목인 '공무도하가'는 '남편(임)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노래'임을 의미한다.

04 이 시가의 화자는 1구에서 임이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한다. 그러나 3구에서 임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4구에서 임의 죽음을 한탄하며 현실에 체념하는 정서를 보인다. 이는 화자의 정서가 떠나가는 임에 대한 불안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임에 대한 체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배경지식+ 문학 작품에서 '물'의 의미

문학 작품에서 '물'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삶과 죽음, 정화 혹은 정화를 통한 재생, 생명과 삶의 원천, 충만한 사랑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원형 상징으로 활용된다. 「공무도하가」의 중심 소재 '물' 또한 이별, 죽음, 단절 등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 1 나 제가야산독서당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210~211쪽

- 01 ① 02 ⑤ 03 시비 소리 04 ⑤

01 이 시가는 산과 세상을 대비시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한시이다. 현실의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 산을 물로 감싸는 것으로 표현하여 속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우리 문자가 없던 시기에 한자를 익힌 지식인들의 문학향유 양상을 엿볼 수 있다.

③ 7언 절구의 간결하면서도 압축적인 형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1구와 2구에서 외적 상황을 제시한 후, 3구와 4구에서 화자의 내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통해 정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배경지식+ 7언 절구

한시의 한 종류로, 7글자로 된 4구(행)로 이루어진 짧은 시 형식이다. 시상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전개되며, 각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제를 심화한다. 기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승에서 이를 이어받아 발전하며, 전에서 시상의 방향을 전환하고, 결에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며 시적 정서를 응축한다. 이러한 압축적인 형식과 명확한 구조를 통해 작가의 정서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02 '산'과 '세상'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과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통일 신라의 혼란한 현실과 좌절된 상황에서 은거의 삶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의식이 화자의 정서에도 반영되어 '산'은 긍정적 공간으로, '세상'은 부정적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03 서술형 <'시비 소리'는 작가가 통일 신라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다툼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흐르는 물의 소리로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속세의 소리인 '시비 소리'를 막고자 하였다.

04 ①의 '~게 하였구나'에서 사동 표현이 나타난다. 화자는 자연의 모습을 마치 자신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변용하여 속세와 단절하려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 '흐르는 물'의 기능과 의미

- | | |
|-------|---|
| 흐르는 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소리임. • 지척 간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을 만큼 큰 소리를 냄. • '시비 소리(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속세의 소리)'를 막아 줌. |
|-------|---|

작품 2 가 봉산 탈춤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218~223 쪽

- 01 ⑤ 02 ㉠: 조롱, ㉡: 호통, ㉢: 변명 03 ⑤
04 ③ 05 ③ 06 버드나무 훌뚜기, 바가지장단
07 ① 08 ⑤ 09 ⑤ 10 ⑤ 11 ⑤

01 도령이 형들을 치는 행동은 양반 사회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파괴하며 양반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02 **서술형** 《양반들이 위엄을 보이면 말뚝이가 이를 조롱(㉠)하고, 양반들이 호통(㉡)을 치면 말뚝이가 변명(㉢)하여 양반들을 안심시키는 재담 구조가 반복된다.

03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이르는 말이다. 말뚝이는 ⑤와 같이 ‘개 잘랑’의 ‘랑(양)’과 ‘개다리소반’의 ‘반’을 합쳐서 ‘양반’이 되었다고 조롱하는데, 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04 말뚝이가 ‘쉬이’라고 하면, 춤과 굿거리장단이 멈추면서 재담이 시작된다. 관객의 참여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라는 말뚝이의 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배경지식+ 「봉산 탈춤」 제6 과장에서 춤

제6 과장에서 말뚝이와 양반들의 춤은 재담과 재담 사이에 나타난다. 이 춤은 관객들의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재담에서 발생한 갈등의 일시적 해소를 보여 준다.

05 (다)에서 말뚝이는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라고 하며 악공을 극 중 상황에 개입시킨다(ㄱ). 또한 이 글에는 한자어 중심의 양반 언어와 비속어 중심의 평민 언어가 함께 나타나는 언어의 양면성이 드러난다(ㄴ). 그리고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를 통해 특별한 무대 배경이나 장치 없이 극이 진행되는 특징을 알 수 있다(ㄷ).

오답풀이 ㄴ. 말뚝이의 재담이 끝난 후 양반들이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즉 재담이 마무리된 후에 춤과 음악이 시작된다.

되짚어보기 작품에 드러난 민속극의 특징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고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음.
→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 특별한 무대 배경이나 장치가 없음.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 장면 전환과 무대 속 공간 이동이 자유로움.
→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06 **서술형** 《말뚝이는 악공에게 “버드나무 훌뚜기 뿔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라고 요청한다. 버드나무 훌뚜기와 바가지장단은 격이 낮은 악기와 장단으로, 양반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말뚝이는 이처럼 양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제안함으로써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다.

07 말뚝이는 미리 준비해 둔 새처로 양반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채찍으로 원을 그으며 즉석에서 새처를 만들었다.

08 양반의 거처를 묘사하는 말뚝이의 말에서 다양한 한자어가 사용된다는 양반 언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양반 언어를 활용하여 양반들을 조롱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똥물’과 같은 평민의 언어를 사용하여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참나무 울장을 ~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니다.”라는 말뚝이의 대사를 통해 양반들의 새처를 마구간과 같이 표현하여 간접적으로 그들을 가축으로 비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말뚝이는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애다 축여 났다”라고 말하며 생원의 꾸지람에 재치 있게 대답하고 있다.

③ (라)에서 전형적인 양반의 거처를 묘사하는 말뚝이의 대사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사치스럽고 위선적인 양반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기 전에 전형적인 양반의 거처를 화려하게 묘사하여 양반을 안심시킨다.

09 (마)에서 생원이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 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라고 제안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교양과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반 남야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는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며 양반들의 시조 읊기에는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④ 양반들의 시조 읊기가 끝난 후에 말뚝이의 민요가 제시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말뚝이의 민요는 양반의 시조와 유사한 인생무상의 주제를 민요로 표현한 것으로, 양반의 고상한 풍류가 평민들의 노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풍자하는 효과를 낸다.

11 탈춤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극으로, 춤과 음악, 재담이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된 고유한 특성으로,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보이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점이 바로 <보기>에서 밑줄 친 ‘고유한 특성’에 해당한다.

되짚어보기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 문학의 보편성	삶의 문제를 언어로 형상화함. 예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한 고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 등
한국 문학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이에 따라 형성된 고유한 특성이 나타남. 예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 현실을 반영한 ‘분단 문학’

- 01 ⑤ 02 ① 03 꽃이 거꾸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⑤ 06 ① 07 주르댕에게 팁을 더 받기 위해서 나리, 각하, 전하로 주르댕을 점점 높여 부르고 있다. 08 ③ 09 ② 10 주르댕

01 서술자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소설의 특징이다. 희곡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희곡은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갈래이다.
② 희곡은 기본적으로 막과 장으로 구성되며, 본문에서도 '제2막 제5장'과 같은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희곡은 대사와 해설, 지시문으로 구성되며 지시문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과 동작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④ 희곡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배경지식+ 삼일치 법칙

삼일치 법칙은 고전주의 연극에서 시간, 장소, 행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법칙은 극의 사건을 24시간 이내의 한정된 시간 안에, 단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중심적인 이야기만을 다루도록 규정함으로써 극의 개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02 주르댕은 양재사가 보내 준 양말이 너무 작아 신느라 애를 먹었고, 구두 역시 작아서 발이 아프다고 불평한다. 이로 보아 양재사는 주르댕에게 맞지 않는 양말과 구두를 보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주르댕'을 대하는 '양재사'의 태도

'양재사'

- "너무 느슨해지는겠는데요."
-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르신."
-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주르댕'의 말을 별 것 아닌 것처럼 받아치며 무시함.

03 **서술형** 양재사는 주르댕에게 예복을 보여 주며 '너무 어둡지도 않고 점잖게 만든 훌륭한 예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르댕이 예복에 달린 꽃이 거꾸로 달려 있음을 발견하면서, 양재사의 말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임이 드러난다.

04 제작 과정에서 양재사는 스무 명의 수습공을 동원했고, 솜씨 좋은 양재사들이 여섯 번에 걸쳐 손질을 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제작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 직접 손으로 양말과 구두를 만들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풀이** ① 주르댕은 귀족 계급의 삶을 동경하여 귀족의 음악, 무용, 검술, 철학을 배우며, 궁중 예복을 주문했다.
② 주르댕은 양말이 작아 신기 어렵고 코가 나갔다고 불평하며 화를 낸다.

- ③ 구두가 작아서 발이 아프다는 주르댕의 말에 양재사는 발이 아플 리가 없다며 불만을 수용하지 않는다.
④ 주르댕이 양말과 구두의 문제를 지적하자, 양재사는 궁중 예복을 칭찬하며 화제를 전환하려 한다.

05 (다)에서는 주르댕이 궁중 예복을 입는 장면 뒤에 수습공들이 춤을 추며 극이 진행된다. 이는 막과 막 사이에 삽입되는 막간극으로, 극의 내용과 연관된 춤과 음악을 통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되짚어보기 막간극의 구성

'4명의 수습공들이 기뻐 춤을 춘다. 이 춤이 두 번째 막간극이 된다.'

↓

막과 막 사이에 막간극이 진행되며, 이 작품에서는 극의 내용과 연결된 춤(발레)이 사용됨.

06 양재사는 주르댕에게 예복을 칭찬하면서 '세계 으뜸인 양재사', '이 시대 최고 일인자'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주르댕의 만족감을 높이고, 귀족처럼 보이게 하려는 욕망을 더욱 부추긴다.

07 **서술형** 수습공들은 처음에 '나리'라고 불러 팁을 받은 뒤, 더 많은 팁을 얻기 위해 '각하'라고 높여 부르고, 이어서 '전하'라고까지 높여 부르며 팁을 반복해서 받아 낸다.

평가 기준	확인☑
'팁을 더 받아 내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나리', '각하', '전하'라는 호칭을 모두 밝혀 썼다.	☐

되짚어보기 '수습공'이 '주르댕'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

- "나리……. 저희들에게 얼마간의 팁을 좀 주시지요."
- "각하,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저희 모두 전하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겠습니다."

↓

'수습공'들이 '주르댕'에게 팁을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주르댕'을 '나리', '각하', '전하'로 점점 높여 부름.

08 부인이 세상 사람들이 주르댕을 웃음거리로 본다고 말하지만, 주르댕은 이를 부정하며 자신의 평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주르댕은 "망아지 같으니"라고 하며 니콜의 비웃음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② 부인이 자신과 남편이 배움에 소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남편의 허영을 문제 삼을 뿐이다.
④ 부인은 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주르댕을 비판할 뿐이다. 부인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니콜은 주르댕의 허세를 질책하는 부인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09 부인은 주르댕이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춤과 음악, 화려한 사교 생활을 좇아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든다고 질책한다. 이는 분별력 없이 귀족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며 허영심에 빠져 있는 주르댕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❷ **되짚어보기** '주르댕'에 대한 풍자와 비판

- 소양이나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옷차림만 귀족처럼 하고 있으면 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수습공'이 자신을 높여 부르자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좋아하며 틈을 줌.



주르댕의 신분 상승 욕구와 허위의식을 풍자함.

10 **서술형** 《'서민 귀족'은 부를 축적한 유산 계급(부르주아)이면서도 신분상으로는 평민에 머물러 있는 계층을 나타낸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서민'인 상태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귀족'의 지위를 얻고자 한다. 이 글의 제목은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주인공 주르댕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소단원 평가**

본문 236~239쪽

- 01 ⑤ 02 ① 03 산은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04 ① 05 ⑤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⑤ 11 ⑤
12 신분 상승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부르주아의 허위의식 풍자

01 (나)는 격렬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묘사한 뒤, 그 소리로 속세의 시비 소리가 차단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난다. 이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 거리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번잡함을 차단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02 1구에서 화자는 입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입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간절히 만류하는 모습을 보인다.

03 **서술형** 《(나)에서 화자는 속세를 의미하는 '시비 소리'를 '흐르는 물' 소리로 막고자 한다. (나)의 작가가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나)의 '산'은 화자에게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자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산'이 은거의 공간임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가)는 창작 당시(고조선 시대)에는 우리말로 불렸던 작품이다. 다만 전승 과정에서 한자로 표기된 것이다. 반면 (나)는 창작 시점부터 한문으로 지어진 한시이므로 창작과 전승 과정 모두에서 한자가 사용되었다.

05 이 글에서는 양반들에 대한 말뚝이의 조롱으로 재담 속 갈등이 형성된다. 이후 조롱에 대한 양반들의 호통으로 갈등이 고조되며, 말뚝이의 변명으로 갈등이 하강되고, 안심한 양반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갈등의 일시적 해소가 나타난다.

06 말뚝이는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과 같이 한자어를 나열하지만, 바로 이어서 “개잘랑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라고 비하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조롱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말뚝이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과 같은 과장된 표현과 “개다리소반”과 같은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관객의 웃음을 자아낸다.

②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양철간죽, 자문죽’ 등에 열거법과 비슷한 음운의 반복이 나타나며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내고’에 대구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귀한 존재인 양반을 “개잘랑”, “개다리소반”이라는 비속한 것으로 역전시켜 표현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조롱한다.

⑤ 겉으로는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라며 존대하지만, 실제로는 양반을 우롱하고 비판한다.

07 양반들이 읊은 시조 “반 남야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랴”와 말뚝이가 하는 소리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모두 인생무상과 세월의 덧없음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양반들의 시조가 말뚝이가 부르는 민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드러냄으로써 양반들의 허세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 “개잘랑의 ‘양’, 개다리소반의 ‘반’”과 같이 ‘양반’이라는 말의 발음의 동일성을 이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② ㉡: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노는 도령의 방정맞은 행동은 양반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다.

③ ㉢: 가면극의 주요 관객은 평민 계급이다. 말뚝이는 그런 관객들에게 양반의 담뱃대를 권유함으로써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④ ㉣: ‘버드나무 훌뚜기’나 ‘바가지장단’은 양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악기와 장단이다. 말뚝이는 이러한 음악을 요청함으로써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08 양반들의 글짓기 놀이는 풍자 대상이다. 생원이 지은 글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명을 나열한 것이고, 서방이 지은 글은 운자를 맞추고 있지만 한자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한시로 볼 수 없다. 이는 양반의 학문적 허세를 조롱하는 장치로, 양반의 무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말뚝이가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을 극에 참여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양반들이 굿거리장단에 맞춰 함께 춤추는 장면은 말뚝이와의 대립이 잠시 중단된, 갈등의 일시적 해소로 볼 수 있다.
- ③ 말뚝이가 “쉬이”라고 하면 음악과 춤이 멈추고 재담이 이어진다. 이는 관객에게 본격적인 재담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한다.
- ⑤ 말뚝이는 양반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구사하여 양반의 언어를 모방하면서 양반을 조롱하는 특징을 보인다.

09 서양 희곡인 이 작품은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구조로 관객은 수동적 관람자의 역할을 한다.

○답풀이 ① (나)의 마지막에 수습공들이 춤을 추는 장면은 이 작품의 두 번째 막간극이다. 주르댕에게 팁을 받은 수습공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장면이므로 극 중 내용과 관련된다.

② ‘제2막 제5장’, ‘제3막 제3장’과 같이 막과 장을 기본 단위로 하여 극이 전개된다.

③ 희곡은 서술자의 설명이 아니라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④ 희곡은 막과 장을 단위로 나뉘지만, 이 글의 각 막은 전체 극의 흐름 속에서 사건이 이어지도록 구성된다. 제시된 글에서도 제2막에서 주르댕이 예복을 입고 귀족 흉내를 내는 모습이, 제3막에서 부인과 니콜의 비판으로 이어지며 인물과 사건이 연결된다.

10 수습공은 팁을 얻기 위해 ‘나리’, ‘각하’, ‘전하’로 주르댕의 호칭을 점점 높여 불렀다.

○답풀이 ① 예복에 꽃을 거꾸로 단 사실을 주르댕이 지적했을 때 양재사는 “바로 달라는 말씀이 없으셔서.”라고 말한다. 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르댕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주르댕은 꽃이 거꾸로 달렸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③ 수습공은 ‘나리’, ‘각하’, ‘전하’와 같이 주르댕의 호칭을 높여 부르며 환심을 사고 있으나 ‘폐하’라고 부른 적은 없으며, 주르댕이 “폐하까지 간다면 지갑째 털리겠군.”과 같이 말한 것으로 보아, ‘폐하’라고 부른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주르댕은 자신이 웃음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족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며 만족한다.

11 ㉠은 부인이 주르댕이 벌인 허영스러운 일들 때문에 집안이 매일 사육제처럼 소란스럽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귀족처럼 보이려고 음악 수업을 받는 주르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서술형 이 글은 17세기 프랑스의 신분제 사회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룬 부르주아가 귀족 신분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당시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지만 귀족이 되고 싶은 어리석은 한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부르주아의 허영심(허위의식)이나 신분 상승 욕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썼다.	☐
풍자라는 표현 방식과 관련지어 썼다.	☐

02 상고 시대~고려 시대 문학

작품 1 주몽 신화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242~245쪽

- 01 ③ 02 ① 03 ③ 04 ⑤ 05 ③
06 ③ 07 ⑤

01 (나)에서 금와왕은 유화가 낳은 알을 괴이하게 여겨 버리게 했으나, 짐승들이 보호하고 새들이 알을 품어 준다. 이에 금와왕이 직접 알을 깨뜨리려 했지만 깨지지 않아 결국 유화에게 돌려준다.

02 기아 화소는 영웅이 태어날 때 버려지는 모티프를 의미한다. 금와왕이 유화를 방에 가둔 것은 주몽이 탄생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기아 화소는 유화가 낳은 알을 금와왕이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이 유화의 몸에 비춘 후에 유화가 주몽을 임신한 것으로 보아, 주몽이 천손의 자손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대의 태양 숭배 사상과 천신 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유화에게 벌을 주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배경지식+ 설화의 다양한 화소(모티프)

- 천부(天夫) 지모(地母) 화소: 하늘에 있는 신적인 대상과 지상계 여인이 만나 결합하는 이야기
- 적강(謫降) 화소: 천상계의 존재가 벌을 받아 지상계로 온 이야기
- 신원(伸冤) 화소: 억울함을 해소하는 이야기
- 관탈(官奪) 민녀(民女) 화소: 힘을 가진 권력자가 일반 백성인 부녀자를 괴롭히는 이야기

04 (라)에서 금와왕의 아들들은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시기하여 주몽을 해치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영웅 일대기 구조 중 성장 후에 영웅의 비범한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위험에 처하는 ‘성장 후 위기’ 구조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5 ㉠의 앞에서 주몽이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드러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고기와 자라들이 이에 응하여 다리를 만들어 주었으므로, 물의 신인 하백의 외손자라는 점과 연관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주몽은 위기에 처하여 부여를 떠나는 중이었다. 주몽이 앞으로 어떠한 위기를 마주할지는 맥락상 파악하기 어렵다.

②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위기에 처한 주몽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 비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글에서 주몽이 평소에 태양을 열심히 숭배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물고기와 자라가 도움을 주는 장면은 천신보다는 수신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⑤ 이 글에서 주몽이 수중의 생물들을 잘 돌보아 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물고기와 자라는 수신의 후손인 주몽을 알아보고 도움을 준 것이다.

06 활과 화살을 쏘아 백발백중을 하거나 준마를 알아보고 기르는 지혜로운 능력은 주몽이 가진 비범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신화는 이와 같이 그 인물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며 건국 시조에게 정당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건국 시조의 이야기를 통해 당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성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건국 신화는 새로운 국가 수립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원과 정통성을 신성화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체제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외세 침략에 대한 경계심, 구체적인 규칙이나 제도의 제정은 건국 신화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멀다.

⑤ 이 글은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되, 그 과정을 신성화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다. 따라서 당대인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7 우리 민족 최초의 건국 신화는 보통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로 보고 있다. 이 글은 최초의 건국 신화는 아니지만 단군 신화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건국 신화 중 하나이다. 또한 신화는 서사 문학의 근원일 수는 있으나 소설 자체의 직접적인 출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작품 2 찬기파랑가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250~251 쪽

01 ④ 02 ⑤ 03 ①

01 이 시가는 기파랑에 대한 예찬적, 추모적 태도를 드러내지만, 특정 종교의 가치관과 결합하여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시가는 '5구-3구-2구'의 구조로 '기-서-결'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시가는 향가로,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인 향찰로 창작된 노래이다.

③, ⑤ 화자는 대상의 고매한 인품과 아름다운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화하며 이를 예찬하고 있다.

02 ㉠은 화자가 앞으로 마주할 시련이 아니라, 기파랑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을 상징한다. 화자는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파랑의 고결하고 굳건한 인품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이 겪을 고난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기파랑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서글픈 심정을 드러낸다.

② ㉡은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적 배경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③ ㉢의 '모숨'은 기파랑의 고결한 마음을 의미하며, '무수미 7술 좇 누려져'에는 기파랑의 고결한 마음을 좇아 따르겠다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난다.

④ ㉤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의미한다.

03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식인 향찰이라는 문자로 표기한 시가 갈래이다. 이는 신라인들이 한자를 한자대로 쓰면서도 이를 변용하여 독창적인 문자를 창안하여 우리 문화를 창작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가진 주체적인 문학 창작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작품 3 동동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256~261 쪽

01 ① 02 ⑤ 03 높이 컨 등불 04 ②
05 ③ 06 ② 07 ⑤ 08 벼랑에 버린 빗
09 ① 10 ⑤ 11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의미한다. 12 ③

01 이 시가는 일 년 열두 달을 노래한 월령체 문학으로 공간의 변화가 아닌 일월부터 십이월까지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02 2연에서 '나뒹 물(넋물)'은 때에 맞춰 얼었다 녹으며 변화하는 반면, 화자의 '몸'은 홀로 살아가는 처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임 없이 지내는 화자의 외로움이 강조된다.

03 서술형 《화자는 2월령에서 임의 모습을 '노피 현 등(燈)스불(높이 컨 등불)'에 비유하며 임이 고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임을 나타내고, 그런 임이 만인을 비출 모습을 지녔다고 예찬하고 있다.

04 ㉠은 북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흥내 낸 의성어가 쓰인 후렴구로(ㄷ), 이 시가에서 각 연을 구분하고(ㄴ) 구조적 통일감을 주며 리듬감과 음악적 흥취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ㄴ. 내용상으로 이별의 정한을 달래 주거나 내적 갈등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

ㄹ. 'a-a-b-a'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05 6연(5월령)에서는 단옷날 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약을 바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화자는 임에게 약을 바치는 것이지 직접 약을 먹은 것이 아니며, 임과 오래 살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4연(3월령)에서 화자는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진달래꽃에 비유하며 남들이 부러워 할 모습을 지녔다고 예찬하고 있다.

② 5연(4월령)에서 화자는 때에 맞춰 돌아온 피꼬리 새와 임을 대조하며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며 원망하고 있다.

④ 7연(6월령)에서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끝까지 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8연(7월령)에서 화자는 백중 제물을 차려 놓고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하고 있다.

06 ㉠은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 즉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한다. 4연(3월령)에서 화자는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고 있을 뿐, 자신의 모습이 임과 닮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봄이 되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 ‘곳고리 새’와 달리 봄이 되어도 오지 않는 ㉢ ‘녹사(錄事)님’이 대조되어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강조된다. 이 부분에서 화자와 임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08 **서술형** 《화자는 7연(6월령)에서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두일에 머리를 감고 난 후 버림에 버린 빗(‘별해 부른 빗’)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가련한 신세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09 9연(8월령)에서 화자는 한가위이지만 임이 함께해야 한가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명절날 임과 함께 하지 못해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오답풀이 ② 9월령에서 국화전을 부쳐 먹는 중양절에 임의 부재로 집이 조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쓸쓸함과 적막함이 드러난다.

③ 10월령에서 화자는 자신을 저며 놓은 고로쇠에 비유하며,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④ 11월령에서 11월에 입기에는 얇은 속적삼인 한삼을 덮고 누운 채 추위에 떨며 슬퍼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화자가 임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12월령에서 화자는 자신을 분디나무로 만든 젓가락에 비유하며,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10 13연(12월령)은 화자가 임과 맺어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맺어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화자는 임의 앞에 ‘소반의 저’를 가지런히 놓았으나 다른 ‘손’이 이를 가져다 물었다고 하였으므로, ㉡ ‘손’은 화자가 사랑하는 임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1 **서술형** 《13연(12월령)의 ㉡ ‘반(盤)잇 저’는 소반 위에 있는 젓가락을 가리키며 임과의 인연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손’이 이를 가져다 무는 상황이므로 ‘반(盤)잇 저’는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보기>에서는 고려 속요가 평민들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그 주제가 평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고려 속요에 사회적 평등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② <보기>에서 고려 속요는 평민들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고 했을 뿐, 절제된 문체체를 활용했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④ <보기>에서 고려 속요는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들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는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과 거리가 있다.

⑤ <보기>에서 고려 속요가 평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비속어 등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작품에는 비속어가 쓰이지 않았다.

소단원 평가

본문 268~271 쪽

- 01 ⑤ 02 ③ 03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높이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하였다.
04 ② 05 ③ 06 ‘아아’는 정서를 집약하고 사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끈다. 07 ③ 08 ⑤
09 ⑤ 10 ⑤ 11 봄을 잊지 않고 찾아온 ‘곳고리 새’와 오지 않는 임을 대조하여 화자의 원망과 한탄의 정서를 나타내었다. 12 ④ 13 ⑤

01 이 글에서 주몽은 대소 등 왕의 아들들에 의해 위기에 처하나,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당대 고구려인들이 물고기와 자라를 신성하게 여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글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유화가 햇빛을 받아 주몽을 잉태한 부분에서 당대인들의 태양 숭배 의식과 천신 숭배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주몽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금와가 버린 알을 개와 돼지가 모두 먹지 않고, 말과 소도 피해 가며, 새와 짐승이 덮어 주는 내용에서 주몽의 신성함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주몽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는 하늘과 물, 하늘과 지상의 결합을 의미하며 주몽의 고귀한 혈통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02 이 글은 고귀한 혈통을 지닌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표제에는 ‘천제의 자손, 주몽’을 내세우고, 부제에는 주몽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한 내용으로 표제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서술형** 《건국 신화는 나라의 기원, 시조, 건국 등을 신성화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신성한 인물이 건국하고 통치하는 국가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높이고, 신성한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부심’, ‘일체감’이라는 두 단어를 포함하여 썼다.	☐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고귀한 혈통 → 비정상적 출생 → 어린 시절 고난 → 탁월한 능력 → 성장 후 위기 → 위기 극복과 성장'과 같은 이야기 전개 순서를 지닌다. ㉔는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기이하게 여겨 내다 버리는 내용으로 '어린 시절 고난' 단계에 해당한다. ㉕는 주몽이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내용으로 '탁월한 능력' 단계에 해당한다. ㉖는 대소를 비롯한 왕자들이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시기하여 주몽을 해치려고 하는 내용으로 '성장 후 위기' 단계에 해당한다.

05 (가)는 10구체 향가로, '기-서-결'의 3단으로 구성되며 결구의 첫 부분에 낙구를 둠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시상을 집약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나)는 8구체 향가이며 '기-승-전-결'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6 **서술형** 《'아야'는 10구체 향가에서 결구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감탄사로, 앞서 전개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흠모의 정서를 고조하여 그를 찬양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아야'가 정서를 집약하고 시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함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㉔은 화자가 기파랑의 흔적을 찾는 공간이다. 물이 모래를 걸러 내며 맑음을 유지하듯, 세속에 물들지 않은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드러낸다. 기파랑과 대비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㉕은 '흐느끼며 바라보며'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기파랑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확인할 수 있다.
 ② ㉖의 '돌'은 기파랑의 고결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어로, 기파랑이 빛나는 존재이자 만인이 우러러보는 고귀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④ ㉔에서 화자는 기파랑의 마음을 좇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㉔의 '자식 가지'에 대해 화자는 '눈'이 덮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눈'은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예찬하고 있다.

08 (나)는 신라의 화랑인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추모의 정을 노래한 향가로 화자의 비극적 운명이나, 이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09 이 시가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고려 속요로, 매 연이 한 달을 상징하는 월령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연은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을 담고 있고, 2연 이후는 계절과 시절에 맞는 소재를 통해 입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연마다 내용이 독립적으로 전개되며 명확한 서사적 연결이나 논리적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연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서를 일관되게 표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10연(9월령)의 '구월(九月) 구일(九日)에 / 아으 약(藥)이라 먹은 /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 새서 가만하애라'에서 국화로 음식을 해 먹는 중양절을 맞았으나 입이 없어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9월령에 나타난 세시 명절은 '중양절'이며, 중심 소재는 '황화(黃花)꽃'이다.

오답풀이 ① 3연(2월령)에는 '연등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중심 소재는 '등(燈)불'이다.
 ② 6연(5월령)에는 '수릿날(단오)'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중심 소재는 '아춤 약(藥)'이다.
 ③ 7연(6월령)에는 '유두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중심 소재는 '빛'이다.
 ④ 8연(7월령)에는 '백중날'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중심 소재는 '백중(百種)'이다.

11 **서술형** 5연(4월령)에서 화자는 봄이 되어 찾아온 '꽃고리 새'와 돌아오지 않는 '녹사남'을 대조하며 입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와 외로움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꽃고리 새'와 '녹사남'을 대조하여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강조했음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2 ㉔ '아춤 약(藥)'은 단옷날 먹는 익모초즙으로, 입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오답풀이 ① ㉔ '나릿 물'은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소재로, 외로운 마음을 녹여 줄 사람 없이 홀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② ㉖ '노피 현 등(燈)불'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입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③ ㉔ '돌윗꽃'은 입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시어이다.
 ⑤ ㉔ '별해 부른 빛'은 입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의미하는 시어이다.

13 이 시가에서 자연물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거나 입을 예찬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 자체에 대한 예찬적 태도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고려 속요가 평민층의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시가에서도 입에 대한 그리움을 계절의 변화와 세시 풍속 속에서 솔직하고 꾸밈없이 드러내고 있어, 민중의 소박한 정서가 잘 나타난다.
 ② <보기>에서 고려 속요는 분절마다 후렴구가 붙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이 시가에서도 '아으 동동(動動)다리'라는 후렴구가 반복되어 리듬을 형성하고 음악적 흥취를 돋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고려 속요는 민중의 생활상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시가에서도 2월의 연등회, 5월의 단오 등 월령에 따른 세시 풍속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고려 속요는 구전되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시가 역시 구전되던 민중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한 것으로, 우리말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문자로 보존하여 전해 주고 있다.

03 조선 시대 문학

작품 1 시조 네 편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274~277쪽

- | | | | | |
|------|-----------|------|------|------|
| 01 ② | 02 눈 | 03 ② | 04 ① | 05 ④ |
| 06 ② | 07 삼공, 만승 | 08 ② | 09 ② | |

01 (가)의 초장과 중장에는 대나무의 본질적 속성이 의문형 표현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대나무가 눈에 놀려 곱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래의 곧은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자문자답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장과 중장에 두 개의 의문형 표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은 모두 설의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낼 뿐 자문자답 구조로 볼 수 없다.

③ (가)는 평시조의 3장 6구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각 구의 문장 구조가 서로 다르다.

④ '눈 마주 휘어진 더' 등에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의 절개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⑤ '눈'을 통해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박하고 평화로운 목가적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02 서술형 《(가)》는 고려가 멸망한 후, 고려 유신으로서 절개를 지키려는 작가의 충절 의식을 표현한 작품이다. '눈'은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시어로, 새로운 조선 왕조에 협력을 강요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반면 '더(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시어로, 고려 유신으로서 조선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의미한다.

03 (나)는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비롯된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임을 떠나보낸 데 따른 회한, 부채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자신이 한 일과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임과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재회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04 (나)에서 '여더'는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안타까움 등 복합적인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감탄사이다. 화자는 이 감탄사를 통해 임을 떠나보내고 느끼는 안타까움과 후회의 감정을 집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05 두 작품을 비교했을 때, 시조가 기존의 정형적 틀에서 벗어나 중장 부분의 확장이 나타나는 전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는 평시조로, 정형적 형식을 지키면서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사설시조인 (라)는 중장이 길게 확장되어 보다 자유로운 전개가 가능하다.

06 (다)의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자세를 보여 준다. 따라서 강호가도(江湖歌道), 안빈낙도(安貧)

樂道), 유유자적(悠悠自適), 물아일체(物我一體)와 같은 개념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과 부합한다. 그러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을 의미하므로, 자연 속에서 은일하며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삶과는 상반된다.

오답풀이 ① 강호가도(江湖歌道): 조선 시대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들이 현실을 도피하여 자연을 벗 삼아 지내면서 일컫는 시가 창작의 한 경향.

③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④ 유유자적(悠悠自適):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⑤ 물아일체(物我一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

07 서술형 《'삼공'은 영의정·좌의정·우의정으로, 국가 주요 정책을 맡아보던 세 벼슬을 가리킨다. 그리고 '만승'은 '만 대의 병거'라는 뜻으로, 천자 또는 천자의 지위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세속적 권위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세속적 권력과 영화보다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08 (라)는 절제된 어조가 아니라 과장되고 직설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사설시조의 특징인 해학적이고 구어적인 표현으로 솔직하고 생생하게 감정을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개'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화해', '버둥버둥', '캉캉' 등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④ 미운 임이 왔을 때 꼬리를 치며 반기고, 고운 임이 왔을 때 짚는 개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⑤ '뒹은 님 오며는 ~', '고운 님 오며는 ~'과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9 (라)에서 '요 개'는 화자의 바람과 반대되는 행동(미운 임을 반기고 고운 임을 내쫓음.)을 하며 화자의 원망을 받는 존재이다. 또한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전가된 대상(一)이자, 임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게 나도록 유도하는 매개물(二)로 기능한다.

오답풀이 나. 화자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 개'에 원망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요 개'를 정서적 동질감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르. 화자와 '요 개' 사이의 감정적 대립은 있지만, 이 작품은 해학적이고 경쾌한 어조의 사설시조로서 비극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익살스럽고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배경지식+ 사설시조의 해학성

사설시조는 중장의 확장, 일상적·구어적 표현, 과장·반복을 통해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사대부적 절제와 품격을 보여 주는 평시조와 달리, 현실의 불만과 인간적 감정을 풍자와 웃음으로 풀어내는 대중적 성격을 지닌다.

작품 2 사미인곡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286~291 쪽

-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②
06 청광 07 ① 08 ③ 09 ④

01 화자는 임과 함께했던 행복한 과거와 임과 떨어져 지내는 외롭고 쓸쓸한 현재를 대조하여, 임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02 서사에서 화자는 임과 헤어진 슬픔, 외로운 처지에 대한 서글픔, 세월의 흐름에 대한 무상감,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임이 자신을 잊었다고 단정하며 원망하는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되짚어보기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

화자가 처한 상황	
• 평생 임과 함께 지내고자 하였으나 임과 이별한지 3년이 되었음. • 광한전(천상계)에서 하계(인간 세상)로 내려옴. •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 • 시간이 덧없게 흘러간다고 생각함.	
↓	
정서	임과 떨어져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서글퍼하며 임을 그리워함.

03 ‘광한전’은 임이 있는 하늘의 궁궐로, 화자에게는 임과 함께했던 행복하고 이상적인 공간을 상징한다. 즉 당쟁이 치열했던 조정의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리운 공간이다.

오답풀이 ① 이 시가의 제목 ‘사미인곡’에서 ‘미인’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작가 정철이 그리워하고 충성을 바친 선조를 의미한다.

② ‘이 몸’은 임과 헤어져 슬퍼하는 화자로, 이는 유배 중인 정철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임금에 대한 마음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치환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높이고 있다.

⑤ 이 시가는 겉으로 보기에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연정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이다.

04 이 시가의 본사에서는 ‘동풍’, ‘녹음’ 등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시점 전환이나 객관적 성찰은 나타나지 않고, 화자 한 명의 독백으로 전개된다.

② 본사에서는 현실의 계절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며, 꿈과 현실의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본사 2에서 ‘천리만리(千里萬里) 길을 뉘러서 추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와 같은 의문문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는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⑤ 시간(계절)이 흐르더라도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은 변하지 않는다.

05 본사 2에서는 화자가 임에게 무언가를 보내려 하지만, ‘산’과 ‘구름’이 가로막고 있어 임에게 닿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여기서 ‘산’과 ‘구름’은 단순히 자연물이 아니라, 화자와 임 사이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상징한다. 이는 화자가 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

06 서술형 《본사 3의 ‘청광’은 맑은 달빛으로, 임을 직접 찾아가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대신 전해 주는 매개물로 기능한다. 또한 어둠을 밝히는 청광은 임의 맑고 고결한 덕성을 상징한다. 달빛이 세상을 대낮처럼 밝히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임의 덕이 온 세상에 미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07 결사에서 화자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충절을 드러낸다. 이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인 ‘일편단심(一片丹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우유부단(優柔不斷): 어물어물 망설이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④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08 ㉠에서 화자가 잊으려 하는 ‘시름’은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같은 세속적인 삶의 고충이 아니다. 이는 오직 임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세속적인 삶의 고충을 잊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잠시라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 대목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 화자는 임이 있는 곳이 추울까 염려하며 양춘(봄벌)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는 임의 안위를 걱정하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 준다.

② ㉡: 화자는 원앙 무늬 이불을 통해 임과 함께했던 따뜻한 과거를 떠올리지만, 임이 없는 현재는 그 이불이 차갑다고 말한다. 이는 임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외로운 현실을 부각시킨다.

④ ㉢: 화자는 자신의 병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긴 마음의 병임을 밝히고 있다. 이 병은 명의로 고칠 수 없다고 하며, 이는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한다.

⑤ ㉣: 화자는 죽어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의 곁을 맴돌며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이자,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대상이다.

09 <보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김만중의 『서포만필』의 일부로, 당시 지식인들이 한시를 숭상하고 우리말 시가를 천대하는 풍조를 비판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정철의 『사미인곡』은 한문이 아닌 우리말을 사용하여 가사를 창작함으로써 국문 문학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작품 3 유충렬전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296~303쪽

01 ②	02 ④	03 비정상적 출생	04 ①
05 ①	06 한낱 새알	07 ①	08 ④
09 ②	10 ③	11 이 얼마나 기막힌 정상인가? 황천인들 무심할 수 없는 일이다.	12 ⑤

01 이 글은 ‘선관’,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 등 비현실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중국 명나라’, ‘영종 황제’, ‘토번과 가달’ 등을 통해 배경이 중국임을 알 수 있다.

③, ⑤ 자미원 대장성이었던 유충렬(유심의 아들)이 천상계에서 익성(정한담)과 대립하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지상에서도 정한담과 최일귀가 유심의 직간을 꺼리고 배척하는 등 이들의 대립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초반 부분에는 정한담의 능력과 특징 등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정한담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02 [A]는 정한담과 최일귀가 천자에게 올린 상소이다. “폐하께옵서 즉위하신 후에 군덕은 만민을 덮고 천위는 사해를 떨치고 있사온데”라며 천자의 군덕과 위업을 칭송하고, “이들 오만한 무리를 쳐서 항복을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고자 하옵니다.”라고 말하며 외적 정벌을 간청한다(ㄴ). 겉으로는 “신 등의 충성심을 깊이 살피옵소서.”라고 말하며 충신인 듯 보이지만, 작품의 앞부분에서 이들이 이미 ‘천자를 도모할 어둡한 모반의 마음’을 품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의 요청은 충성을 빌미로 군사를 얻어 반역을 꾀하려는 속내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ㄷ).

오답풀이 ㄱ. 정한담과 최일귀는 표면적으로 충성심을 내세우지만, 이들의 실제 목적은 반역이다. 따라서 충신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ㄷ. 여러 나라가 모두 조공을 바친 상황에서 토번과 가달만 예외였음을 말할 뿐, 토번과 가달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03 서술형 《보기》의 내용은 주인공 유충렬이 태어나는 과정이 일 반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주인공의 아버지인 유심은 자식이 없어 한탄했고, 이후 부인 장씨가 하늘에서 선관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충렬을 잉태한다. 이는 우리 문학에서 영웅의 일생을 다룰 때 흔히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비정상적 출생에 해당한다. 영웅은 보통 평범하지 않은 신비로운 경험이나 초월적인 존재와의 접촉을 통해 태어나며, 이러한 출생 과정은 그가 앞으로 겪게 될 특별한 운명과 능력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04 천자는 정한담의 말에 곧장 “경들의 마음대로 기병하구려.”라고 즉답하고, 이후에도 유심에 대한 정한담·최일귀의 모함에 이내 허락을 내린다. 이는 신하의 말을 숙고하여 신중히 결정을 내리는 현명한 태도라기보다, 신하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우유부단한 태도에 가깝다.

오답풀이 ② 유심의 충언을 왜곡하여 유심을 역적으로 몰아 처형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정한담의 간사한 성격이 드러난다.

③ 유심이 천자 앞에 직접 나아가 기병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간언한 것은 용기 있는 태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기병이 백성들의 생명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유심이 반대하는 발언에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⑤ 왕공열이 선황의 개국공신 유상공의 배향을 언급하며 충신을 죽이는 것이 예의와 명분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 것은 유교적 명분을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05 (나)~(라)에는 천자를 둘러싸고 신하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다투는 모습이 드러난다. 정한담과 최일귀는 반역의 뜻을 품고 충신 유심을 역적으로 몰아세우고, 왕공열은 다시 이를 반박하며 유심의 충절을 변호한다. 이처럼 신하들 사이의 모함과 대립이 심각하게 전개되는 장면은 조정 내 정쟁이 심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잘 보여 준다.

06 서술형 《유심은 “왕실은 지금 미약하고 도적은 강성하니 이것이 야말로~한낱 새알이 천근의 무게를 어찌 견딜 수 있겠소이까.”라고 말한다. 여기서 ‘한낱 새알’은 약하고 미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당시 국력이 약한 명나라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07 유심은 정한담의 모함으로 처형된 것이 아니라 귀양을 가게 된다. 이후 정한담 일파가 유심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유충렬의 가족이 흩어진다. 따라서 아버지(유심)가 처형되면서 가족이 흩어진다고 정리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8 천자가 옥새를 품에 안고 달아난 장면은 자신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본능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당대 집권층의 의지와 연결하기는 어렵다. 옥새를 지킨 행위 자체는 개인적·즉각적인 반응이지, 조선 왕실의 정통성 수호 의지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천자가 반역자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하는 모습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 태종에게 굴욕을 당했던 역사적 사건(삼전도의 굴욕)과 관련 있다.

② ‘도성 내는 무방비 상태여서’라는 서술은 나라의 중심이 외침에 쉽게 무너질 만큼 방어 체계가 허술했음을 보여 주며, 이는 외세의 침략에 무력했던 당시 조선의 상황과 연결된다.

③ 위기 상황에 맞서 싸우거나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도망치려다 결국 굴복하는 천자의 모습은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한 지배층의 한계를 보여 준다.

⑤ ‘호왕에게 보내어 맡겨 놓았다.’라는 서술은 병자호란 후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 등이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던 사실과 관련 있다.

09 정한담은 도성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천자를 위협하는 등 무례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악행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며, 이는 영웅 유충렬이 등장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만든다. 따라서 정한담의 횡포는 유충렬의 활약을 정당화하고 영웅 서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정한담의 잔혹한 행동은 천자와의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적 반역에 해당한다.

③ 정한담은 시종일관 간사하고 폭력적인 인물이다. 성격이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

④ 천자의 무능함은 드러나지만, 정한담의 무례함이 왕권 자체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정한담은 폭력과 반역으로 권력을 추구할 뿐, 민중의 지지를 얻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아)에서 유충렬은 천자를 구한 후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정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매어 놓았습니다.”라고 보고하며 천자를 위로할 뿐, 천자와의 화해 과정이나 군신 간 갈등 해소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용포’는 황제나 왕이 입던 의복으로,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황제가 용포를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권위와 통치권을 포기하고 무력하게 굴복했음을 의미한다.

② 천기를 보고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은 비범한 힘이다. 이는 유충렬이 앞으로 닥칠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 준다.

④ 주인공 유충렬은 충신이자 정의로운 인물인 ‘선(善)’을 대표하고, 정한담은 간신이자 나라를 위협하는 악인인 ‘악(惡)’을 대표한다. 유충렬이 정한담을 물리치는 결말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주제를 드러낸다.

⑤ 주인공 유충렬은 가족과의 이별, 모함, 위기 등 여러 고난을 겪다가 결국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반역자를 처단한다. 이는 영웅 서사가 일반적으로 보여 주는 ‘위기 극복’의 전형적인 서사 양상에 해당한다.

배경지식 ✦ ‘용포’의 상징적 의미

용포는 황제의 신분을 드러내는 곤룡포로, 황제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예복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천자가 정한담의 위협에 굴복하여 스스로 용포를 벗으려 하는 장면은 단순한 의복의 상실이라 아니라 곧 황제 권위와 국가 정통성의 실추를 의미한다. 즉, 용포는 황제 개인의 옷을 넘어 국가 질서와 권력 체제의 상징물이자, 그것이 벗겨지는 상황은 왕조의 위기와 국가적 수모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11 **서술형** 《〈보기〉는 편집자적 논평을 설명한 것이다. (사)의 ‘이 얼마나 기막힌 정상인가? 황천인들 무심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표현은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으로, 독자에게 상황의 비극성과 불합리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에게 사건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서술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배경지식 ✦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은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자적 논평은 고전 소설, 특히 판소리게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판소리게 소설이 주로 낭독과 청취의 형식으로 향유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화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논평한다면 청중의 감동을 배가하고 정서적 몰입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작품의 의도를 강조할 수 있다.

12 ㉠과 ㉡의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각각 ‘이심전심(以心傳心)’과 ‘일촉즉발(一觸即發)’이 적절하다.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하며, ‘주인의 마음을 아는’ 영묘한 천사마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일촉즉발’은 ‘한 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를 뜻하며, 정한담이 언제라도 장검을 내리칠 수 있는 긴박한 순간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 전광석화(電光石火):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신출귀몰(神出鬼沒):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구사일생(九死一生):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③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위기일발(危機一髮): 여유가 조금도 없이 몹시 절박한 순간.

④ 마이동풍(馬耳東風):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 일망타진(一網打盡):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으로,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잡음을 이르는 말.

작품 4 **이야구도하기**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308~313쪽

01 ㉠	02 ㉢	03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04 ㉢	05 ㉤	06 ㉤
07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	08 ㉠	09 ㉠
		10 ㉡

01 이 글에서 작가는 강물 소리를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고,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곧 자연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인식의 주관성을 탐구하는 태도를 보여 준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자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객관적 기록에 머물지 않고 주관적 인식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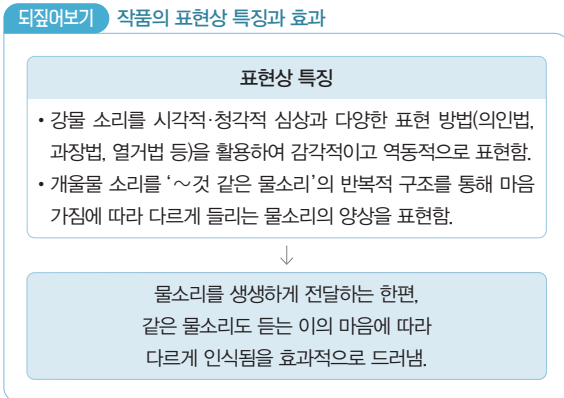
④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도덕적 성찰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체념적 인식보다는 자연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는 태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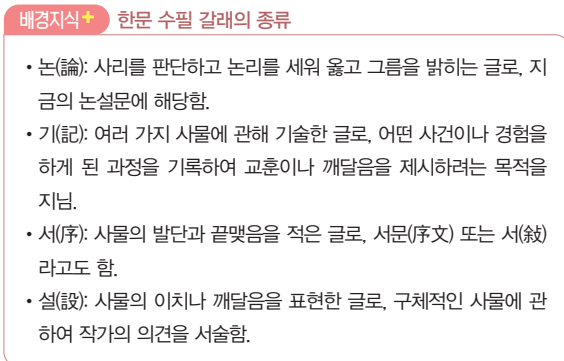
02 이 글의 작가는 강물 소리를 외부 환경이나 강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나)에서는 청아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애잔한 마음 등 심리 상태에 따라 강물 소리가 서로 다르게 들리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03 서술형 《(가)》에서는 강물 소리를 ‘으르렁 소리치며 울부짖고 포효하며’와 같은 청각적 심상, ‘물이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바위와 부딪치며 ~만리장성을 꺾어서 무너뜨릴 기세이다.’와 같은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감각적 심상은 독자가 강물의 소리를 실제로 듣고 보는 듯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강물의 웅장한 위세와 격렬한 움직임이 한층 더 생생하게 드러난다.

04 (나)에서는 ‘~것 같은 물소리’의 어구를 반복하여 작가가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린 강물 소리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05 이 작품은 한문 수필의 갈래 중 ‘기(記)’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실적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과 견문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글을 감상할 때는 구체적인 경험이 어떻게 철학적 사유로 확장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06 작가는 낮에 강물을 건넌 경험과 밤에 강물을 건넌 경험을 통해 눈과 귀 같은 감각 기관에만 의존하는 인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고 듣는 것’을 더욱 정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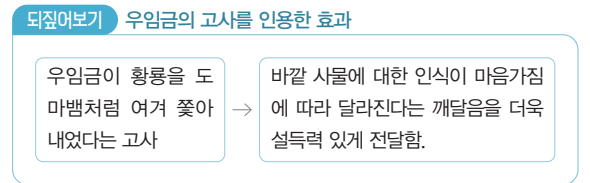
- 오답풀이** ① 낮에 강을 건널 때는 눈으로 위험한 상황을 보는 데 집중하여 귀로 들리는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으로, 본문 내용과 일치한다.
- ② 밤에 강을 건널 때는 시각적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각에만 의존하게 되었고, 강물 소리로 인해 두려움이 증대되었다는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③ 낮과 밤의 경험은 모두 특정 감각 기관에만 치우칠 때 발생하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 준 것으로, 작가의 핵심 주장과 부합한다.

④ 낮과 밤의 대조를 통해 편향된 감각 의존이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점을 부각하고, 선입견 없는 관찰 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본문의 취지와 일치한다.

07 서술형 《(다)》의 ‘그들이 고개를 젓히고 우러러 하늘을 보는 까닭은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다.’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본 실제 이유가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임을 알 수 있다.

08 (사)에 제시된 우임금의 고사는 ‘죽고 사는 판가름이 이미 마음속에 먼저 분명’했기에 위험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가가 강조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한다.

- 오답풀이** ① 작가는 자신의 체험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임금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깨달음의 보편성과 진실성을 보여 주려 했다.
- ② 우임금의 이야기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 모범 사례로 인용되었다. 우임금 역시 선입견 없는 마음으로 위험한 강을 건넜다는 점에서 작가와 동일한 깨달음을 보여 준다.
- ③ 작가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 용기나 도전 정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다. 자신을 특정한 인물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철학적 깨달음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 ⑤ 작가가 전달하려는 것은 상황 대처 능력이나 기술적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마음의 자세에 관한 철학적 성찰이다. 임기응변보다는 선입견 없는 인식의 중요성이 핵심 주제이다.



09 ㉓은 강물에서 얻은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여 확장한 부분이다. 작가는 한세상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는 그 험하고 위태함은 강물보다 훨씬 심하므로, 외물에 현혹되는 삶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 이 글은 『열하일기』에 수록된 글로, 단순한 기행문을 넘어 실사구시적 태도를 잘 보여 준다. 작가 박지원은 사신단 수행 과정에서 청나라 문물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뒤, 그것을 단순한 견문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재료로 삼았다. 따라서 이 글의 문학사적 가치는 작가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실사구시 정신을 구현한 글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도덕적 실천을 구체화하는 내용보다는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③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청나라를 무조건 숭상하거나 민족적 우월감을 보여 주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사대부 인식과 달리 실용적 태도를 강조한다.
- ⑤ 단순히 풍속과 제도를 기록하는 기행문적 성격을 넘어, 인생과 사회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 01 ② 02 ⑤ 03 ④ 04 ㉠: 도치법, ㉡:
내가 구태여 보내고 05 ⑤ 06 ① 07 ①
08 ④ 09 표면적으로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
애물을 의미하고, 이면적으로는 작가와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정치적 반대 세력(동인 세력)을 의미한다. 10 ③ 11 ⑤
12 어린 시절 고난, 구출자나 양육자의 도움 13 ②
14 ① 15 ⑤ 16 ④ 17 ④

01 (가)에서는 ‘구불 절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내용으로, 화자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다)의 제3수 ‘잔 들고 혼자 안자~반가움이 이리흐랴’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답풀이 ①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는 임을 떠나보낸 뒤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집약하여 ‘어더’로 표현하고 있다.

③ (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다)에서는 중국 고사 속 인물인 ‘소부’와 ‘허유’를 언급하며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⑤ (라)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라)는 의태어와 의성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해학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02 (라)와 같은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은 유지한다. 다만, 평시조와 달리 중장이 평시조보다 훨씬 길어져 내용이 산문적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3장 구성을 벗어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배경지식+ 조선 후기의 시조 양상

주로 사대부들이 창작하던 시조는 김천택, 김수장, 안민영 등이 전문 객으로 등장하면서 향유 양상이 달라졌다. 이들은 가단(歌壇)을 이루어 활동하면서 시조 작품을 수집·정리하여 가집(歌集)을 편찬했다. 한편, 시조의 작가층이 여성과 평민으로 확대되면서 평시조가 주를 이루었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사설시조가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03 화자는 대나무가 눈의 무게로 겹보기에는 휘어져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여전히 푸르고 굳은 절개를 간직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세한고절(歲寒孤節)’이 적절하다.

○답풀이 ① 고장난명(孤掌難鳴):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②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돈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③ 안분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알.

⑤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04 서술형 (나)의 중장에 쓰인 ‘제’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임’으로 볼 경우 ‘임이 구태여 갖겠느냐’는 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며, 이때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강조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반면 ‘나’로 볼 경우에는 ‘내가 구태여 보내고’(㉡)라는 의미로 풀이되며, 이는 행간 걸침을 통해 화자의 애절한 감정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썼다.	☐
㉡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썼다.	☐

05 (라)에서 화자는 고운 임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요 개(㉠)’는 정작 미운 임을 반기고 고운 임을 내쫓는, 화자의 바람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요 개’는 화자와 고운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이자 화자의 원망이 집중되는 대상이 된다. 한편 이를 화자가 오지 않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요 개’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전가된 대상이 되며,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과 간절한 기다림을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답풀이 ① ㉠(디)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이를 통해 고려 왕조에 대한 작가의 변치 않는 충절을 표현하고 있다.

② ㉡(그 모른 놈들)은 산수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지으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화자를 비웃는 속세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③ ㉢(삼공)은 세속적인 권력을 의미하며, 화자는 이를 동경하는 대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의 즐거움에 더 큰 가치를 둔다.

④ ㉣(소부(巢父) 허유(許由))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한 중국 고사 속 인물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06 이 시가의 갈래는 가사에 해당한다. 가사는 4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행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내용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 시가 형식이다.

배경지식+ 가사의 특징

-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임.
- 형식은 주로 4음보의 율문으로, 3·4조 또는 4·4조를 기조로 하며, 행수에는 제한이 없음.
- 마지막 행이 시조의 중장과 같은 글자 수(음수율이 3·5·4·3 또는 3·5·4·4)인 것을 정격(正格),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變格)이라고 함.

07 이 시가의 본사에 해당하는 (나)~(마)는 화자가 임과 헤어진 후의 상황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 현상과 자연물을 임에 대한 그리움에 연결하여 화자의 애절한 정서를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08 이 시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임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며, 죽어서라도 임을 다시 만나

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절망적 현실에 대한 분노는 나타나지 않는다.

- 09 서술형** 《〈보기〉에 따르면 정철이 살던 시기에는 동인과 서인의 대립이 치열하여 조정의 정국이 혼란스러웠다. 따라서 작품 속 ‘산’과 ‘구름’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면서도 정철과 정치적으로 대립한 동인 세력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산’과 ‘구름’의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모두 밝혀 썼다.	☐
제시된 형식의 문장에 맞춰 썼다.	☐

- 10** 이 시가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절을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임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을 마련하는 등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물을 활용할 뿐, 조선 시대 여성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이 시가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깊이 있게 형상화하여, 이별의 정서를 노래한 시가 문학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잘 보여 준다.

② 화자는 봄의 매화, 여름의 옷, 가을의 청광, 겨울의 양춘 등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임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④ 이 시가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넘겨 관계에 빚대어 표현하여 독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⑤ 이 시가는 당시 사대부들이 우리말로도 수준 높은 문학을 창작했음을 보여 주며 국문 문학의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1** 사건의 전개를 보면 유충렬은 금산성 전투 후 천기를 살펴 도성에 변고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급히 말을 몰아 달려가 정한담과 맞선다. 이후 유충렬은 정한담이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그를 말에서 굴러 떨어뜨려 산 채로 붙잡는다. 즉, 유충렬은 정한담과 오랜 접전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세와 초인적인 힘으로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다. 따라서 유충렬이 정한담을 ‘가까스로 제압했다’는 내용은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 12 서술형** 《(다)에서 유충렬은 정한담이 보낸 수적에게 잡혀 물에 던져졌다가 뱃사람들에게 구조된 뒤, 강희주를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다. 이어 강희주의 딸과 혼인하여 사위가 됨으로써 강희주와 인척 관계를 맺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영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고난을 겪고 구출자나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 구조에 해당한다.

- 13** [A]는 의문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반면 [B]는 천자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비유를 들어 그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간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의 ‘남적’은 정한담이 치자고 한 외적을 가리키는 것이고, [B]의 ‘한날 새알’은 힘이 약한 왕실을 비유한 표현이므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③ [B]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남적을 공격하는 것이 위험함을 경고하고 있다. 정한담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A]는 상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일 뿐, 애민 정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B] 역시 전쟁의 무모함과 왕실의 미약함을 비유로 들어 간언하는 것으로, 천자의 애민 정신을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A]는 상대의 결정을 존경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질문이고, [B]는 불신보다는 전쟁을 만류하기 위한 충정의 간언이므로 설명과 맞지 않는다.

- 14** 유심은 눈앞의 전쟁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선부른 기병을 만류하려 발언한 것이다. 외교적 사대 노선이나 대외 정책의 정당화와는 무관하다. 현실적 군사력과 백성의安危를 고려한 충정 어린 간언일 뿐, 사대 외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5** 이 글은 강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작가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개인적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통찰을 담담하고 성찰적인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작가는 오히려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며, 개인적 체험에 근거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자연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경험한 바를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옛 성현의 말은 인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④ 문답식 구성이 아닌 체험 중심의 서사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16** 작가는 문제의 원인을 지형적 특성에 두지 않았다. 핵심은 사람들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물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경험 부족의 문제이지, 요동 지형의 특성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사람들이 겉모습(현상)에 의존하거나, 감각 경험에만 기대어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비판한다. 또한 실제 체험 없이 추측에 기댄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고, 위험한 강물의 모습을 보면서도 본질(물소리)을 인식하지 못한 오류라고 본다.

- 17** 우임금은 신성한 황룡조차도 평범한 도마뱀처럼 여길 정도로 외물에 초연한(㉠) 인물로, 이러한 우임금의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바깥 사물에 대한 지각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04 개화기~일제 강점기 문학

작품 1 교목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326~327 쪽

01 ② 02 ③ 03 ④ 04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01 이 시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 자유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이 시에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 교목의 모습을 표현하여 화자의 군세고 곧은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교목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화자의 삶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호수', '낮은 거미집' 등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시구를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과 그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 정신'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와 같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각 연을 종결하여 화자의 저항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차라리~말아라'와 같이 단호한 의미의 부사와 함께 부정의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화자는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 레이는 / 마음'에 '뉘우침'이 없으며,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바람도 흔들진 못'하게 하는 교목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군세고 곧은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03 이 시에서 ㉔(검은 그림자)는 화자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한다. 따라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도 아니며, 화자는 이 시에서 낙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므로 '검은 그림자'가 화자의 낙약한 자아를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04 서술형 이 시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극한적 상황을 형상화한 부분은 3연의 2행(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이다. 이 시행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호수'와 하강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꾸러져'를 통해 극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2 거울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332~333 쪽

01 ④ 02 ③ 03 ③ 04 거울

01 이 시에서 하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이 시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생긴 이미지를 그대로 기록하는 '자동기술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이 시는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자아의 단절과 분열로 인한 현대인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거울아니었던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기보만이라도했겠소' 등에서 드러나듯, 화자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거울', '악수' 등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자아의 분열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02 ㉔에서 화자는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속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㉔은 화자의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완벽한 분열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03 ㉔, ㉕, ㉖, ㉗은 모두 거울 속의 '나', 즉 화자의 내면적 자아를 가리킨다. 하지만 ㉘는 거울 밖의 '나', 즉 화자의 현실적 자아를 가리킨다.

04 서술형 이 시에서 화자의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매개하는 동시에 두 자아를 단절시키는 기능을 하는 소재는 '거울'이다. 이 시에서 '거울'은 연결과 단절의 이중적 속성을 지닌 소재로 기능한다.

작품 3 천변 풍경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338~345 쪽

01 ② 02 ④ 03 ⑤ 04 1930, 에피소드
05 ① 06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
07 ④ 08 ④ 09 ③ 10 ④
11 주인 영감의 심부름으로 반찬 가게에 다녀올 때 잔돈을 잘못 거슬러 온다. 12 ⑤ 13 당대 서울(도시)의 물인정한 세 태를 보여 준다. 14 ③

01 (가)에서 소년은 도시 풍경을 보며 호기심과 흥미를 보일 뿐이므로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붙어 온 소년으로도, '에서' 소년이 시골에서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곤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소년은 전차를 타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 타지 못했다. 소년은 거리에 서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② 아버지가 서울의 신문물을 보고 마음이 들떴다는 내용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③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몇 허러 타니?"라는 말로 보아, 약속 시간에 늦어서가 아니라 전차를 안 타고 되는 거리여서 전차를 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소년이 달리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내용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03 (가)에 시골에서 온 사람들과 원래부터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서술형 《이 작품은 1930년대 청계천 변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총 50절로 구성하여 에피소드 형식으로 보여 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1930년대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다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5 (다)에서 소년은 주인 영감이 이름을 물으면 “창수예요.”라고 얼른 대답하리라고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주인 영감은 소년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가 주인 영감에게 소년 대신 소년의 이름을 일러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으면서도’에서 어린 아들이 홀로 서울에서 지낼 것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다.

③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르지 못한 화신 상회에~또 경건하기를 바랐다.’에서 아버지가 화신 상회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들어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아버지가 자식 하나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소년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소년이 시골보다 서울에서 지내는 것이 소년의 앞날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는 자식의 앞길을~또 경건하기를 바랐다.’에서 자식을 위해 긴장하고 경건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6 서술형 《(나)의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에는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식을 시골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보낼 필요가 있다는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07 ‘주인 영감은 얼굴뿐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구장 영감을 닮아 심술궂은지’에서 소년이 주인 영감의 심성이 시골의 구장 영감과 마찬가지로 심술궂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8 (라)에서 창수는 천변의 풍경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곳이 서울이라는 까닭만으로 아름답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또 방망이 소리를 상쾌하다고 생각하거나 젊은이들이 권투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며 꽤 재미스럽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창수가 천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적절하지 않다.

09 ㉠에서 서술자는 창수의 시선으로 천변 풍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은 천변 풍경에 대한 서술자의 냉철한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10 [A]에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카메라로 관찰하듯 묘사하는 ‘카메라의 눈’ 기법이 사용되었다. ④는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A]에는 세부 묘사가 과장되거나 그 순간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다.

11 서술형 《(마)에서 창수는 주인 영감에게 혼난 뒤 크게 당황하여 얼굴이 무섭게까지 새빨개지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한다. 창수가 이처럼 주인 영감에게 크게 혼이 나게 된 까닭은 주인 영감의 심부름으로 반찬 가게에 다녀왔는데 잔돈을 잘못 거슬러 왔기 때문이다.

12 (사)의 내용으로 보아 차 시간이 촉박한 아버지는 창수에게 ‘그러한 말’(자신이 겪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말)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즉 창수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다시 시골로 보내 달라고 말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3 서술형 《(바)에서 반찬 가게 주인은 창수가 더듬거리며 한 말을 끝까지 들어 주지 않고 창수를 몰아세우는 등 인색한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당대 도시의 물인정한 세태를 엿볼 수 있다.

14 ㉡에서는 어린 아들을 서울에 혼자 두고 가야 하는 아버지의 애달픈 심정과 함께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미덥게 쳐다보는 심정이 함께 드러난다. ㉡에서 아버지가 혼자 남겨질 어린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나타나지만 결정을 반복할지 고민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소단원 평가

본문 351~355쪽

- 01** ③ **02** ⑤ **03** ④ **04** 이 시와 〈보기〉 모두 시적 대상을 통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05** ⑤ **06** ④ **07** ⑤
- 08** 이 시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자동기술법을 사용하고, 기존 문법인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09** ⑤
- 10** ④ **11** ③ **12** ② **13** 당대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 **14** ② **15** ④
- 16** ②

01 이 시는 ‘교목’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부정적 상황에 저항하겠다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ㄱ). 또한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라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각 연을 종결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ㄷ).

오답풀이 나. ‘차라리’, ‘야예’와 같이 단호한 의미의 부사를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동일한 부사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ㄷ. 3연의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화자가 꿈꾸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수(湖水)’는 이 시에서 죽음의 공간을 상징하며,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를 상징하지 않기 때문이다.

02 화자는 ‘푸른 하늘’과 같은 이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시련 속에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화자가 이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끝없는 꿈길에~누워침 아니라’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 화자는 투쟁의 길을 가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삶의 태도를 깨끗하게 지켜 나갈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03 '검은 그림자'는 작가가 처한 절망적인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고독하게 항일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작가의 쓸쓸함을 드러나지 않는다.

되짚어보기 시어와 시구의 상징적 의미

푸른 하늘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
낮은 거미집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
꿈길	자유와 해방을 향한 길
검은 그림자	절망적인 상황
호수	죽음의 공간
바람	외부의 유혹이나 억압

- 04 서술형 《이 시에서는 곧은 나무의 모습을 통해 시련에 굴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가, 〈보기〉에서는 인동차를 달여 마시며 겨울을 견디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엄숙한 시기를 견뎌 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즉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시적 대상을 통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두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공통점을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5 3연을 통해서 약수를 건네는 것은 ㉑(거울 밖의 '나')이며, ㉒가 약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임을 알 수 있다.

되짚어보기 작품에 나타난 두 자아의 모습

거울 속의 '나' (내면적 자아)	거울 밖의 '나' (현실적 자아)
- 거울 밖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함. - 거울 밖 '나'의 약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임. - 외로워 사업에 몰두함. - 거울 밖 '나'와 반대이면서 닮았음.	- 거울 속 '나'에게 말을 함. - 거울 속 '나'에게 약수를 청함. - 거울 속 '나'를 만져 보려 함. -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하고 싶어 함.
분열되어 합일되지 못하는 자의식의 세계를 드러냄.	

- 06 이 시는 '거울', '약수', '왼손잡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 사이의 단절과 분열을 드러내고 있다.
- 07 이 시에서 '거울'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게 해 주는 소재이다. 화자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자아를 만나게 되지만,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 08 서술형 《이 시는 193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가 강화되는 시기에 창작된 시로, 이 시의 작가인 이상은 초현실주의 기법을 통해 좌절이나 혼돈과 같은 불안 의식을 드러냈다. 이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요소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자동기술법을 활용한 것과 기존 문법인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자동기술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썼다.	☐
기존 문법인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내용을 썼다.	☐

- 09 (나)의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에서 잇따른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소년이 서울의 신문물을 보고 느끼는 놀람과 들뜸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10 (나)의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로 보아 소년이 도시에 장이 서 사람들이 들끓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나)의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의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르지 못한 화신 상회에, 자기 자신 오래간만이 잠깐 들어가 보고도 싶었으나,~자기의 모든 거조가, 그 령계도 긴장되고, 또 경건하기를 바랐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의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었으면 서도,'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라는 물건이었다.', '소년은 행길 한 복판을~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1 ㉑은 어릴 때부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견문을 넓혀야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로, 당대 사람들의 서울 지향 의식을 보여 준다. 하지만 ㉑에 자식을 서울로 보낸 사람들에게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아들을 서울로 보내는 것에 대해 '겨우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소년을 서울로 보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12 (가)의 '소년은 주인 영감의 짧은 아랫수염과~공손히 절을 하였다.'에서 소년이 ㉑(한약국)에서 주인 영감을 보고 ㉒(가평)의 구장 영감을 생각해 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소년은 주인 영감에게 한껏 긴장한 마음으로 공손히 절을 한다. 따라서 ㉑에서 창수가 예의 없이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㉑에서 주인 영감이 창수와 아버지를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㉑에서 소년은 천변의 사람들을 구경하지만 ㉒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⑤ (라)의 내용으로 보아 ㉔에서 민 주사 집 하인이 곤경에 처한 창수의 편을 들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찬 가게 주인이 자신이 실수를 한 적이 없음을 역설하자 민 주사 집 하인이 찬동한 것으로 볼 때 민 주사 집 하인은 반찬 가게 주인의 편을 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13 서술형** 《(다)의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썩 재미스러웠다.'에서 창수의 시선으로 장면을 카메라로 관찰하듯 묘사하는 '카메라의 눈' 기법이 쓰였다. 이를 통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생생함을 주고 당대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 사용된 '카메라의 눈' 기법이 주는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삶의 모습'이라는 말을 포함하여 썼다.	☐

- 14** ㉔은 창수의 자의식이 반영된 생각을 서술자가 해설하듯이 제시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 부분은 당대의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창수의 나이를 대신 대답한 것에 대한 창수 개인의 불평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 15** (라)에서 반찬 가게 주인은 곤경에 처한 창수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어림두 없는 소리는, 허지두 말어라.”라고 하며 창수를 몰아세우는 등 몰인정한 태도를 보인다(태연). 또한 (라)에서 창수가 자신 없이 더듬어 가며 반찬 가게 주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또 반찬 가게 주인이 몰아세우자 딱히 항변하지 못하고 한약국으로 돌아온 것을 볼 때 창수는 소심한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진아).

오답 풀이 지현: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서울에 남겨 두고 서울을 떠나지만 아들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바)에서 아버지가 서울을 떠나기 전 아들을 애달프게, 또 일종 미덥게 내려다보았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창수를 걱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하영: (나)에서 주인 영감은 창수에게 나이를 묻고 있으므로 주인 영감이 창수의 이름이나 나이를 묻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6** 이 작품이 1930년대 후반에 창작된 세태 소설이라는 점, (다)에서 '카메라의 눈' 기법을 통해 당대 청계천 변에서 살아가던 서민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담아내었다는 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창수 부자의 이야기를 담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1930년대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1930년대 일제의 가혹한 수탈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글에는 계층 간 협력이나 일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창수가 반찬 가게 주인과 갈등을 겪거나 낯선 서울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장면은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화해로 이어지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은 1930년대 서울의 주거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05 광복 이후 문학

작품 1 오발탄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358~365쪽

- | | | | |
|---------------------|--|-------------|------|
| 01 ③ | 02 ④ | 03 무엇인가, 했다 | 04 ① |
| 05 ③ | 06 의사들의 만류에도 어금니 두 개를 한 번에 뽑은 것으로, 연이어 일어나는 가족의 불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다. | 07 ⑤ | 08 ⑤ |
| 09 ⑤ | 10 해방촌 | 11 ③ | 12 ② |
| 13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 14 ③ | | |

- 01** (가)에서 철호가 간호원에게 “네, 그래요.”라고 짧게 답하는 것만 나타날 뿐, 이 글에서 대화를 통해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후, (나)에서 병원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는 순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

②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래요.” 등에서 비극적 상황을 감정을 절제한 담담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철호가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다 경찰서 앞에 와 있다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게 진열장들을 기웃거리며 걷는 등의 행동 묘사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정신적 혼란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철호는 간호원보다도 더 심상한 표정이었다.’, ‘무엇인가 큰일이 한 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 등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모두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2** 앞부분 줄거리에서 철호는 남동생 영호,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에 대한 책임과 걱정 속에서 궁핍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 한다고 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철호의 여동생이 아니라 철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내는 병원에서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앞부분 줄거리에서 어머니는 월남 이후 정신 이상이 되어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하였다.

③ 앞부분 줄거리에서 철호는 영호가 은행에서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혀 왔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를 다녀왔다고 하였다.

⑤ 앞부분 줄거리에서 철호네 가족은 북쪽에서 지주의 삶을 살았으나 월남 이후 해방촌 판잣집에 사는 등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

- 03 서술형** 철호는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큰일이 끝났다는 기분과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가)의 ‘무엇인가 큰일이 ~ 무거운 기분이기도 했다.’에서는 철호의 이러한 이중적 심리를 보여 준다.

- 04** (나)에서 철호는 ‘자기도 모르게’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 ‘어느 사이에’ 경찰서 앞에 와 있는 등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한다. ‘자동 기계처럼’ 걷고, 가게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며’ 걸으면 서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는 않’는 철호의 모습은 정신적 방황 상태를 보여 준다.

- 05 (다)에서 철호는 의사의 만류에도 이를 뽑아 달라고 고집할 뿐, 발치 대신 치료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답풀이 ① 철호는 첫 번째 치과에서 한쪽 어금니를, 두 번째 치과에서 나머지 어금니를 뽑는다.

② 철호는 첫 번째 이를 뽑았을 때 '사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④ 철호는 이를 뽑은 후 몸이 떨리고 오한과 어지러움을 느끼는 빈혈 증상과, 시뻘건 선지피가 간 덩어리처럼 엉겨서 나오는 출혈을 보인다.

⑤ 철호는 배가 고품을 깨닫고 구수한 설령탕 생각을 하며 속히 음식 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 06 서술형 《철호는 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금니 두 개를 한 번에 뽑는다. 철호는 어머니의 정신 이상, 여동생의 양공주 전락, 남동생 영호의 체포 소식,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의 사망까지 연이은 가족의 불행을 경험한다. 이러한 누적된 비극적 상황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철호는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하였음을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 07 ㉠은 전등 불빛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철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철호는 신체적으로는 허기와 발치로 인한 빈혈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아내의 죽음과 동생의 강도 행각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의 전등이 커졌음에도 거리가 더 어두워졌다고 느끼고 있다.

- 08 ㉡(허청허청)는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고 자꾸 비틀거리는 모양'을 의미한다. 이는 힘없고 무기력한 걸음걸이를 표현한 것으로, 철호의 육체적 쇠약함과 정신적 탈진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답풀이 ① ㉡는 아프지 않다는 표시일 뿐,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는 무관하다.

② ㉢는 의사가 경고한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할 일을 깨달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는 뒤늦게 배고픔을 인식한 것으로, 냉철한 현실 인식이 아니라 오히려 철호가 자신의 상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④ ㉤는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으므로, 이는 삶의 욕구 회복이 아니라 신체적 이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 09 (마)에서는 설령탕집에 가거나 택시에 탑승하고,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하는 등의 철호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다(ㄷ). 또 "아니야.", "가.", "가자." 등의 짧은 문장의 반복을 통해 철호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의식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ㄷ).

○답풀이 ㄱ. (마)에는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정도의 철호의 짧은 생각만 제시될 뿐, 독백을 통한 철호의 성격 제시는 나타나 있지 않다.

ㄴ. (마)는 '설령탕집 → 택시 탑승 → 행선지 변경'의 순서와 같이 순행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10 서술형 《철호가 택시 기사에게 처음 행선지로 말한 '해방촌'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와 어린 딸이 있는 장소로,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다.

- 11 철호가 운전수에게 행선지를 계속해서 바꾸어 말하는 까닭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한꺼번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혼란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철호가 삶의 방향을 잃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2 이 글에서 '오발탄'은 전후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철호를 빗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쟁 이후 주변부로 밀려나 경제적 궁핍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놓여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존재를 빗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배경지식+ 「오발탄」의 문학사적 의의

이 작품은 1950년대 전후 리얼리즘 소설의 대표작으로, 전후 사회의 궁핍한 현실과 구조적 모순을 그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분단, 경제적 몰락, 도덕적 혼란 등이 한 가족의 불행한 삶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 13 서술형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아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은 철호가 감당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을 나열한 것으로, '구실'의 반복을 통해 각각의 역할이 철호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의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라는 탄식은 이 모든 역할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철호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 14 ㉠(철호의 "가자!")은 '자기 갈 곳도 모르게' 방황하는 철호에게 방향성 없는 표류를 의미할 뿐, 미래에 대한 의지나 결단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어머니의 "가자.")는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답풀이 ㉠ ㉠은 "어디로 갑니까?"라는 질문에도 "글쎄 가."라고 답할 정도로 방향성이 불분명하지만, ㉡는 북쪽의 고향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것이다.

② ㉢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혼란스러운 심경이 담긴 것이고, ㉣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것이다.

④ 철호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피 욕구를 ㉠과 같이 표현했으며, 어머니는 삼팔선이라는 분단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와 같이 외친다.

⑤ ㉤은 아들·남편·아비·형·오빠 등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은 과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말이며, ㉢은 분단 상황으로 북쪽 고향으로 갈 수 없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되짚어보기 "가자"라는 말의 의미

"가자"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소시민의 비극적인 절망과 좌절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심리의 표출이며, 지금 이대로는 살아가 수 없다는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작품 2) 대설 주의보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370~371쪽

- 01 ⑤ 02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03 ②
04 ①

01 말줄임표는 굴뚝새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눈보라, 해일, 군단, 계엄령, 부리부리한 술개’ 등 위협하는 세력과 ‘굴뚝새, 길 잃은 등산객, 외딴집,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 등 나약한 존재의 대립을 통해 억압받는 민중의 현실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에서 ‘내리는’이라는 종의적 시어를 통해 계엄령이 내린 억압적 시대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으)ㄴ 듯’ 등의 반복을 통해 눈보라의 위력과 그로 인해 겪는 약한 존재들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다.

④ 흰색인 ‘눈’과 검은색인 ‘굴뚝새(숯덩이만한 게)’의 색채 대비를 통해 두 대상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02 서술형 《이 시에서 ‘눈보라의 군단’은 군대를 의미하는 ‘군단’이라는 단어를 통해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군사 정권의 폭력성을 암시한다. ‘백색의 계엄령’은 계엄령을 눈보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당시의 억압적 상황을 암시한다.

되짚어보기 시대 상황의 시각적 형상화

이 시에서는 군사 독재의 억압을 눈보라로 비유하여 추상적인 정치 상황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계엄령’, ‘군단’ 등의 용어를 활용하여 당대의 폭압적인 정치 현실을 한 기하고 있다.

03 눈을 치울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상황은 부정적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04 ‘굶은 눈발’은 위협적 존재를 의미한다. ‘굴뚝새’, ‘길 잃은 등산객들’, ‘외딴 두메 마을’,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은 나약한 존재를 의미한다.

작품 3) 복어 대가리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376~383쪽

- 01 ⑤ 02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03 ④ 04 ④ 05 ①
06 ⑤ 07 ④ 08 ④ 09 ③ 10 ②
11 • ③: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을 것이라 여겨 기임 일행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건넨 것이다. • ⑥: 자양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과의 추억을 간직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건넨 것이다. 12 ②
13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14 ⑤ 15 ⑤

01 이 글은 짧은 일화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이루며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소품인 ‘상자’를 활용하여 분업화, 획일화된 산업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② ‘떨기코’, ‘외눈깔’ 등의 익명적 명칭은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관계를 맺는 현대인들의 피상적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이 글은 ‘희곡’으로, 희곡과 같은 극 갈래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된다.

④ 창고를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양과, 창고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다령과 함께 창고를 떠나는 기임의 대조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2 서술형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는 운전수가 자신의 일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상자의 정체도 목적도 모른 채 단순히 신고 옮기는 반복 작업만 수행하는 이 모습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기계의 부품처럼 분업화된 노동에 편입되어 획일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03 ㉔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한 채 하나의 특징만으로 구분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극심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분업화·획일화된 시스템 속 익명성과 소외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04 ㉔(편지)는 자양이 기임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쓴 것이다. 기임의 반성이나 심리 변화에 대한 언급은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자양은 편지를 꼭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수는 ‘미친 짓’이라고 반대하여 둘 사이의 갈등이 촉발된다.

② 기임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상자 주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운전수에게 억지로라도 쥐여 주는 모습은 자양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③ 운전수는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라며 편지를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

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자양이 보내려는 편지는 상자가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리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5 (나)에서 자양은 편지를 꼭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수는 ‘미친 짓’이라며 반대하고 결국 편지를 찢어 버린다. 이는 책임감 있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자양과,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운전수 간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 자양이 자신이 성실하게 지켜 온 삶의 의미에 대해 회의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운전수는 상자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④ 자양과 기임은 일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는 기임이 등장하지 않는다.

⑤ 자양이나 기임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거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운전수는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 봐.”라고 말한다. 즉 창고 안에서의 성실함(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창고

밖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편지를 찢은 것이다.

07 ㄱ. 다령이 ㉠을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라고 말한 점에서 적절하다.

ㄴ. 다령이 ㉡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라고 표현한 점에서 적절하다.

ㄷ. ㉠과 ㉡은 상자가 뒤바뀐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자양의 성실함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ㄷ. 다령은 기계라고 했다가 폭탄이라고 말을 바꾸며 모순된 정보를 제시한다. 이는 다령도 상자 속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08 운전수는 자신의 아내가 이미 죽었지만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예를 들며,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운전수에게 서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② 자양은 서류를 통해 상자가 잘못된 것을 누군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서류를 현실을 반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③, ⑤ 운전수는 서류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므로, 운전수에게 서류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나 오류를 바로잡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09 기임은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라며 창고를 떠나려 할 뿐, 기임이 창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기임이 다령과 함께 나가 살기로 결심하고,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라고 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양이 “제발 가지 맏.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라고 말하며 기임을 붙잡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양이 기임의 생일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 뒀던 스웨터를 선물하며, 기임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라는 자양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은 실제로 상처받았음을 드러낸 표현이 아니므로,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서운함과 장난스러움이 섞인 어조로 말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은 기임이 오랜 시간 함께했던 공간을 돌아보며 말하는 장면이므로 회상하듯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③ ㉡은 운전수가 기임과 다령을 재촉하는 장면이므로 서두르며 단호한 어조로 말해야 한다.

④ ㉡은 다령이 실용적인 짐 정리로 기임의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므로 인물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큰 동작을 취해야 한다.

⑤ ㉡은 기임이 자신이 떠난 후 혼자 남은 자양을 걱정하는 대사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걱정이 모두 드러나게 말해야 한다.

11 **서술형** 이 글에서 북어 대가리는 자양과 기임이 서로 주고받는 물건으로, 〈보기〉에서 알 수 있듯 자양이 기임에게 북엇국을 끓

여 주던 재료이자 둘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다. 〈다〉에서 자양은 “꼭 필요할 겁니다.”라고 말하며 기임의 새 삶에 실용적으로 필요할 물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임은 “내 생각이 날 거야.”라고 말하며 자신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필요나 쓸모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자양이 북어 대가리를 건넨 이유를 적절하게 썼다.	☐
자신을 잊지 말라는 내용을 담아 기임이 북어 대가리를 건넨 이유를 적절하게 썼다.	☐

12 북어 대가리는 자양의 처지를 투영한 대상으로, 세속적 욕심이나 윤리와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① 북어 대가리는 몸통이 없이 머리만 남은 것으로, 기임이 떠나고 혼자 창고에 남겨진 자양의 쓸쓸하고 고립된 처지를 상징한다. ③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보며 자신도 몸통 없이 머리만 남은 존재 같다고 말한다. 이는 기임이 떠나고 생각과 의문만 가득한 채, 삶의 활력과 의미를 잃은 자신의 모습을 북어 대가리에 투영한 것이다.

④ 자양은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지만, 결국 스스로를 다그치며 다시 상자를 쌓는 일로 돌아간다. 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채 주어진 일만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북어 대가리는 본래의 생명력과 고유한 가치를 잃고 머리만 남은 것으로, 창고에서 상자를 기계적으로 옮기며 부속품처럼 주어진 역할만 반복하는 자양의 삶을 상징한다.

13 **서술형** 〈마〉에서는 자양이 회의를 떨쳐 내고 다시 기계적으로 상자를 옮기는 반복적 노동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는 획일화된 삶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자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14 ㉡은 자양이 체제에 저항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회의와 혼란을 억누르고 다시 기계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15 ㉠에서는 자신이 믿고 살아온 성실한 삶의 방식이 헛된 것일 수 있다는 자양의 회의감과 가치관의 혼란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양은 창고 밖 세상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자신의 성실함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회의에 빠져 있다.

② 자양은 의심과 혼란을 겪다가 결국 “내 의심은 틀린 거야.”라며 다시 상자를 쌓는 일로 돌아가지만, 이는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기존 삶의 방식의 반복이다.

③ 자양은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 갈등에 집중하고 있다.

④ 마지막 부분에서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라며 더 정확히 일하려 하지만, 이는 회의를 떨쳐 내려는 몸부림일 뿐이다.

되짚어보기 「북어 대가리」의 주제 의식

이 작품은 성실하게 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못하는 인물의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이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에 매몰되어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며, 산업 사회에서 개인의 정직과 성실이 지니는 의미를 묻고 있다.

- 01 ⑤ 02 ⑤ 03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불행을 막지 못했다는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④
06 ② 07 ④ 08 이 시에서 중의적 의미를 지닌 구절은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다. 이 구절은 눈보라가 쏟아지는 혹독한 자연 현상과, 군사 독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한 억압적 정치 상황이라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09 ②
10 ④ 11 ②

01 철호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금니 두 대를 모두 뽑고, 택시에서 행선지를 계속 바꾸는 것에서 연이은 가족의 불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는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철호의 내적 갈등과, 철호와 사회 사이의 갈등이 주로 나타나 있다.

②, ④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③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지 않는다.

02 (가)에서 철호 어머니는 월남하여 해방촌 판잣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철호의 아내는 이미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하였다.

② 철호는 택시에서 '해방촌' → 'S 병원' → 'X 경찰서'로 목적지를 여러 번 바꾸었다.

③ (가)에서 철호네 가족은 해방촌 판잣집에 살며 궁핍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 한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철호는 한쪽 어금니를 뽑은 후 "이쪽을 마저 빼 주십시오."라며 다른 쪽 어금니도 뽑아 달라고 했다.

03 **서술형** 철호는 돈이 생기면 가족을 위해 쓰며 자신을 희생하느라 충치를 치료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내가 사망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 왔지만 가족의 불행을 막지 못했다는 데서 충격을 받는다.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금니 두 대를 무리하게 뽑으려는 것은 이와 같은 정신적 충격을 표출하는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족', '불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가족을 위한 헌신이 좌절된 데서 한 행동임을 적절하게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추어 썼다.	☐

되짚어보기 충치와 충치를 뽑는 행위의 의미

충치	충치를 뽑는 행위
-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뤘었던 것 -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철호'가 지키고자 했던 양심 - 양심을 지키기 위해 '철호'가 감내해 왔던 고통	- 삶의 이유와 의미를 잃은 상태를 드러냄. - 극도의 정신적 충격이 낳은 자기 파괴적 행위임. - 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함을 드러냄.

04 '오발탄'은 잘못 쏜 탄환으로, 목표를 잃고 방향 없이 날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전쟁 이후의 경제적 궁핍, 사회의 구조적 모순,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굴레 속에서 철호와 그의 가족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을 그린다고 하였다. 이에 비춰 볼 때 '오발탄'은 ⑤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오발탄'의 상징적 의미와 일확천금을 꿈꾸다 실패 한 것은 관련이 없다. 또한 이 글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다 실패하여 사회의 주변부로 전락한 인물도 등장하지 않는다.

② 이 글에서 빛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은 찾을 수 없다.

③ 귀환의 문제는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며, '오발탄'의 의미는 실행민에 국한되지 않고 전후 사회에서 방향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다.

④ '오발탄'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05 ③(해방촌), ④(S 병원), ⑤(X 경찰서)에서 일어난 불행들은 철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다. 어머니의 정신 이상은 분단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아내의 죽음은 출산 중 일어난 사고이다. 영호의 범죄는 전쟁 이후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06 이 시는 '해일처럼 굽이치는', '평평 쏟아져 날아오듯 텅버드는', '다투어 물려오는'과 같은 역동적 표현과 '눈보라의 군단'과 같은 은유법을 통해 군사 독재라는 억압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에서 겉으로 드러난 말의 뜻과 실제 의도하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표현 방식인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화자가 미래 상황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④ 이 시는 눈보라가 치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군사 독재의 억압적 현실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부리부리한'이라는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 개선의 가능성보다는 억압적 상황의 위협성이 강조되고 있다.

07 '부리부리한 술개'는 굴복새를 위협하는 포식자로, 민중을 억압하는 신군부 세력의 또 다른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은 눈보라(억압)를 치워 줄 구원의 손길이 없다는 의미로, <보기>의 강압 정치 속 암담한 현실과 연결된다.

② '힘찬 눈보라의 군단'은 <보기>의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와 대응된다.

③ '백색의 계엄령'은 <보기>에서 '1980년 5월 17일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대응하며, 당시 신군부의 억압적 통치를 형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은 눈 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의 압력을 받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기>의 강압 정치로 인해 민중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8 **서술형**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은 '내리다'라는 동사의 중의성을 활용한 표현이다. 여기에서 '내리다'는 사전적으로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와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 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는 눈보라가 쏟아지는 자연 현상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1980년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폭압적 정치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중의적 의미를 지닌 구절로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을 찾아 썼다.	☐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자연 현상’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썼다.	☐
‘군사 독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한 억압적 정치 상황’이라는 이면적 의미를 썼다.	☐

배경지식 ★ 중의적 표현

문학에서 사용되는 중의적 표현은 작가가 의도를 갖고 하나의 표현을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기법으로, 독자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기거나 말에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

- 09 이 글은 ‘북어 대가리’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체성과 판단력을 잃고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비극적이고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된다.

③ 무대는 창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며, 빠른 무대 전환이나 긴박한 사건 전개는 없다.

④ 등장인물의 관계는 주로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⑤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대사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독백으로 이루어진다.

- 10 북어 대가리는 몸통 없이 머리만 남은 것으로, 기임이 떠나고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만 가득한 자양 자신을 빗댄 소재이다.

○답 풀이 ① 북어 대가리는 머리만 남은 몸통이가 없는 존재이다.

② 자양은 기임이 준 북어 대가리를 보며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라며 소중히 여긴다. 북어 대가리는 자양과 기임의 추억의 물건으로, 원망의 매개체가 아니다.

③ 북어 대가리는 현대 사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양과 같은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⑤ 자양은 의심과 회의를 겪다가 “내 의심은 틀린 거야.”라며 다시 기계적으로 상자를 쌓는 원래의 삶으로 회귀한다.

- 11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는 자양이 기임의 생일 선물로 준비한 것이다. 이는 경직된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고라는 삭막한 공간에서도 존재하는 인간적 관계와 따뜻함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답 풀이 ① 보통 명사처럼 쓰인 ‘자양’, ‘기임’, ‘다령’, ‘운전수’는 〈보기〉에서 말한 ‘익명성을 강조한 등장인물의 명칭’으로 볼 수 있다.

③ ‘어둡고 조그만 창고’는 〈보기〉의 ‘제한된 창고’에 해당하며, 외부와 단절되고 정해진 일만 반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획일화된 현대 사회’를 상징한다.

④ 자양의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라는 대사는 〈보기〉에서 말한 ‘산업 사회에서 개인의 정직과 성실의 의미

를 묻는’ 핵심 질문으로,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회의를 드러낸다.

⑤ 회의를 겪고도 다시 상자를 쌓는 자양의 모습은 〈보기〉의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에 매몰돼 빈 껍데기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대단원 평가 1회

본문 396~402 쪽

- 01 ④ 02 ③ 03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어
한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 04 ① 05 거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06 ④ 07 ⑤ 08 ⑤
09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10 ⑤ 11 아야 12 ② 13 ②
14 (다)에서 정한담이 쳐들어오자 천자는 급히 도망치고 결국
정한담에게 잡히고 마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무능하고 무력
하다. 15 ② 16 ④ 17 거울 18 ①
19 ⑤ 20 ① 21 ⑤ 22 ④ 23 참고

- 01 (나)의 1구와 2구에서는 격하게 흐르는 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3구와 4구에서는 세속의 소리를 멀리하며 세상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는 외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조를 보여 준다.

- 02 (가)의 ‘물’은 ‘임에 대한 사랑, 임의 죽음, 임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나)의 ‘물’은 속세로부터 화자를 차단하는 자연물이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물이 화자와 특정 대상을 단절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 03 서술형 《(나)는 한문으로 쓰인 한시이다. 그러나 우리말을 적을 고유 문자 체계가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한문을 사용했을 뿐, 창작 주체와 정서, 사상이 한국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문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어 한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4 (가)는 양반들의 허영심을 말뚝이의 재담으로 풍자한다. (나) 역시 귀족처럼 되기를 바라는 주르망의 허영심을 과장된 상황으로 드러내어 풍자한다. 이처럼 두 작품 모두 특정 계층의 위선과 허영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a). 또한 (가)는 양반과 평민의 구별이 존재한 조선 시대를, (나)는 귀족과 평민의 구별이 존재한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분제 사회라는 공통된 시대적 배경을 지닌다(b).

오답풀이 c. 일정한 재담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가)에만 해당하
는 설명이다.
d. (나)에서는 권위를 내세우는 말과 함께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부분
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서술형 《(가)에서 말뚝이와 양반들 사이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목은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이다. 이 대목은 관객의 흥을 돋우는 역할도 한다.

06 ㉔은 예복이 정성껏 손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사가 아니
라, 예복이 잘못 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답풀이 ① ㉑: '개질랑'의 '양'과 '개다리소반'의 '반'이라는 동음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효과를 낸다.
② ㉒: '구경하시는 양반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말뚝이의 행동을 통해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는 공간에서 관객을 극중 상황에 참여시키고
있다.
③ ㉓: 말뚝이는 앞서 관객들에게 양반 앞에서 마음껏 담배를 피우라
고 했다가, 양반이 화를 내자 담배를 금하라고 했으며 능청스럽게 변명
한다. 이를 통해 양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조롱
하고 있다.
⑤ ㉔: '세계 으뜸', '이 시대 최고의 일인자' 등과 같은 과장된 미사여
구로 주르맹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있다.

07 이 글의 갈래는 '신화'로, 신성한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나 국
가의 기원을 다루며 신화적 상징성과 초월성이 나타난다. 신화의
사건 전개는 일반적으로 합리적·논리적 인과 관계보다는 상징
적·신화적 장치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 글을 '논리적 인
과 관계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감상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는 천손 강림, 난생, 기아, 태양 숭배 등 여러 신화
적 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글에 내포된 화소의 의미를 파
악하며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햇빛 수태, 알에서의 탄생, 강 건너기와 같은 사건은 신화적 상징성
을 지니며, 이를 해석하며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주몽 신화는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며, 후대 영웅 서사 문학 전개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후대 영웅 서사 문학에 미친 문학사적 영향을
고려하며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주몽을 천제와 하백의 혈통으로 설정한 것은 고구려 왕실의 정통성
을 뒷받침하려는 민족적 서사로서의 의도를 보여 주므로, 이를 이해하
며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08 금와왕은 주몽의 말을 동물들에게 던져 주거나 깨뜨리려고 하였
다. 또한 금와왕이 주몽이 성장하고 건국하는 과정에서 주몽을
적극적으로 돕는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유화는 다른 사람들이 주몽을 해치려는 것을 알고 주몽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언하였다.
② 물고기와 자라는 도망을 가던 주몽이 강물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
를 만들어 주었다.
③ 금와왕의 만아들 대소는 주몽의 능력을 시기하며 목숨을 위협한다
는 점에서 적대자로 볼 수 있다.

④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동행한 오이 등 세 사람은 주몽의 고구려 건
국을 도운 조력자로 볼 수 있다.

09 서술형 《'알'을 깬다는 것은 현실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연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㉑의 행위가 신화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 제시된 말을 포함하여 썼다.	☐

10 이 시가는 총답사가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기리며 지은 10구제
항가이다. 바람, 이슬, 구름, 물결, 소나무, 눈꽃 등의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기파랑의 인품을 드러내고 있으며, 내용
은 '기-서-결'의 구조로 전개된다. 또한 향찰로 표기된 대표적
인 항가로, 화자가 기파랑을 예찬하는 서정적 찬가 형식을 취하
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대화 형식이 아니라 찬미와 다짐을 중심
으로 전개되므로, 화자의 물음에 달이 답하는 대화 형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서술형 《이 시가의 낙구 첫머리에 있는 감탄사 '아야'는 시상을
전환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며 정서를 마무리하도록 이끄
는 기능을 한다.

12 이 글은 천상계에서 지상으로 적강한 인물들의 대결 구조로 전개
되고 있다. 이처럼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 공간을 설정하
고, 천상계에서부터 얽힌 악연이 지상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건 전개의 필연성이 강화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독립적인 에피소드들이 나열된 구조가 아니라
총렬과 정한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
③ 이 글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과거 천상
계 사건부터 현재 지상계 사건까지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순행적 구
성을 취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총렬과 정한담의 대립으로 인한 외적 갈등이 중심을 이루
며, 인물의 내적 갈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의 선한 인물은 끝까지 선하고, 악한 인물은 끝까지 악한 모습
을 보인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로 그려진다.

13 (나)에서 정한담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초화왕의 항적이요, 당명
황의 안록산이라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정한담이 자기 자신
을 항적과 안록산에 빗댄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유심이 자식이 없어 치성을 드린 뒤 총렬을 얻
게 된 과정이 나타난다.
③ (다)에서 옥새를 들고 도망치던 천자가 정한담에게 잡혀 굴욕적으
로 항복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④ (라)에서 정한담이 놀라서 도망치려다 붙잡혀 결박당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⑤ (리)에서 천자가 총렬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
한 채 자신의 생사를 확인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14 **서술형** 《(다)에서 충렬의 위로와 보증을 받고 안심해 편히 자고 있던 천자는 정한담이 갑자기 쾰로 침입하자 급히 달아난다. 또한 천자는 정한담에게 한순간에 사로잡히고 굴복을 당하는데, 이로 보아 천자는 황제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게 나약하고 무능한 특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의 내용을 포함하여 천자의 특성을 적절하게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 15 ㉠에서 드러나는 정한담의 횡포는 이후 정한담을 제압하고 반역을 소탕하는 유충렬의 영웅적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정한담의 행동을 직접 묘사한 것이지, 충렬의 시점에서 서술한 것이 아니다.

③ 묘사의 초점은 정한담의 포악한 행위에 있으며, 전쟁의 전개 양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데 중점이 있지 않다.

④ 정한담의 내적 갈등이나 심리적 불안은 제시되지 않고, 오직 외적 행위와 횡포가 강조되고 있다.

⑤ 정한담은 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정치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변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16 <보기>에 따르면 이 글은 병자호란 이후에 창작되어 청나라에 대한 원한과 당시 조선 지배층의 무력함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호국은 정한담과 손잡은 적대 세력으로 설정되어 있어 호국의 진취적 기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외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정한담이 권세를 독점하고 황제를 위협하는 모습은 당시 왕실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민중의 비판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반역자 정한담이 처벌받고 유충렬이 충과 의를 드러내며 황제를 구하는 결말은 권선징악의 전형적 구도이다. 이는 유교적 가치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민중의 바람과도 연결된다.

③ 현실에서는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치욕을 당했지만, 허구적 영웅 서사 속에서 충렬이 황제를 지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전개는 민중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한다.

⑤ 황제가 무력하게 굴욕을 당하는 장면에서 충렬이 등장해 반역자를 제압하는 전개는, 실제 현실에서도 나라를 구원할 영웅적 존재를 바라는 민중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 17 **서술형** 《(나)에서 화자의 자기 인식을 돕는 성찰의 도구이자 소통을 차단하는 분열의 매개체에 해당하는 소재는 (나)의 '거울'이다. (나)에서 '거울'은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들이 악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단절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18 두 작품은 모두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내면 의식을 형상화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가)는 일제 강점기라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 자세와 신념이라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나)는 193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가 강화되는

당시 국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식민지 청년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19 (가)는 자연물인 '교목'을 통해 의연한 삶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와 같은 상승의 이미지와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와 같은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b). 또한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와 같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표현을 각 연의 끝에 배치하여 단호한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d).

- 20 ㉠의 '푸른 하늘'은 이상과 염원의 세계를 상징하며, 화자의 이상과 소망이 투영된 공간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② ㉡: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을 의미하며, 억압적 현실을 넘어서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③ ㉢: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역동적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④ ㉤: 현실 세계와 단절된 이질적 세계로, 소통 부재와 고립된 상태를 강조한 표현이지 평온한 현실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⑤ ㉥: 현실적 자아가 제어할 수 없는 대상, 즉 내면적 자아를 가리킨다.

- 21 (가)에서 다름은 윤전수의 질문에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대답을 하여 윤전수의 궁금증은 오히려 더 커진다. 따라서 다름이 윤전수의 궁금증을 해소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자양은 상자가 바뀐 사실을 편지에 적어 알리려 했지만 윤전수가 찢어 버린다.

② 윤전수는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라며 상자가 바뀐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③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면 성실함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독백에서 보이듯, 자양은 자신의 성실함에 의문을 품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④ 윤전수는 자양의 편지를 찢으며, 자양에게 참고 안에서 생긴 일을 참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 22 '북어 대가리'가 머리만 남은 것은 생각만 가득한 자양의 상황을 보여 주며, 삶의 방향을 잃은 그의 고뇌를 드러낸다. 북어 대가리가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내적 다짐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자양이 결국 현실에 순응하며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북어 대가리'는 제약된 현실에 순응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암시한다.

② 몸통이 없다는 구체적 특성은 실천력을 잃은 자양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낸다.

③ 머리만 남은 '북어 대가리'는 생각만 가득한 자양의 상황을 상징한다.

⑤ 말라비틀어진 북어의 모습은 삶의 방향과 가치를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사회적 윤리를 드러낸다.

- 23 **서술형** '창고'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의 공간이자, 폐쇄적인 산업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01 ⑤ 02 1연은 임(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03 ③ 04 ③ 05 ① 06 ⑤ 07 ③
 08 ② 0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세
 14 ② 15 ④ 16 ② 17 ③ 18 ②
 19 ⑤ 20 ④ 21 ③ 22 계엄령, 군단

01 이 시가는 구어적 어휘가 주로 사용된 고려 속요이다. 당시 서민들이 부르던 노래의 특성상 한문 중심의 정제된 문어체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분연체 형식을 보여 준다.

- ② 후렴구 '아으 동동다리'의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월령에 따른 세시 풍속을 담고 있다.
 ④ 1연은 임(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하고, 그 이후의 본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과의 이별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02 **서술형** 1연에는 입에 대한 송축의 의미가 나타나고, 다른 연에서는 입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된다. 이러한 차이는 이 시가가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 의식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형되었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중심 내용에 핵심 시어 '덕'과 '복'을 포함하여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03 2연의 '나릿 물(넷물)'은 오지 않는 입과 대비되어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 가운데 '나릿 물'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어는 ㉢(꽃고리 새)이다. 4월이 되자 돌아온 ㉢은 오지 않는 입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심화하고 있다.

04 (가)는 고려 충신으로서의 절의를 지키려는 충절 의식을 노래한 평시조로, 조선 전기 문인 사대부 시조의 특징을 보여 준다. (나)는 조선 중기의 연시조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을 노래하여 문인 사대부의 은일적·자연 친화적 정서를 드러낸다. (다)는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로, 일상적 소재와 해학을 활용하여 서민적 생활 정서를 표현한다. 이처럼 조선 시조 문학은 초기 사대부 중심의 관념적·교훈적 주제에서 점차 작자층이 확대되고 생활 감정과 해학적 정서를 담으며 형식 또한 유동적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05 <보기>를 통해 원천석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조선 왕조의 관직 제의를 거부하고 은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의 '눈'은 '덕(대나무)'를 굽히려는 대상으로, 시련과 고통을 상징한다.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눈'은 새로운 왕조인 조선의 개국 세력들이 그에게 가한 정치적 압박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덕(대나무)'는 절개를 지킨 화자 자신 또는 그 상징으로 제시된 소재이다.

- ③ '세한고절'은 '추운 계절 홀로 지키는 절개.'를 뜻하는 말로, 화자가 당도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프를소냐'는 매서운 눈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푸름을 잃지 않는 절개를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화자는 관직을 거부하고 절의를 지키려는 자신의 의지를 '너(대나무)'에 빗대어 강조한 것이다.

06 ㉠은 현실에 얽매어 살아가는 속세 사람들을, ㉡은 중국 고사 속 인물로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한 사람들이다. 화자는 ㉠과 같은 속세의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며, ㉡과 같은 강호가도의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다. 즉, ㉡은 화자가 추구하는 안분지족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을 보여 주는 존재로, 화자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일치한다.

07 (다)는 음성 상징어와 과장된 행동 묘사를 통해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은 '미운 남'과 '고운 남'에 대한 정반대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웃음을 자아낸다. 따라서 ㉠가 '화자의 상황을 엄숙한 분위기로 형상화한다'고 이해한 것은 작품의 해학적 성격과 상반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이 시가는 매화와 눈 등 계절감을 담은 소재를 통해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09 이 시가는 임금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연군의 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선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작가가 임금(선조)을 떠나 유배지에 머물던 자신의 처지를, 이별이라는 보편적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화자를 임을 기다리는 여인으로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충정을 우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작품 속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감정은, 작품 외적으로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성심과 그리움이라는 의미로 확장됨으로써 중층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⑤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라는 보편적인 관계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충정이 이별을 경험한 모든 사람의 감정으로 확장되어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10 ㉠(무화), ㉡(님의 옷), ㉢(청광), ㉣(양춘)은 모두 임(임금)을 향한 화자(작가)의 정성과 충절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들이다. 반면 ㉤(산)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11 이 글에서는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없다. 우(禹) 임금의 일화가 제시되지만, 이는 인용문의 형태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작가가 고사를 서술 형식으로 풀어낸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강을 건너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도(道)의 깨달음을 전달한다.

② 시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낮의 상황과 청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밤의 상황을 대조하여, 감각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이라는 주

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③ '넘실거리고 빙글빙글 빨리 돌아가는 강물'과 같은 생생한 시각적 묘사로 현장감을 조성한다.

④ 강을 건너는 체험을 '한세상 인생살이'의 험난함에 비유하여 자연 현상을 인생 철학으로 확장한다.

12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 '내가 장차 연합협 산골짜기로 돌아가 다시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를 시험해 보리라.'라고 하였다. 이는 요동 별판이 아닌 '연합협 산골짜기'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이므로, 작가가 요동 별판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3 **서술형** 이 글의 작가는 강을 건너며 느끼는 두려움이 눈과 귀 같은 감각 기관에 현혹되기 때문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나아가 이러한 깨달음을 인생으로 확장하여, 살아가면서 바깥 사물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작가는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세를 추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을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썼다.	☐

14 (나)에서 창수는 천변의 풍경을 보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방망이 소리가 '상쾌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이 권투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꽤 재미스러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창수는 천변의 풍경을 보며 외로움이 아니라 재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버지가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창수를 데리고 가평에서 서울로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창수가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저 서울로만 보내 달라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졸랐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었으면 서도'에서 아버지가 창수를 서울로 보내는 것을 걱정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창수는 아버지가 반드시 '자기의 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5 (나)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카메라로 관찰하듯이 묘사하는 기법인 '카메라의 눈' 기법을 활용하여 창수의 눈으로 천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ㄱ). 이러한 카메라의 눈 기법을 활용해 천변의 풍경을 생생하고 세밀하게 그려, 독자는 작품을 읽으며 소설 속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ㄴ). 그리고 (나)에서는 '제멋대로들 지절거리는 소리', '방망이 소리'와 같은 청각적 심상과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과 같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ㄷ. (나)에서는 천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특정한 장면을 확대하거나, 이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높이고 있지는 않다.

16 (가)의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라는 구절에서 당시 시골 사람들에게 서울 지향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이 글은 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개인의 고통이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가족 해체와 경제적 궁핍을 통해 전후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회복이나 구원의 가능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18 ㉠은 철호가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는 삶의 절망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치통을 없애는 행위가 곧 새로운 희망의 발견이나 자기 각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철호는 이후 더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지고, 택시를 타는 장면에서는 스스로를 '오발탄'이라고 인식하며 삶의 방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구절을 희망적 태도나 각성의 열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맥락과 맞지 않다.

19 '오발탄'은 사전적으로 잘못 발사된 탄환을 뜻한다. 작품에서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적 비극이 드러나며, 철호의 가족이 겪는 고통 역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또한 철호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통제 불능의 상황에 내몰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오발탄이 상징하는 의미는 삶의 방향을 잃고 무력하게 방황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0 이 시에서 '백색의 계엄령'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서, 눈보라라는 자연 현상과 사회적 상황을 겹쳐 읽게 하여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a). 또한 이러한 '백색의 계엄령'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상황의 위압성과 긴박감을 강조하고 있다(b). 한편 이 시에서는 흰색의 거대한 눈보라와 검은색의 작은 굴뚝새라는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d).

21 굴뚝새(㉠)는 '쪼그마한 숫등이만한' 작은 존재로 묘사되어 약자의 위치를 나타내고, 솔개(㉡)는 포식자로서 위협적 이미지를 지닌다. 이는 자연 속 약육강식의 관계를 통해 현실의 권력 구조와 약자와 강자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굴뚝새와 솔개의 모습은 '순응과 저항'의 대비가 아니라 '약자와 강자'의 위계 관계로 나타난다.

② 공존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피해와 위협 관계이다.

④ 굴뚝새는 솔개를 두려워할 뿐, 동경하는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둘 다 겨울을 건디는 생명체이지만, 시에서는 동질성보다 위협적 대립 구도가 부각된다.

22 **서술형** 이 시는 폭설과 눈보라를 군사적 상황에 빗대어 현실의 억압적 상황을 비판한다. '계엄령'은 권력에 의한 강제적 질서 통제를 의미하는 군사 용어로, 당시 폭압적 현실을 상징한다. '군단'은 눈보라의 위세를 집단적이고 전투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거대한 권력이 개인을 압도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시어는 '계엄령'과 '군단'이다.

4. 삶과 함께하는, 문학

0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작품 1 나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416~419쪽

- 01 ④ 02 ③ 03 열거법 04 ④ 05 ①
06 ⑤ 07 무엇, 누구

01 화자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자신의 호칭을 ‘~이고’, ‘~이다’의 현재형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과거 사건을 회상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규정된 자신(‘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자는 선생의 제자, 제자의 선생, 나라의 납세자, 마을의 예비군 등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납세자’, ‘예비군’, ‘가장’ 등의 호칭을 통해 화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살펴보면 나는’으로 시작하여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호칭들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다.

02 이 시에 제시된 호칭들 중에서 ‘친구의 친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에 해당하는 호칭이다.

03 **서술형**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을 가리키는 18개의 호칭을 나열하고 있다. 이처럼 동등한 자격의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열거법’이라고 한다.

04 1연에서는 ‘나의 ~의 ~(이)고’라는 문장 구조를, 2연에서는 ‘~(이)고’를 매 행마다 반복하여 관계로부터 규정되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에서 문장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제시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영탄법은 감탄사나 감탄 조사를 사용하여 강한 감정을 드러내는 수사법이다. 이 시에서 영탄법에 해당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에서 은유, 직유 등의 비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시에서 ‘친구’와 ‘적’은 의미상 대조되는 시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관계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대조적 시어가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05 화자는 1연의 ‘나의 아버지의’, ‘나의 아들의’ 등 관계적 수식어를 2연에서는 제거해 보지만, 결국 ‘아들’, ‘아버지’, ‘납세자’, ‘예비군’ 등의 호칭들 자체가 여전히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규정된 것들이므로 ‘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뿐인 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 호칭들은 모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 것들이다.

③ 호칭들 중에는 ‘납세자’, ‘예비군’, ‘가장’과 같이 화자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보여 주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호칭들이 ‘오직 하나뿐인 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이 호칭들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들이므로 내면의 욕구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개인의 자유 의지 억압과 관련한 내용은 이 시에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06 [A]에서 화자는 ‘과연 / 아무도 모르고 있는 / 나는 / 무엇인가’, ‘그리고 / 지금 여기 있는 / 나는 / 누구인가’라는 의문문을 통해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탐구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이는 관계로 규정되는 ‘나’를 넘어서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성찰적 태도를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③ 화자가 질문을 던진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함이다. 본질적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본질적 자아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② 화자는 아직 본질적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④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자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다짐해보기 본질적인 ‘나’의 의미

본질적인 ‘나’

- 오직 하나뿐인 ‘나’
-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



화자가 찾고자 하는 화자의 정체성을 나타냄.

07 **서술형** 이 시의 화자는 3연에서 본질적인 ‘나’를 찾기 위해 잘 모르는 사실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인 ‘무엇’과 ‘누구’를 사용하여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는 각각 ‘무엇’과 ‘누구’이다.

작품 2 눈물은 왜 짝가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424~425쪽

- 01 ⑤ 02 ② 03 ②

01 이 시는 ‘-ㅂ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운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툭’, ‘찔끔’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② ‘툭’, ‘조심’, ‘일순’, ‘나서’에서 어휘 뒤에 첨표를 사용하여 상황 및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여운을 주고 있다.

③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되게 먹어 뒤라’와 같이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눈물은 왜 짝가’라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형식을 통해 화자의 복합적 감정을 드러내며 여운을 주고 있다.

02 이 시에서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어머니가 평소 고깃국을 즐겨 먹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머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도 자식을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답풀이 ① '지난여름이었습니다'를 통해 '지난여름'이라는 시적 상황의 시간적 배경이 나타난다.

③ 어머니가 주인아저씨에게 국물을 더 달라고 하여 화자의 투가리에 부어 주는 행동은 자식에게 더 많은 국물을 먹이려는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화자가 어머니의 투가리를 툭 치며 그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에서 나온 행동이다.

⑤ 주인아저씨가 모자의 행동을 보고도 시선을 외면해 주고 깍두기를 조심스럽게 갖다 놓는 것은 모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심을 보여 준다.

03 화자가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눈동자에게 난 땀을 씻어내며 '눈물은 왜 짠가'라고 속으로 중얼거린 것은 어머니의 배려에 부담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다. '과도한 배려'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답풀이 ①, ③, ④, ⑤ '눈물은 왜 짠가'에 담긴 다층적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한 것들이다. 이 표현에는 삶의 고단함에 대한 미각적 형상화, 어머니와 주인아저씨에 대한 감동,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힘든 삶에 대한 서러움 등이 모두 함의되어 있으며, 이 복합적 정서를 질문의 형식으로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되짚어보기 '눈물은 왜 짠가'의 의미

-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주인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이 담김.
-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농도가 소금물처럼 진하다는 것을 의미함.
- 화자와 '어머니'의 고되고 힘든 삶을 '짜다'라는 표현으로 응축하여 나타낸 것임.

소단원 평가

본문 431~433쪽

- 01 ② 02 ⑤ 03 관계로 규정되는 '나'가 본질적 자아가 아님을 깨달음. 04 ③ 05 ④ 06 ①
07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하는 행위, 깍두기 한 접시를 조심스럽게 놓고 돌아서는 행위 08 ②

01 이 시에서 직유나 은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답풀이 ① 1연에서는 '나의 ~의 ~(이)고'를, 2연에서는 '~(이)고'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관계로부터 규정되는 다양한 측면의 '나'를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과도한 감정 표출 없이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있다.

④ 화자는 총 18개의 호칭을 나열하여 한 사람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지막 연에서 '무엇인가', '누구인가'라는 의문문으로 행을 끝맺으며 본질적 자아에 대한 탐구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이 시의 화자는 관계를 통해 규정된 '나'가 '오직 하나뿐인 나'가 아니라고 인식한다. 3연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은 관계적 규정을 넘어서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가 영수에게 할 법한 조언으로는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만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① 국가에 대한 봉사는 시에서 다루는 주제와 거리가 멀다.

② 현실적 조건을 우선하라는 조언은 화자의 본질적 자아 탐구 의식과 반대된다.

③, ④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우선하라는 것이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은 화자가 '오직 하나뿐인 나'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관계적 '나'에 머무르라는 것이다.

03 서술형 < 화자는 1연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되는 다양한 '나'의 호칭을 나열한다. 2연에서는 관계적 수식어를 제거하고 호칭만 제시하지만, 이 역시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3연에서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의 '나'를 찾고자 한다.

평가 기준	확인☑
관계로 규정되는 '나'가 본질적 자아가 아니라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썼다.	☐
명사형 종결의 형식으로 썼다.	☐

04 '오직 하나뿐인 / 나는 아니다'는 화자가 '나'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1, 2연에서 제시한 관계로부터 규정된 '나'가 본질적 자아가 될 수 없음을 깊이 성찰한 결과이다.

○답풀이 ① <보기>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했으므로, 이 시가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고민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1연과 2연의 다양한 호칭들이 관계의 복합성을 보여 준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관계를 뺀 진정한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기회'라고 했으므로, 3연의 의문문이 자아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독자가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 작품이 독자에게 정체성 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05 이 시에서는 '눈물은 왜 짠가'라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감정을 과장하여 드러낸다

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시에 나타난 장면에서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물수건으로 씻어 내는 등 감정을 절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눈물은 왜 짝가'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진술하고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툇', '찔끔'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의 당황스럽고 서러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②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되게 먹어 뒤라"와 같이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③ '조심, 다가와'처럼 심표를 사용하여 주인아저씨의 배려를 강조하고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⑤ 종결 어미 '-비니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다.

06 '나'가 주인아저씨를 흠금거린 것은 어머니가 국물을 짜다며 국물을 더 받아 와서는 그 국물을 몰래 자신의 투가리에 부어 주었기 때문으로, 이를 가난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몸이 아픈데도 자식을 위해 고깃국물을 먹으러 가자고 하고, 국물을 더 받아 자식의 투가리에 부어 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드러나는 모성애라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드리는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 주며, 이는 '가난'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④ 화자는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물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슬픔을 감추려는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배려에서 어머니를 향한 깊은 애정이 드러난다.

⑤ <보기>에서 시인이 자신이 맺은 인연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고 했으므로, 이 시가 자전적 경험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어머니와 주인아저씨라는 인연을 시로 남긴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7 **서술형** < 이 시에서 주인아저씨는 모자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다. 하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국물을 더 부어 주는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깍두기 한 접시를 조심스럽게 놓고 돌아선 것이다. >

08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에게 국물을 부어 주는 어머니의 투가리를 툇 치는데, 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기>에서 화자는 성애꽃을 보며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라고 하며 버스를 탔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따라서 두 시 모두 타인을 이해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이 시에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지만 그 속에 진실된 뜻을 담아 전달하는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시는 과거를 회상하는 형태이나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는 주로 현재형으로 서술되었다.

④ 이 시는 '-비니다'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기>는 '-다'를 사용한 평서문으로,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이 시는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나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공동체 참여와 문학의 생활화

작품1 타클라마칸 배달 사고

작품 감상 확인 문제

본문 436~445쪽

01 ④	02 ③	03 바벨탑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8 ③	09 ⑤	10 ③
11 ①	12 ⑤	13 ⑤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①		

01 (나)의 내용으로 보아 빈스토크 시 홍보 담당관으로 주변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은수'가 아니라 '병수'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 병수는 빈스토크 토박이라고 했는데, 토박이는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을 의미한다.

② 이 글에서 병수는 빈스토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이 글에서 주변국에 살던 은수는 빈스토크로 일 자리를 얻어 떠났다고 했다. 따라서 은수가 빈스토크에 온 것은 일 자리를 얻어서이다.

⑤ 이 글에서 민소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 빈스토크의 용병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에 격추되었다고 했다.

02 (가)에서 주변국 수도는 빈스토크와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을 뿐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빈스토크가 주변국과 국경선을 만들지 않고 단일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에서 빈스토크는 '독립된 주권을 인정받은 국가'라고 했으므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앞부분 줄거리에서 빈스토크는 '영토 내 모든 시공간이 상품화된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했으므로, 영토 내의 모든 시공간이 철저하게 상업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주변국 수도는 언어나 민족 구성이 빈스토크와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⑤ 앞부분 줄거리에서 빈스토크는 '674층의 초고층 타워로, 인구 30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03 **서술형** < '바벨탑'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탑으로 바벨에 사는 노아의 후손들이 대홍수 후 쌓은, 하늘에 닿는 탑을 말한다. 이 글에서 주변국 사람들은 빈스토크를 바벨탑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빈스토크가 674층에 달하는 초고층 타워인 것과 관련된다. 또한 바벨탑은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영역까지 닿으려 하는 상황을 은유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를 고려할 때 주변국 사람들이 빈스토크를 바벨탑에 비유하는 것은 빈스토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04 빈스토크 토박이들은 빈스토크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도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종종 파란 우편함을 근거로 내세운다고 했다. 또한 병수도 마찬가지로 빈스토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늘 파란 우편함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따라서 병수가 ㉠과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빈스토크가 개인 간 신뢰가 높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05 이 글에서 '파란 우편함'은 업무용이 아니라 대화하고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등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고 했다.

오답 풀이 ① 파란 우편함의 우편물은 빈스토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달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② 파란 우편함에 담긴 엽서들은 빈스토크 시민들인 엘리베이터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각 층에 배달한다.

③ 빈스토크 미세 권력 연구소에 따르면 파란 우편함의 배달 정확도는 평균 90%가 넘는다고 하였으므로 배달 사고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파란 우편함은 빈스토크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비공식적 우편 체계이다.

06 병수는 파란 우편함을 통해 빈스토크는 도시화를 백 퍼센트인 나라에서만 가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말문이 막힐 때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고 했다. 즉 병수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빈스토크의 좋은 점을 성공적으로 알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과 같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다.

07 (마)의 내용으로 보아 ㉡(배달 사고)은 병수가 실수로 파란 우편함에서 가져온 민소의 편지를 당사자인 은수에게 전달하지 못한 사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08 (사)에서 은수는 민소가 시민권을 얻으려 연장 복무에 해외 파견까지 자원한 것에 대해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 사람 워낙 바보여서 확신은 없어요.'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은수가 민소가 자신 때문에 용병에 지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09 은수가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추후 보답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바)의 '은수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은수는 편지의 수신인에게 특정 주소로 들어가 사진에서 아무 표시가 없는 칸을 골라 비행기 잔해를 찾아 달라고 했는데, 이는 수신인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③ 은수는 실종된 사람이 위독하거나 이미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으며 오늘이 지나면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했다. 이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④ 은수는 빈스토크 해군에 고용된 용병 조종사가 사막에 실종되었음을 알리고, 이 사람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10 빈스토크 해군은 민소가 빈스토크의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소는 빈스토크의 용병으로서 빈스토크의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것이다. 따라서 ㉠의 국가가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었다는 것은, 빈스토크가 자국의 용병인 민소를 구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1 은수는 편지에서 '빈스토크 22층에는 네모난 국경면이 펼쳐져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직육면체 상자에 갇혀 있지 않다'고 했는

데, 이는 사람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에 갇혀 있지 말고 타인을 위해 인간적인 마음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수가 편지에서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편지를 읽은 사람의 인간적인 유대감에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상대방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호소하는 것일 뿐,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은수는 문제 해결에 동참해 달라고 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을 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④ 편지를 읽는 수신인에게 특정 내용을 부탁하는 것일 뿐, 빈스토크 해군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다.

⑤ 국가의 잘못된 점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아니다.

12 (아)에서 은수가 민소를 찾는 일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쓴 편지가 파란 우편함을 통해 빈스토크로 퍼져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파란 우편함이 민소를 찾는 사건이 전개되고 해결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차)에서 병수가 웹사이트를 만든 환경 감시 기구의 관리자에게 사람들이 왜 은수를 찾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소를 찾는 사람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웹사이트를 만든 관리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 ③ 빈스토크 시민 외에도 웹사이트를 만든 관리자의 국가, 다른 나라의 시민들도 민소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웹사이트를 만든 관리자도 '시작한 사람이 탄소리 하면 안'된다고 하며 웹사이트의 지도를 '다섯 칸 째 뒤지고 있'다고 하였다.

14 환경 감시 기구의 웹사이트 관리자는 ㉠에서 원래 인터넷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한다고 했다. 즉 인터넷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특별한 지시나 대가 없이도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서로를 모르는 익명의 공간이지만 개인 간의 신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서 개인 간의 신뢰가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 상에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작가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15 (타)에서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지도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민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모여 실종된 민소의 위치를 찾아냈다.

② 은수는 지도가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자 오류인 줄 알고 있었으며, 오류가 아니라는 병수의 말에 깜짝 놀라는 것으로 보아 수많은 사람들이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④ 4만 명이던 접속자의 수가 민소를 찾을 때에는 2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보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웹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⑤ 빈스토크 시간으로 아침 7시 5분, 웹사이트에서 빨간색으로 점멸하는 지점을 확대하자 정신을 잃고 쓰러진 민소가 보였다고 하였다.

16 독일에서 만들어진 웹사이트는 독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은수와 병수의 부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답풀이 ① '새 웹사이트'는 '독일에서 만든 웹사이트'라고 했으므로,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하던 독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③ 민소를 찾은 순간 웹사이트 접속자의 수가 2,774,767명이었으므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확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구역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방식'이라고 하였으므로, 기존에 만든 웹사이트보다 더 효율적으로 민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17 (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라진 민소의 행방을 찾게 된다. 이는 한두 명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결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파)에서 작가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기적'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빈스토크 시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파)의 내용으로 보아 극단적인 인간 소외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② (파)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인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③ 빈스토크는 현대 자본주의의 상품화가 집약된 곳이지만, (파)에서 인간성 상실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전 세계 사람들을 민중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들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18 이 글에서 은수는 ㉠과 같이 서서히 색깔이 짙어지는 모습이 마치 타클라마칸 사막 전체가 서서히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도의 색깔이 짙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민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막 전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민소를 찾겠다는 사람들의 열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452~454쪽

- 01 ① 02 ④ 03 '파란 우편함'이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는 것을 통해, 빈스토크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04 ③ 05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은수의 편지를 여러 곳에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6 ⑤ 07 ⑤ 08 ⑤

01 이 글에서는 '파란 우편함'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담은 소재가 등장한다.

02 주변국 사람들이 빈스토크를 바벨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빈스토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병수는 빈스토크가 바벨탑에 비유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에 사는 사람들이 빈스토크를 동경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병수는 도시화가 백 퍼센트 진행된 나라라고 해서 그 안의 삶이 인간미 없고 각박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도시화가 백 퍼센트 진행된 나라는 빈스토크를 의미하는 것이다.

② 병수의 말에 의하면 빈스토크는 엘리베이터 한 칸에도 이용 요금이 붙는 곳이라고 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주변국 수도는 언어와 민족 구성이 빈스토크와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⑤ 이 글에서 빈스토크는 모든 시공간이 상품화된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했다.

03 서술형 <'파란 우편함'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빈스토크 토박이들은 '파란 우편함'을 통해 개인 간의 우편물이 전달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빈스토크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파란 우편함'의 특징을 적절하게 썼다.	☐
제시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04 은수의 편지를 복사하여 빈스토크 전 구역으로 퍼뜨린 것은 병수가 아니라 대외 홍보국 직원들이다.

05 서술형 <㉠은 은수가 보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 복사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며 자발적으로 편지를 여러 곳으로 퍼뜨리고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편지가 편지를 낳도록 만든 행동의 주체를 밝혀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06 이 글에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 인명을 구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의 작가는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자발적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07 문학의 생활화란 일상생활에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을 읽고 문학을 생활화하기 위해 낭독회 및 문학 동아리 참여, 작가와의 만남 참여, 유사한 주제나 형식의 작품을 엮어 읽어 볼 수 있으며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설의 매체적 한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문학의 생활화와는 거리가 먼 활동이다.

08 이 글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민소의 행방을 찾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소를 찾아냈는데, 이는 공동체 구성원이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모습에 해당한다. 한편 <보기>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비닐봉지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내용상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글은 가상의 미래 도시인 '빈스토크'를 배경으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인물과 사회 사이의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보기>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문제점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이 글은 전통 사회의 붕괴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④ 이 글은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민소를 찾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되짚어보기 『어떤 비닐봉지에게』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상징적
제재	비닐봉지
주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
특징	-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말을 통해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함. - 비유법을 활용하여 환경 오염의 폐해를 드러냄.

대단원 평가

본문 458~462 쪽

- 01** ⑤ **02** 이 시의 화자는 '오직 하나뿐인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지 않으므로, '선배'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 호칭이기 때문이다. **03** ④ **04** ③ **05** ② **06** ③
- 07** 세 명의 인물은 '나', '어머니', '주인아저씨'이며, 이들의 행동에 나타난 공통점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08** ④
- 09** ② **10** ④ **11** ⑤ **12** (라)에서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막에서 실종된 민소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은 인간적 신뢰에 기초한 자발적 연대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지속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3** ③ **14** ④

01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며 '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의인화된 청자도 등장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감정이 과하게 드러나지 않는,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② 1연에서는 '나의 ~의 ~(이)고', 2연에서는 '~(이)고'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3연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이 의문형 어미로 행을 끝맺음으로써 본질적 자아를 탐구한다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④ 1연과 2연에서 대등한 자격을 가진 구체적인 호칭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02 서술형 이 시의 화자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직 하나뿐인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보기>의 밑줄 친 '선배'는 '후배'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나'이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의 입장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인 '선배'는 ㉠('오직 하나뿐인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시의 화자의 관점을 적절하게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03 2연에서 화자는 '남편이고', '오빠고', '조카고'라고 했는데, 이도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남편', '오빠', '조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호칭이므로 본질적인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이고', '오빠고', '조카고'가 관계를 뺀 본질적인 '나'를 의미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연에 제시된 '나의 아버지의 아들'은 화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와 맺은 관계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을 '나의 선생의 제자', '나의 마을의 예비군'이라고 칭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 국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여러 모습을 살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2연에서 '아들이고', '아버지'고, '동생'이고라고 한 것은, '나'가 이 사회 속에서 아들, 아버지, 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3연에서 화자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는데, 이는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따라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04 ㉠, ㉡, ㉢은 모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나'이다. 따라서 ㉠, ㉡, ㉢ 모두 화자의 본질적 자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가장'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므로, 이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의미한다.

②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납세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을 일컫는 호칭이므로,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의미한다.
④ '납세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을 일컫는 호칭이다. 따라서 ㉠, ㉢과 달리 ㉤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나'의 모습이다.

⑤ '선생'은 학생을 가르쳐야 하고, '가장'은 가정을 이끌어야 하며, '납세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 ㉤, ㉢은 모두 화자가 짊어져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음을 나타낸다.

05 이 시는 '-니니다'의 종결 어미를 통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를 '너'로 설정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를 '나'로 설정하여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연의 '눈물은 왜 짙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각 문장의 끝부분에 종결 어미 '-니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설렁탕집', '고깃국' 등의 일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나'의 애절한 정과 연민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 '툭'을 사용하여 투가리가 부딪히는 시적 상황의 생생함을 더하고, 이에 담긴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되짚어보기 작품의 표현상 특징

종결 어미 반복	'-니니다'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듯한 효과를 줌.
직접 인용의 사용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함.
침표의 사용	여휘 뒤에 침표를 넣어 상황 및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여운을 줌.
음성 상징어의 사용	'툭', '찔끔'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화자의 심리를 드러냄.
설의법의 사용	'눈물은 왜 짙가'에서 화자의 복합적 감정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강조함.

06 <보기>에서 이 시는 모자를 배려하는 주인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1연에서 주인아저씨가 고개를 빼며 앞으로 다가온 것은 어머니가 주인아저씨를 불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습에 모자의 사정을 알고 모자를 배려하는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이 시는 산문시의 형식이라고 하였다. 이 시의 1연에서 줄글처럼 내용을 서술한 것은 산문시의 형식에 해당한다.

② <보기>에서 이 시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담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의 1연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하는 어머니에게 이것은 희생에 해당한다.

④ <보기>에서 이 시는 인용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의 1연에 '나'에게 고깃국물이라도 되게 먹어 두라는 어머니의 말을 인용했는데, 고깃국물을 먹으라는 것은 아들인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이므로 이는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이 시의 한 구절인 '눈물은 왜 짙가'의 '짜다'는 어머니

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동, 주인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 등의 복합적 감정을 맛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07 서술형 이 시에 나타난 세 명의 인물은 '나', 어머니, 주인아저씨이다. 어머니는 주인아저씨에게 국물을 더 달라고 하여 '나'의 투가리에 부어 주었고, 주인아저씨는 모자를 위해 깎두기 한 접시를 조심스럽게 놓고 돌아섰으며, '나'는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눈물을 감추었다. 따라서 세 사람이 한 행동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세 명의 인물이 누구인지 적절하게 밝혔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되짚어보기 인물의 행동에 담긴 마음

'어머니'	고기를 먹지 못하지만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고 국물을 '나'에게 부어 줌.	자식을 향한 사랑
'주인아저씨'	모자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깎두기를 조심스럽게 놓고 감.	모자에 대한 배려
'나'	국물을 따라 주는 어머니의 투가리를 툭 치고 눈물을 땀인 양 닦음.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

08 ㉢에 사용된 침표가 화자가 땀을 흘려 내는 모습에 주목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힘겨운 삶에 고통받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슬픔을 감추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에 사용된 침표는 '나'와 어머니의 투가리가 부딪히는 소리에 주목하게 하며, 이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미안한 마음을 강조한다.

② ㉤에 사용된 침표는 주인아저씨가 깎두기를 주기 위해 조심히 다가오는 모습에 주목하게 하며, 이는 '나'와 어머니를 대하는 주인아저씨의 배려를 강조한다.

③ ㉢에 사용된 침표는 화자가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기 직전의 모습에 주목하게 하며, 이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는 모습을 강조한다.

⑤ ㉠~㉢에 사용된 침표는 '나', 주인아저씨 등의 모습에 독자가 주목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시적 대상의 특정한 생각이나 모습을 강조한다.

09 이 글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실종된 민소를 구하기 위한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행동이 드러나 있다.

10 이 글의 (나)를 통해 민소가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어 실종된 상태임을 알 수 있지만, 민소가 미사일에 맞은 까닭이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를 통해 병수의 실수로 민소가 은수에게 보낸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 은수가 지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 ③ (다)를 통해 은수가 쓴 편지가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 ⑤ (나)에서 빈스토크는 민소가 빈스토크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병수가 실수로 민소의 엽서를 은수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고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병수가 의도적으로 엽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 글에 병수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12 **서술형** [A]에서 은수는 동료와 빈스토크 시민들에게 민소를 찾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라)의 내용으로 보아 은수의 편지를 본 빈스토크 시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시민들은 웹사이트 위성 지도에서 민소의 위치를 찾는 일에 동참하여 결국 민소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인간적 신뢰에 기초한 자발적 연대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지속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제 해결의 주체를 적절하게 밝혀 썼다.	☐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다짐어보기 '민소'를 찾는 과정

- 위성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발됨.
- '은수'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민소'를 찾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함.



'은수'의 편지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 나가고, '은수'나 '민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민소'를 찾는 일을 도움.



-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짐.
- 독일에서 새 웹사이트를 만들.



인터넷상의 익명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냄.

13 ㉔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은소의 편지를 여러 곳으로 퍼뜨리는 상황을 나타낸다. 지시를 받아서 타의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14 <보기>는 19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에는 민소가 빈스토크의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는 국가의 문제가, <보기>의 ㉔에서는 도시 빈민 계층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㉔은 산업화 사회 속 소외된 도시 빈민의 문제를 그리고 있으므로 현대인의 소외를 그린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글과 ㉔은 모두 대규모 가족이 소규모 가족으로 뒀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은 익명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무책임한 개인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㉔에서는 공동체의

연대감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글에서 빈스토크 국가가 민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민소는 빈스토크의 국민이 아니기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기>의 ㉔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그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경지식+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작품 정리

• 작품 개관

갈래	연작 소설, 세대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제재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삶
주제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과 좌절
특징	•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룸. • 상징적,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냄.

• 작품 해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는 연작 소설이다. 낙원과 거리가 멀고 행복도 없는 빈민가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난쟁이 가족의 삶을 중심으로 도시 빈민이 겪는 철거, 착취, 소외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난쟁이'와 '작은 공' 같은 상징적 소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문학 바탕 플러스⁺

☞ **갈래** 한눈에 보기 **확인** 문제

본문 464~473쪽

01 ⑤	02 운율	03 ⑤	04 심상	05 ①
06 외형률	07 ②	08 ⑤	09 공감각적	10 비
유적 심상	11 ⑤	12 상징	13 ⑤	14 ②
15 상상력	16 ⑤	17 ③	18 인물	19 ④
20 ④	21 개성적 인물	22 ③	23 ②	
24 전지적 작가 시점	25 연극	26 ③		
27 방백	28 ④	29 대본	30 ⑤	31 ②
32 ②	33 경수필	34 ①		

☞ **고전 문학사** 원문 **확인** 문제

본문 474~481쪽

01 원시 종합 예술	02 ③	03 ⑤	
04 승려, 화랑	05 한자, 지배층	06 ⑤	
07 ㉠, ㉡, ㉢	08 악장	09 언해	10 ②
11 ⑤	12 정철	13 규방	14 ②
15 민요	16 ②		

- 01 상고 시대에 문학, 음악, 무용 등의 예술 영역이 분화되지 않은 채 연행된 예술의 형태는 원시 종합 예술이다. 이후 노랫말은 문학으로, 춤과 몸짓은 무용과 연극으로 분화되어 발전하였다.
- 02 고대 가요에서는 「구지가」와 같이 주술적 특성을 지닌 작품도 있지만, 모든 고대 가요가 주술적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 03 향가는 고려 초까지 창작되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려 초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를 지나며 사라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향가의 주요 작자층은 승려와 화랑이었기 때문에 향가에서 승려나 화랑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 05 한시는 한자로 창작을 했다. 한자는 지배층이 사용하던 문자였기 때문에 한시는 주로 지배층의 문학이었다.
- 06 고려 속요는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채록되어 전해진다.
- 07 경기체가라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창작되다가 쇠퇴하였고, 조선 전기 여러 궁중 의식에 활용된 것은 경기체가가 아닌 악장이다.
- 08 악장은 조선 전기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에 쓰인 노래이다.
- 09 언해는 유학과 불교의 경전 등과 같이 한문으로 전하던 것을 한글로 풀어서 쓰는 것, 또는 그런 책을 말한다. 언해가 확대되며 한글 보급을 통한 문자 생활의 확장과 문화 및 학문의 발달을 가져왔다.

- 10 조선 전기에 주로 왕족이나 사대부 계층이 시조를 창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황진이와 같은 기녀들도 시조를 창작하였으므로 왕족이나 사대부 등의 지배층만 시조를 창작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1 조선 전기에는 시조와 가사 모두 자연 친화의 내용이나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 12 가사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창작한 '정철'은 가사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 13 규방은 전통 사회 여성들이 주로 거처하던 공간을 의미하는데, 여성들의 가사 작품 창작과 전승이 주로 이루어진 공간이기도 하다.
- 14 조선 후기에 작가층이 여성과 평민으로 확대되면서 사설시조가 활발히 창작되었으나, 평시조와 연시조가 창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15 민요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운율감을 기초로 일반 민중 사이에서 형성되어 불리던 전통적인 노래이다.
- 16 민요는 구비 문학의 하나로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려 말기에 발생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고전 문학사** 산문 **확인** 문제

본문 482~487쪽

01 ④	02 전설, 민담	03 서사
04 ㉠, ㉡	05 가전	06 ㉠, ㉡
07 ②		
08 전기적	09 ①	10 ③
11 ③		
12 해학, 풍자		

- 01 신화는 전 세계 민족이 동일하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사이에서 전해진 신적 존재의 탄생과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 02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신적인 요소가 없으며 구체적인 배경과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설화를 전설이라고 한다. 민담은 흥미 위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 03 전설과 민담은 이후 우리나라의 패관 문학, 가전, 소설과 같은 서사 문학의 뿌리가 되었다.
- 04 우리나라의 한문학은 「왕오천축국전」과 같은 기행문, 「격황소서」와 같은 격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창작되었다. 통일 신라 시대에 특히 발전하였으며 지배층이 주도하였다.
- 05 가전은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가계(家系), 생애, 성품, 업적 등을 기록한 허구적 전기(傳記) 형식의 문학이다.
- 06 가전은 풍자성, 창의성이 가미된 허구적 이야기로, 실존 인물이 아닌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 등을 의인화하여 다룬다.

- 07** 패관 문학은 상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기록한 문학으로, 사물을 의인화하여 업적 등을 기록한 허구적 문학은 가전이다.
- 08** 한문 소설은 조선 전기에 발생한 한문으로 쓰인 소설로, 조선 전기 한문 소설은 전기적인 내용이 많았다.
- 09**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몽유록은 후대 몽자류 소설에 영향을 끼쳤다.
- 10** 수필은 개인의 견문, 사상, 감정을 자유롭게 기록한 문학으로 전설은 수필이 아니라 설화에 속한다.
- 11**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이 성행했지만 한문 소설 또한 꾸준히 창작되었으므로 한문 소설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 12** 민속극과 판소리는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의식 세계를 그려 낸다.

☞ **현대 문학사** **운문** **확인** 문제

본문 488~492 쪽

- | | | |
|-------------------|---------------|-------------------|
| 01 ④ | 02 신체시 | 03 개인, 서정시 |
| 04 ㉠, ㉡ | 05 민요 | 06 ④ |
| 07 청록파 | 08 ⑤ | |
| 09 ② | 10 ⑤ | 11 옹호, 서정시 |
| 12 ⑤ | | |
| 13 민주화, 풍자 | 14 ① | 15 ② |

- 01** 개화기에는 고전 시가 양식과 근대시 양식이 공존하며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 등의 개화기 시가가 등장하였다.
- 02** 신체시는 개화기 시가의 대표적 양식으로, 정형시의 율격에서 탈피하고자 했으나 자유시에는 이르지 못했다.
- 03** 1910년대 운문 문학에서는 신체시와 같은 계몽 문학의 교술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면을 그린 서정시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 04** 1920년대에는 신경향파 시인들이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위한 문학을 전개하였다. 또한 조국을 상실한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과 프랑스 상징주의의 퇴폐적 풍조에 영향을 받아서 감성적 낭만주의 경향의 시가 창작되었다. 시문학파가 등장한 시기는 1930년대이다.
- 05** 1920년대의 대표적 시인인 김소월은 민요적 율격에 민족 고유의 서정을 담아내었다.
- 06** 민중이 구심점이 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발생한 신경향파의 시는 1920년대에 발생하였다.
- 07** 1930년대에 등장한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 등은 청록파 시인이 라고 불렸다.

- 08** 광복 직후 극심한 이념적 갈등이 문단에서의 이념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져 6·25 전쟁 전까지 지속되었다.
- 09** 1950년대에는 6·25 전쟁의 비극적 체험과 전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등을 다룬 작품이 주로 창작되었다. 여성의 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 10** 1960년대의 운문 문학에서는 4·19 혁명에서 5·16 군사 정변으로 이어지는 격동기 속에서, 불의와 모순의 현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향의 현실 참여시가 대두되었다.
- 11** 1960년대의 운문 문학에서는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면서 문학의 본질적 영역을 탐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순수 서정시가 많이 창작되었는데, 대표적 작품으로 박재삼의 「추억에서」가 있다.
- 12** 1970년대 운문 문학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의식을 담은 시들이 주로 창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의식을 담은 시는 주로 일제 강점기에 많이 창작되었다.
- 13** 1980년대의 운문 문학에서는 민주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발하거나 풍자하는 경향의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 14** 신경림의 「농무」는 1970년대에 창작된 시이다.
- 15** 199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관심보다는 주로 개인의 일생과 내면에 관심을 두는 경향의 작품들이 창작된 것은 맞지만, 정치 문제를 다룬 작품이 창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 **현대 문학사** **산문** **확인** 문제

본문 493~497 쪽

- | | | | | |
|----------------|----------------|---------------|-------------|-------------|
| 01 ③ | 02 ③ | 03 근대극 | 04 ③ | 05 ⑤ |
| 06 ㉠, ㉡ | 07 ② | 08 인간 | 09 ② | 10 ④ |
| 11 전통 | 12 ㉠, ㉡ | 13 ③ | | |

- 01** '판소리를 근간으로 발생한' 것은 신소설이 아니라 개화기의 극문학 중 창극이다.
- 02** 1910년대에 극 문학은 서구와 일제의 영향을 받아 근대극의 형식을 지닌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했으나, 전통극을 근대극에 접목한 실험적 극 형식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 03** 1910년대의 희곡은 서구와 일제의 영향을 받아 근대극의 형식을 지닌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제의 검열이 다른 갈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해 그 성과가 크지 않았다.

- 04 1920년대 극 문학은 자유연애와 결혼,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묘사나 폭로 등을 다루었지만 내용과 형식 면에서는 아직 미숙했으므로 이 시기에 희곡이 발전하여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 05 1930년대 서사 문학에서는 반일 성향의 작가들이 검거되면서 현실 비판적인 소설 창작이 위축되는 한편 도시 문명에 대한 모더니즘 소설, 농촌 현실과 농민의 삶을 다룬 소설, 역사 소설, 가족사 소설 등이 창작되었다. 따라서 이때 역사 소설이 쇠퇴했다고 보기 어렵다.
- 06 광복 직후 산문 문학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반성의 체험으로 승화하려는 자기반성적 작품과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문학을 다룬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 07 1950년대의 산문 문학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거나 무기력해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이 창작되었다.
- 08 1950년대에는 전쟁의 비극을 다루면서도 인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산문 문학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 09 1960년대에는 남북 분단 문제나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거나 현대인의 소외와 방황을 다룬 작품들이 주로 창작되었으므로 농촌의 소멸과 관련된 작품 창작을 이 시기의 주된 산문의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 10 1970년대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도시 빈민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소설들이 창작되었다.
- 11 1970년대 극 문학에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둥둥 낙랑동」과 같은 작품에서 이러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12 1980년대에는 대하소설이 많이 발표되었고, 극 문학에서 마당극을 계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1980년대의 산문 문학에서는 전쟁에 대한 자기 반성적 작품이 창작되지 않았고, 억압적인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 13 「엄마의 말뚝」과 같은 사회 비판적 내용을 담은 소설이 많이 발표된 것은 199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이다.

이론으로 다지는 수능 실전 ①

본문 498~504 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④
06 ④	07 ⑤	08 ③	09 ③	10 ①
11 ②	12 ⑤			

지문 이해하기 ①회 - 1

(가) 이론 - 한국 서정 시가의 전통

· 지문 개관

주제	한국 서정 시가의 전통
특징	- 한국 서정 시가의 전통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함. - 한국 서정 시가의 전통을 잇는 작품을 예를 들어 설명함.

(나) 작자 미상, 「조부가(樵夫歌)」

· 지문 개관

주제	나무꾼의 고달픈 삶과 신세 한탄
특징	4음보의 율격으로 운율감을 형성함. -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강조함.

(다) 김소월, 「길」

· 지문 개관

주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비애
특징	3음보, 7·5조의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01 (나)의 화자는 '나무하러 가자'라고 한 후 '이히후후'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는 나무를 할 때 내뿜는 한숨 소리이다. 그러므로 '나무하러 가자'에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하러 가야 하는 화자의 고달픈 삶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화자는 '산으로 올라갈까'라고 한 후 오라고 하는 곳이 없어 자신은 못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으로 올라갈까'에는 갈 곳을 잃은 화자의 비애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나)의 나무하러 가는 곳과 (다)의 '산'은 화자의 이상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표현에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나)의 '세상 인간V갈지 않아V이놈 팔자V무슨 일고'는 이와 같이 4번 끊어 읽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4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게 목발'은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로 이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는 나무꾼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항상 지게와 남의 집을 못 면하기 때문에 '사자 하니 고생이라'며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사자 하니 고생이라'에서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한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④ 두 개의 행인 (나)의 '어제도V하로밤V나그네 집에'는 이와 같이 3번 끊어 읽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이 두 행에 걸쳐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나)의 화자는 '기럭'에게 '너도 또한 입을 잃고 입을 찾아서 가는 길'이라고 묻는 것을 통해 외로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기럭'을 '여보소'라고 부르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라고 묻는 것을 통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 모두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② (나)와 (다)에는 모두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에서는 첫 부분과 끝부분에 '가자 이히후후'라는 시구를 반복한 수미상응의 시상 전개를 통해 구성상 안정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에서는 수미상응의 시상 전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와 (다)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계절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⑤ (나)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3 (다)의 화자가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라고 묻는 것을 통해 ㉠ '저 기럭'은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어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가 '너도 또한 입을 잃고 입을 찾아서 가는 길'이라고 묻는 것을 통해 ㉡ '저 기럭'은 짝이 없어 외로운 화자의 심정을 이입한 대상으로, 화자는 자신과 '저 기럭'의 처지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 '저 기럭'은 (나)의 화자가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대상으로, 화자에게 삶의 깨달음을 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 '저 기럭' 역시 (다)의 화자가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자신의 비애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대상으로, 화자에게 삶의 깨달음을 주고 있지 않다.

② (나)의 화자는 ㉠ '저 기럭'을 자신과 같이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기럭'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다)의 화자는 ㉡ '저 기럭'을 갈곳이 없는 자신과 달리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기럭'은 (다)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다)의 화자는 ㉡ '저 기럭'을 통해 그리워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지 않으므로 '저 기럭'은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 '저 기럭'을 통해 잃어버린 입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저 기럭'은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⑤ ㉠ '저 기럭'과 ㉡ '저 기럭' 모두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대상일 뿐, 화자의 심정을 위로해 주는 대상은 아니다.

04 (다)의 화자는 '열 십자 복판'에 서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따라서 '열 십자 복판'은 화자의 갈등을 야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화자가 되돌아가고 싶은 원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답풀이 ① (다)의 화자는 '나그네 집'에 '어제도' 하룻밤 까마귀 소리를 들으며 지새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고향에 갈 수 없어 목적지를 잃은 화자의 방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둘'은 오라는 곳이 없는 (다)의 화자가 갈까 고민하는 장소 중 하나이므로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어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화자의 비애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주 객산'은 화자의 고향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주 객산' 역시 '오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슬픔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⑤ '갈린 길'은 방향성을 상실한 (다)의 화자가 서 있는 공간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갈린 길'에서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은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지문 이해하기 ①회 - 2

(가) 이론 - 허구화를 통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지문 개관

주제	허구화를 통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
특징	구체적인 작품을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도움.

(나) 작가 미상, 「박씨전」

· 지문 개관

주제	오랑캐를 무찌른 박씨의 영웅적 활약
특징	• 전기적인 내용이며, 변신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음. • 병자호란에서의 패배를 보상받고자 하는 소망을 담음.

(다) 박경리, 「시장과 전장」

· 지문 개관

주제	전쟁의 비극과 폭력성,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수난
특징	•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바탕이 된 작품임. • 시장과 전장이라는 서사적 공간을 통해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조명함.

05 중공군과 인민군이 남기고 간 쌀을 얻으려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윤씨를 지영은 혼자서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윤씨와 지영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박씨전」은 실재했던 전쟁인 병자호란이 배경인 작품으로, (가)에서 알 수 있듯이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② 여성 인물인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고 활약하는 시비 계화가, 가해 세력으로 등장하는 용골대 등의 무리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③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과 전장」은 실재했던 전쟁인 한국전쟁이 배경인 작품으로, 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려는 작가의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⑤ (나)에 등장하는 '용골대'는 청나라 장수로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다)에 등장하는 '중공군' 역시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중공군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두 실재했던 전쟁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06 (나)에서 박씨가 청나라 군사들을 용서하는 모습은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청나라 군사들을 박씨의 자비를 입어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청나라 군사들을 초라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임장군전」에서 용골대가 승전비를 세우는 것도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용골대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① 계화와 박씨는 용골대를 꾸짖으며 굴복시키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병자호란 때에 비참하게 패배했던 치욕을 허구적 인물을 통해서라도 위로받고 싶었던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학습 활동〉에서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라며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의 슬픔을 토로한 것으로,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 느끼는 연대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용골대는 박씨를 공격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인물로 제시되어 있고, 〈학습 활동〉에서도 교만이 더욱 심한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용골대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은 병자호란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임장군전」과 「박씨전」에서 왕대비는 청나라에 볼모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박씨전」에서는 (나)에서 보듯이 박씨의 영웅적 활약 덕분에 왕대비가 청나라에 볼모로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07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 제시된 장안 삼십 리에 불길기 충전하고, 장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② (나)에서 조선의 도원수인 김자점이 용골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관군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박씨의 재주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해 하는 장면은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패전의 고통을 위로받고자 하는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④ 박씨가 은혜를 입은 나라를 침범하는 무지한 놈이라며 오랑캐군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은혜를 모르는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08 '끓주린 이리떼'는 끓주림에 지쳐 곡식을 보고 달려든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그 필사적인 행위를 서술자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윤씨가 총에 맞아 죽기 전이므로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다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윤씨가 죽게 되는 모습은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과 그렇지 않은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② (다)의 '갈가마귀떼'는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④ 윤씨는 전쟁터가 아닌 후방에서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가져가지 못한 식량을 자루에 퍼 담고 일어선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된다. 윤씨는 죽으면서까지 쌀자루를 놓지 못하고 꼭 껴안고 있어 쌀자루가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이러한 모습은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무고한 개인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에 젖은 '쌀자루'

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는 것으로 감상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지영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으로 돌아온다. (가)로 보아 윤씨의 죽음은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영의 모습은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9 (다)에서 알 수 있듯이, 김씨 부인은 윤씨를 찾으러 강변으로 나가는 지영을 만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리고 독길을 넘어 강변으로 갔고, 결국 죽은 윤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용골대는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하다가 실패하자, 화약 염초로 불을 질러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용골대가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화살로 공격하다가 실패하여 화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②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라서 화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왕대비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한 것이다. (나)의 앞부분에서 화친 언약을 받았음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④ (다)에서 윤씨와 김씨 댁 아주머니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니라, 한강 모래밭이다.

⑤ (다)에서 윤씨는 피란 갔던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란을 안간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 이해하기 ①회 - 3

(가) 이론 - 문학적 시간의 특징

• 지문 개관

주제	자연적 시간의 변형과 재구성성을 통해 나타나는 문학적 시간
----	----------------------------------

(나) 조지훈, 「고풍 의상」

• 지문 개관

주제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과 춤사위에서 느껴지는 고전미
특징	• 예스러운 어투와 전통적 소재를 사용하여 고전적 분위기를 형성함. • 화자의 시선이 수직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다)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지문 개관

주제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특징	• '어머님'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함.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10 ㉠은 자연적 시간인 '봄밤'을 '두견이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가)를 바탕으로 이해했을 때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은 대상을 곱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현재형으로 드러낸 것으로,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로 보기 어렵다.

- ③ ㉡의 '건너', '열고'는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현재인 '이 밤'과 과거인 '옛날'을 통합적으로 인식한 것은 맞지만, 시간의 정확성이 아니라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 경우이다.
 ⑤ ㉢의 '흔들어지이다'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11** (다)에서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화자가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니라 '예닐곱 살 적 겨울'이라는 과거에 화자가 위치했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다)에서 화자는 성인이 된 현재, 한강교를 지나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를 보면, 화자가 '어머님'에게 아버지와의 과거 추억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화자는 '어머님'에게 유년 시절(예닐곱 살 적)에 추위를 막아 주던 아버지 에 대한 기억과 성인이 된 현재, 한강교를 지나면서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시상 전개 방식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화자는 성인이 된 현재,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즉, '옛날처럼 나는'을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이고,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유년 시절에 아버지와의 경험을 추억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현재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과거에 화자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가 시적 현재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미 돌아가신 과거의 아버지인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현재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고 표현하였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여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2** (나)에서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는 여인의 우아한 자태와 호흡의 이미지와의 조화를 통해 정서적 여운을 주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아미를 숙이고'는 눈썹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는 것으로, 움직임이 있는 동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정적인 상태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말줄임표가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날을', '늘이운', '곰아라', '고아라', '파르란', '기인'과 같이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사용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시어들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들로 운율적 효과를 주기 위해 일부러 허용하는 것으로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② '부연', '처마', '호장저고리', '운해 당해', '거문곶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소재와 '아름다운지고', '밤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인 '그대'의 움직임을 자연물인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파르란 구슬빛', '자쫓빛', '하얀' 등과 같은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1 ③	02 ①	03 ①	04 ⑤	05 ⑤
06 ①	07 ①	08 ①	09 ①	10 ⑤
11 ③	12 ③	13 ②	14 ④	15 ④

지문 이해하기 ②회 - 1

(가) 이론 - 시조에 나타난 조선 사대부들의 삶의 태도

· 지문 개관

주제	관직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삶의 태도
특징	· 시조에 나타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삶의 태도를 관직의 유무와 관련지어 설명함. · 관련 시조 작품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움.

(나) 이덕일, 「우국가」

· 지문 개관

주제	당쟁을 일삼는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과 우국충정
특징	임진왜란 직후의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염려와 개탄을 드러냄.

- 01** (가)의 내용으로 볼 때, '궁(窮)'은 '빈천(貧賤)'을 의미하고, '빈천'은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궁(窮)', 즉 '빈천(貧賤)'은 '처'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 또 (가)에서 사대부들은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출'을 거부하고 '처'를 선택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의 '빈천을 사양 마라'는 '처'의 삶을 거부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의 '치군택민(致君澤民)'은 '목숨을 바쳐 임금을 섬기고 백성에게 은덕이 미치게 함'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가)의 내용으로 볼 때 '관직에 나아가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가)의 내용으로 볼 때, '빈궁'과 '빈천'은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처'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A]의 '빈천거'는 '처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고, '빈천거를 하오리라'는 '처'의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가)의 내용으로 볼 때, '달(達)'은 '부귀(富貴)'를 의미하고, '부귀'는 '고위 관직에 올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달', 즉 '부귀'는 '출'과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 또 (가)에서 임제의 시조에는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위기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의 '신명을 못느이라'는 '부귀'를 탐했을 때의 결과이므로, 나라의 유교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출'을 선택했을 때 초래할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가)의 내용으로 볼 때, '영달'과 '부귀'는 '고위 관직에 올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출'과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 또 (가)에서 임제와 권호문의 시조에는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위기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A]와 [B]

에서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부귀(富貴)는 위기(危機)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두 작품의 화자 모두 '부귀'의 삶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와 [B]에는 당파 싸움이 심한 시대에 '출'의 삶을 '위기'라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02 '고립(孤立) 무조(無助)'는 '홀로 있어 도움이 없음'을 의미하며, '고립 무조는 남이신가 하노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고립 무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이 고립 무조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답풀이 ② '공도(公道) 시비(是非)'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따짐'을 뜻하는 말로, 화자는 당대 현실에 대해 '공도 시비'를 하지 않아 '한탄'이 길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사회가 (가)에서 언급한 '순리대로 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집만 돌아보고 나라 일 아니 하'는 사람들은 관직에 나아가 백성들을 '인'과 '의'로써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당대 사대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곧 (가)에서 언급한 '유교적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공명'과 '부귀'는 관직에 나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는 (가)에서 언급한 '출-달-부귀'에 해당한다. 화자는 '공명'과 '부귀'를 바라지 않으므로, '달'의 삶 역시 지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자가 '초가 한 칸'에서 '우국상시'를 느끼는 것은 (가)에서 언급한 '처'의 삶을 살면서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근심을 표현하며 우국충정을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 또 화자가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삶의 태도는 (가)의 '처-궁-빈천'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초가 한 칸'에서 '우국상시'를 느끼는 것은, '궁'의 상황에서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 근심을 드러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03 [B]에서는 '부귀(富貴)', '탐(貪)하다', '빈천(貧賤)', '절로'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는 <제14수>에서 '외다', <제25수>에서 '시비(是非)', <제26수>에서 '나라', '궁(宮)', '집'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답풀이 ② 대화체는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체를 말한다. [B]와 (나) 모두 대화체를 사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점층적 표현은 그 정도를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는 표현을 말한다. [B]와 (나) 모두 점층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설의적 표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으로, [B]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어느 집이 곧으리오'와 '부귀(富貴)인들 바랄소냐'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상승 이미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한다. [B]와 (나) 모두 상승 이미지가 나타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지문 이해하기 ②회 - 2

(가) 이론 -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특징과 정립 과정

• 지문 개관

주제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특징과 정립 과정
특징	• 우리나라 전기소설이 중국의 전기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음을 설명하며 그 특성을 비교·대조함.

특징

• 우리나라 전기소설이 점차 소설적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함.

(나) 작자 미상, 「김현감호」

• 지문 개관

주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
특징	• '호원사(虎巖寺)'라는 절의 건립 내력을 밝히고 있는 사원 연기 설화임. • 인과 관계에 의한 사건 구성으로 서사 문학의 짜임새를 갖추고 있음.

(다) 김시습, 「이생규장전」

• 지문 개관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특징	•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두 남녀의 사랑을 애뜻하고 절실하게 드러냄. • 비극적 현실을 비현실적인 환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드러남.

04 (가)에서 전기소설의 창작 동기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 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전기소설의 작가가 불우한 자신의 삶을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고자 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답풀이 ①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엮은 것이며 이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 쓰였다고 하였으므로, 전기의 작가가 현실적 사건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가)에서 유기적인 서사 구조 속에서 결말의 전형성을 보여 주는 것은 전기가 아닌 전기소설이라고 하였다. 전기소설과 달리 전기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작가가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창작한 것은 전기소설이 아니라 전기이다.

④ 전기소설이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이라는 독자성을 보인다는 설명이 있을 뿐, 전기가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문체를 활용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5 (다)에서 최낭이 저승의 법을 위반하는 죄가 이생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결국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과 이를 허용하지 않는 세계 간의 갈등 관계가 부각된다. 이처럼 최낭과 이생이 겪는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세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나)의 김현이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바'랄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처녀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는 나약한 인물이다. 따라서 전기소설의 주인공의 특징 중 하나인 소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현에게 부탁하는데, 이는 갈등 해결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부처의 전능함으로 이루어짐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의 갈등 해결이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폐쇄성은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의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며 세상사를 잊은 채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고 하였으므로 폐쇄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외로움을 지니며, 이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다)에서 혼백을 위탁할 곳이 없는 처지였던 최낭이 환신하여 이승에 돌아와 이생과 인연을 이어 가려 하는 모습에서 최낭이 외로움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6 (나)에서 김현은 처녀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처녀와 헤어지고 있고, [A]의 이생은 최낭에게 황천으로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의 처녀는 자신의 죽음이 김현과 자신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김현을 설득하고 있다. (다)의 최낭은 자신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어서 이승에 더 머물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저승의 법을 어기게 되어 이생에게도 그 화가 미칠 것이라며 이생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여주인공인 최낭이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처녀는 김현에게 자신이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을 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다. [A]의 최낭은 이생에게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이를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나)의 김현은 처녀의 말에 따르므로 결국 벼슬을 얻어 조정 등에 용되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A]의 이생은 최낭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나 최낭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A]의 이생이 최낭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⑤ (나)의 김현은 범을 잡은 공으로 등용된 뒤 처녀의 은혜를 갚았다고 하였으므로 세속적 삶에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졌다고 볼 수 없다. [A]의 이생은 최낭을 깊이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으므로, 아내를 잃은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 있다.

07 (가)에서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부처가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에서 김현은 처녀의 죽음으로 벼슬을 얻게 되는데, 이는 김현의 욕망에 대해 부처가 처녀(범)의 죽음으로써 응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사나운 범이 성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이 벼슬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정이다.

③ 김현과 범은 미리 계획한 대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협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둘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임금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는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서사에 해당한다. 임금은 전후 사정을 모르므로 이 장면이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⑤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이 부처가 남녀의 기이한 만남에 감동하는 계기를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가)와 (나)에서 찾아볼 수 없다.

08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다)에 구현되어 있지 않다. 이생이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 찾아간 '가산을 묻어 둔 곳'은 이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이다.

오답 풀이 ② 최낭이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어 가려는 태도를 드러내므로, 최낭을 능동적 여인상으로 볼 수 있다.

③ 최낭은 이미 죽었지만 살아 있는 이생과 옛날과 다름없이 기쁜 정을 누렸다고 하였다. 이는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사랑이므로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최낭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존재였으나 결국에는 저승의 법에 따라 이승을 떠나야만 한다. 이승과 저승(황천)은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개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에는 이원적 공간 구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⑤ 이생과 최낭이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는 것에서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문 이해하기 ②회 - 3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지문 개관

주제	공명의 추구와 자연에 묻혀 사는 삶 사이에서의 갈등
특징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강호에 은거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구성됨.

(나) 박재삼, 「추억에서」

• 지문 개관

주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한(恨)
특징	• 의문형, 추측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함.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한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다) 이론 - 고전 시가와 현대 시의 리듬

• 지문 개관

주제	고전 시가와 현대 시에서 리듬이 드러나는 양상과 현대 시에 작용하는 고전 시가의 리듬
특징	고전 시가와 현대 시에서 드러나는 리듬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함.

09 (가)는 '다르리야', '구허랴', '호노노', '다르리'에서 '-리야', '-랴', '-노', '-리' 등의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과 벼슬에 나아가 임금을 섬기는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한이든가', '떨던가', '것인가'에서 '-ㄴ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 아닌, 독백의 방식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의 '강호'는 속세를 벗어난 자연의 세계라는 점에서 탈속성이 있는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시적 공간인 '진주 정터', '진주 남강' 등은 현실 생활과 연결된 구체적 장소로 탈속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고, (나)에도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손 시리게 떨던가'를 통해 추측해 볼 수는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10 '회보미방'은 화자에게 벼슬길에 나오라고 권유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통로였던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던 일을 통해, 화자가 '충효'를 중요한 삶의 덕목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②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화자는 유교적 출처관에 따른 삶을 살았다고 하였다. '행장유도후니'는 세상에 나아가거나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④ 강호에서의 삶을 선택한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병들고 늙었음을 이유로 들며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손 시리게 떨던가'는 '우리 오누이'가 '별 밤' 아래의 '골방' 속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추위에 떠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행복 감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이 시의 시간적 배경으로 '바닷길이 갈리는'과 연결되어 파장 무렵 바닷가 '생어물전'의 쓸쓸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② 다 팔지 못한 생선의 '빛 발하는 눈썹'은 유사한 이미지를 지닌 '은 전'으로 연결되며, 이 '은전'은 '손 안 닿는' 것이라는 점에서 '울 엄매'가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한'의 정서를 유발한다.

④ '진주 남강'이라는 지명을 통해 공간의 구체성을 보여 준다. 한편 생계를 꾸리기 위해 신새벽에 나가 밤에나 집에 돌아오느라 낮에는 강을 보지 못했을 '울 엄매'의 바쁘고 고된 삶을 떠올리게 한다.

⑤ '글썽이고 반짝이던'은 달빛 받은 '웅기'의 표면과 '울 엄매'의 눈물을 연결 지어 어머니의 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12 울림소리 '르', 'ㅁ'의 반복은 리듬을 창출하고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에 대한 화자의 애상감을 표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 아니라 외적 규율을 따른 것이다.

② (다)에 따라 (가)가 규칙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현대 시는 말소리 등의 반복을 통해 외적 규율이 아닌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에 나타난 어머니의 삶은 무료함이나 생동감과는 거리가 멀다.

⑤ (다)를 볼 때 (나)에서 1년부터 3년까지 생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과 관련이 없다.

지문 이해하기 ②회 - 4

(가) 이론 - 시의 시간과 공간

• 지문 개관

주제 시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기능

(나) 김기림, 「길」

• 지문 개관

주제	길에 담긴 추억과 상실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
특징	• 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함. • 시각적 이미지와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형상화함.

(다) 천양희, 「한계」

• 지문 개관

주제	한계를 직면한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
특징	• 존재에 대한 성찰을 관념적으로 드러냄. • 점층적 사상 전개를 통해 절망적 상황의 심화를 형상화함.

13 (나)의 3연에서 '노을에 함복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온 했다.'는 공감각적 이미지(시각의 촉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을'이라는 자연물로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화자는 '어머니'와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에는 '은빛', '푸른 하늘 빛', '자줏빛' 등 색채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자의 유년 시절 추억이나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데에 사용된 것이지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③ (다)의 1연에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절망적 상황이 심화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주변 상황의 변화를 아쉬워하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다)의 3연에서는 '한계령 바람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고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동적 대상을 정적 대상으로 수용하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⑤ (나)에서는 '은빛 바다', '어두운 내 마음'과 같은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에서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비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14 ㉔에서 화자는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감기'에 걸려 앓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㉕에서 화자는 한밤중에 혼자 깨어 있으면 '늑골 사이로 추위가 몰려온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모두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신체적인 반응과 연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㉔에는 화자의 내면의 고통은 드러나지만, 화자가 내면의 괴로움에 맞서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㉕에서 화자가 고통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화자가 자신이 느낀 고통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㉔와 ㉕는 모두 고통을 겪는 화자의 상태가 나타날 뿐, 화자에게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음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⑤ ㉔에서는 그런 날은 감기를 '항용' 만났다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아픔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임을 드러낸다. 하지만 ㉕에서는 '간간이' 추위가 몰려온다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아픔이 가끔씩 찾아오는 것임을 드러낸다.

15 (나)의 '강가'는 화자가 '그 길'을 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화자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녔던 공간이다. '강가'에서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은 화자가 '강가'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가 현재 처한 현실과 동일시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의 화자는 '한밤중'에 깨어 있으며 이때 '한계령'의 '바람 소리'와 마주치는데, 이 '바람 소리'는 화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한밤중' 깨어 있는 상황이 화자가 직면한 현재를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5연에서 화자는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기다려 본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과거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는 형식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을 그려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5연에서 화자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린 대상은 화자의 '첫사랑', 즉 '돌아오지 않는 집집애'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함께했던 대상이 지금도 돌아올 것만 같아 '동구 밖'에서 '기다려 본다'는 표현을 통해 현재도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다)의 4연에서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화자는 연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인' 모습이 된다. 이는 현재 화자가 처한 한계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지금도'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떠나간 대상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화자는 현재 대상을 그리워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의 화자는 '한밤중'에 깨어 추위를 느끼고 있다. 이는 내면에서 떠올린 '한계령'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론으로 다지는 수능 실전

본문 514~520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9 ④	10 ⑤
11 ①	12 ③	13 ⑤	14 ④	

지문 이해하기 ③회 - 1

(가) 이론 - 향가와 시조의 영향 관계

· 지문 개관

주제	향가와 시조의 영향 관계
특징	향가와 시조의 영향 관계를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

(나) 총답사, 「안민가」

· 지문 개관

주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안
특징	· 현전하는 향가 중 유일하게 유교적 내용을 담음. ·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가족 관계에 빗대어 설득력을 높임.

(다) 낭원군, 「평생에 일이 업서」

· 지문 개관

주제	세상을 잊고 자연 속에서 사는 삶
특징	· 대유법을 활용하여 자연을 표현함. ·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01 (가)에서 조선 후기 시조는 실학의 대두로 인하여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있으므로, 시조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 관념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향가 중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것이 총 25수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더 많은 작품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가)에서 향가 중 4구체를 초기, 8구체를 과도기 형태, 10구체를 정제된 형식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향가의 발전 과정상 4구체는 초기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시조는 지금까지도 작품 창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에서 향가는 10세기 말 무렵까지 창작됐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작품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시조는 시조가 지니는 형식미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였다고 하고 있다.

02 (가)를 통해 '4구+4구+2구'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낙구에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는 10구체 향가의 형태가 후대 평시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0구체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와 같은 시조의 4음보 율격이 (나)와 같은 10구체 향가의 '4구'가 반복되는 형태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10구체 향가는 대개 '4구+4구+2구'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추게 된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 있다. (나)는 10구체 향가이고, (다)는 평시조이므로 (나)의 '4구+4구+2구' 형태는 (다)의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성 형성에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10구체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다. (나)의 '아으'는 10구체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이고, (다)의 '엇더타'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이므로 (나)의 '아으'는 전승의 측면에서 (다)의 '엇더타'와 영향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10구체 향가는 낙구에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종장에 자연과 벗하며 살겠다는 주제가 제시된 것은 (나)의 9구와 10구에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는 주제가 제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10구체 향가와 평시조가 각각의 갈래에서 정제된 형식이라고 하고 있다. (나)는 10구체 향가이고, (다)는 4음보의 율격을 갖춘 정형성을 지닌 평시조이다. 따라서 10구체 향가인 (나)는 향가라는 갈래에서 대표적인 형식이고, 평시조인 (다)는 시조라는 갈래에서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03 (나)에서 ㉠ '임금'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므로 '임금'은 '이 땅'에 있다. 그리고 (다)에서 ㉡ '님자'는 평생에 일이 없어 '산수 간'에 노닐고 있으므로 '님자'는 '산수 간'에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아버지로 비유된 ㉠ '임금'은 어린아이로 비유된 '백성'에게 사랑을 알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임금'은 '백성'을 사랑해 주는 것이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에서 ㉡ '님

자'는 자연에 묻혀 살면서 강산풍월을 '벗'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님자'는 '벗'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에서 ㉠ '임금'은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다)에서 ㉡ '님자'는 산수 간에서 노닐고 있다. 따라서 '임금'과 '님자' 모두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 '님자'는 자연을 벗 삼아 살고 있으므로 대상의 부재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에서 ㉠ '임금' 역시 백성을 먹여 다스리고 있으므로 대상의 부재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다)에서 ㉢ '님자'는 세상일을 다 잊고 자연에서 사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 '임금'은 백성을 먹여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04 (나)에서 화자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고 하며 ㉠ '자신의 본분을 행함'을 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라는 내용으로 볼 때 ㉠ '임금'은 ㉡ '신하'와 ㉢ '백성'에게 당부를 하는 화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 '자신의 본분을 행함'은 화자가 ㉠ '임금', ㉡ '신하', ㉢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임금'을 '아버지'에, '신하'를 '어머니'에, '백성'을 '어린이'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나)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대된 형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는 '임금'과 '신하'가 굶주린 '백성'을 먹여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 '임금'과 ㉡ '신하'가 ㉢ '백성'을 잘 먹여 다스리는 일이 통치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 '자신의 본분을 행함'은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는 것인데 '임금'과 '신하'가 자신의 본분을 행하는 것은 '백성'을 먹여 다스리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민심을 중시하는 정치의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 '나라의 태평'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 '자신의 본분을 행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5 (가)에서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고양시키고 노래의 내용을 완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다)의 낭원군의 시조는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읊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종장의 감탄사 '엇더타'에는 왕족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낭원군은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다)에서 '평생에 일'은 정치 참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평생의 일'로 표현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 낭원군의 시조는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으로 읊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산수 간에 노니다가'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이를 통해 정치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

③ (다)의 '강호에 님자되니'에는 왕족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다.

⑤ (다) 작품 자체로만 본다면 자연과 벗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산풍월'을 '벗'하는 것에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해야 하는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하지 않다. <보기>에서 낭원군의 시조는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읊은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강산풍월'을 '벗'하는 것은 정치적인 한계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문 이해하기 ③회 - 2

(가) 이론 - 고려 속요의 형성 과정과 특성

· 지문 개관

주제	고려 속요의 형성 과정과 특성
특징	『시경』의 '풍'과 비교하여 고려 속요의 특징을 제시함. - 고려 속요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함.

(나) 작자 미상, 「동동」

· 지문 개관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특징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구성된 월령체 노래임. - 임을 다양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함.

(다) 작자 미상, 「가시리」

· 지문 개관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 총 4연으로 된 분절체 형식임. - 반복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정한을 강조함.

06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게 덕과 복을 바치겠다고 기원하는 내용이므로 ㉠ '송축의 내용'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각 연의 마지막 행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이므로, ㉠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의 예로 적절하다.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축을 하는 것으로, 임과 이별하여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찬양이 주된 내용인 (나)의 내용과 다르다. 따라서 ㉡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의 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사>에만 제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의 예로는 볼 수 없다.

④ (다)의 '위 증줄가 대평성디'는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에 대한 송축이 드러나 있으므로 ㉠ '송축의 내용'의 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 내용인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지므로 ㉡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의 예로도 볼 수 있다.

⑤ (다)의 1연에서 '위 증줄가 대평성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임이 떠나지 않기를 애원하는 내용이므로 ㉠ '송축의 내용'의 예로 볼 수 없다.

07 (가)를 볼 때 [A]는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한 쌍'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는 1연에서는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을, 2연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제시할 뿐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답풀이 ① (가)를 볼 때 [A]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우음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정월령>은 냇물과 대조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가)를 볼 때 [A]의 '물수리 한 쌍'은 조화로우음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춘 돌윗꽃'은 남이 부러워할 자태를 지닌 것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③ (가)를 통해서 [A]에서는 부부간의 화락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임이 떠나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에서 [A]가 '풍속 교화의 시조'라는 평을 볼 때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이월령>에서 화자가 임을 '노피 현 등'에 빗대어 임의 훌륭한 인격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에서 화자가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과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통해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문 이해하기 ③회 - 3

(가)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지문 개관

주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특징	•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 회상을 통해 시상을 불러일으킴.

(나) 김규균, 「묘비명(墓碑銘)」

• 지문 개관

주제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세태 비판과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
특징	• 대립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을 반영적으로 풍자함.

(다) 이론 - 인간의 현실과 지향을 반영하는 시

• 지문 개관

주제	인간의 현실과 지향을 반영하는 시
특징	•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시의 속성을 제시함. • 시 쓰기를 통해 시인이 지향해야 할 바를 설명함.

08 (가)에서는 '노래'에, (나)에서는 '묘비'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청자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와 (나)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나타나 있으나, (가)에서는 풍자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내~노래는~갔소'의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달 밝은 밤', '눈물 먹은 별들' 등에서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훌륭한 비석', '귀중한 사료' 등에서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반어적 어조가 사용되지 않았다.

09 화자는 '선달 보름날 강이 얼어붙는 추운 밤, 강 건너 하늘 끝에 닿은 사막, 모래불,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등과 같이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절망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지도 않았다.

○답풀이 ①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서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처해 있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매우 암담하고 혹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가 부른 노래가 건너간 강 저편을 '사막'으로 표현하여, 화자가 직면하게 될 상황이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삭막하고 고된 곳임을 표상하고 있다.

③ 화자는 강 건너간 노래가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인 '밤'과 희망을 의미하는 '무지개'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10 (나)에서 '훌륭한 비석'은 반어적 표현으로, '시'나 '소설'을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았던 인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부정적 인물을 가리는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 (나)를 쓴 시인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답풀이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다)를 참고했을 때 이 '노래'는 시인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노래'가 강을 건너간 이유를 '못 잇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가 '집조차 없다'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묘비명'은 정신적 가치는 외면하고 물질적,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를 가리는 글이며, 화자는 이를 반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판하며 풍자하고 있다. 따라서 (나)를 쓴 시인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부정적 인물의 '묘비'가 남아서 훗날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을 우려하며 역사와 시인이 무엇을 기록하고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지문 이해하기 ③회 - 4

(가) 이론 -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지문 개관

주제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

(나) 윤선도, 「만흥(漫興)」

• 지문 개관

주제	자연에서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특징	• 세속과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함. • 고사 속 인물과 비교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다) 이덕무, 「우연(迂言)」

• 지문 개관

주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
특징	• 반어적 제목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 사는 곳과 마음 두는 곳을 기준으로 삶의 방식을 분류함.

- 11 <제1수>에서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은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이므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제6수>에서 '강산'은 '님군 은혜(恩惠)'를 더욱 알 수 있는 공간이므로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제2수>에서 '보리밭 풋노물'은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제3수>에 제시된 '잔'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수>에서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2수>의 '그 나쁜 녀라는 일이라 부를 줄이 이시랴'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 표현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윗 곳 뭉그'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제5수>에서는 화자의 의문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는 영탄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④ <제3수>에서 화자는 산이 말하거나 웃지 않아도 그저 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에 대한 긍정이 드러난다. 한편 <제4수>에서 '소부'와 '허유' 같은 은자가 약했다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자연 속에서 묻혀 살았던 은자의 삶에 대한 긍정의 표현일 뿐,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⑤ <제3수>에는 '뫼'를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 12 <제3수>에서 화자는 '뫼'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리운 '님'이 오는 반가움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이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님'은 '뫼'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일 뿐, 화자와 거리를 지닌 외부 세계가 아니며,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제1수>에서는 '산수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고 거처하고 있는 화자를 '놈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자연 속에서 지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이 대비되면서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제2수>에서 '바윗 곳 뭉그'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화자는 속세의 '녀라는 일'과 거리를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제4수>에서는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낮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만족해하는 것으로,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에서 생활하는 것도 모두 '님군'의 '은혜'라고 말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충(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3 ㉠에서 화자는 자신을 '하암'이라고 낮추어 표현하면서 자연 속 소박한 집에서 거처하는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에서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말이 '물정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과는 다른 것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과 ㉡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 ㉡ 모두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지 않다.

- 14 (나)에 소부와 허유와 같은 선인들의 삶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서는 작은 즐거움이 가장 높은 것이라는 자신의 말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 '뫼'에 대해 반갑게 여기며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즉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다)에서 '산림'은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공간이거나, 큰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글쓴이가 자연이라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다)에서는 삶의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고, 그중에서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화자의 본성이 게을러 하늘이 자신에게 인간 만사를 맡기지 않았다고 하며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과 연관 짓고 있다. (다)에서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와 (다)는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